

국립국어원 2011-01-1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36-0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안 귀 남(안동대학교)
- ▣ 조사 주제 : 자염
- ▣ 조사 지역 : 서해안 중부(태안)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안귀남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6
2.1. 현장 조사 지침_7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9
2.1. 제보자_19	
2.2. 조사 기간 및 방법_20	
2.3. 조사 지역_20	
2.3.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마금리 낭금마을	
2.4. 조사 장소_23	

- 2.5. 조사 내용_23
- 2.6. 조사 결과물_23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구슬 발화 27

- 1. 자염의 제염 과정 및 설비 27
 - 1.1. 정운영의 발화_27
 - 1.2. 정낙추의 발화_89
- 3. 자염의 제염 도구 110
- 4. 소금의 종류 131
- 5.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133

제4장 조사된 어휘 136

- 1. 명칭과 행위자 136
 - 1.1. 소금, 자염, 화염(火鹽), 간, 재래염, 천일염_136
 - 1.2. 염한이, 염부_137
 - 1.3. 염벗임자, 벗임자, 벗주, 염주_137
 - 1.4. 간쟁이, 간장이, 간장_138
 - 1.5. 화부_138
- 2. 제염 설비 138
 - 2.1. 자염의 설비_138

2.1.1. 통자락, 갈자락, 염판	2.1.2. 간통, 통, 우물
2.1.3. 틀	
2.1.4. 버긱, 훔(훔), (짚물)구대기, 구대, 간장주	
2.1.5. 염벗, 염막, 벗, 움막, 벗집	
2.1.5. 뜸, 윗집	2.1.6. 나래, 이엉
2.1.7. 철판, 가마, 쇠철판	2.1.8. 아구니, 구락쟁이
2.1.9. 굴뚝, 굴뚝달다	2.1.10. 벗터
2.1.11. 부담, 부뚜막	2.1.11. 가맛돌, 가마걸돌, 걸돌
2.1.12. 벗자락	2.1.13. 벗말, 서까래
2.1.14. 해이다	2.1.15. 염벗허다

2.1.13. 함통, 함수통, 간수통	2.1.16. 외야치, 외얏치
2.1.17. 호락질하다	2.1.18. 가마, 낮가마, 밤가마
2.2. 자염의 생산 방식_149	
2.2.1. 통조금 방식, 무제염전식	
2.2.2. 갈개 조금 방식, 갈자락 방식, 양빈식	
3. 제염 도구 151	
3.1. 자염의 제염 도구_151	
3.1.1. 씨레, 씨리/쓰리	
3.1.2. 가래, 일곱가래, 아홉가래/구명가래	
3.1.3. 나래	3.1.4. 덩이판, 덩이판, 이다판
3.1.5. 되주걱, 뜰채	3.1.6. 무지계, 물지계
3.1.7. 물통, 통, 황	3.1.8. 털, 안털, 바깥털
3.1.9. 고무래	3.1.10. 대름, 대림
3.1.11. 덩이판, 덩이판, 이다판	3.1.12. 후리채
3.1.13. 삼태기, 삼태미	3.1.14. 대칼
3.1.15. 섬, 소금섬	3.1.16. 부지갱이, 부지땡이
3.1.17. 소	
4. 제염 과정 161	
4.1. 자염의 제염 과정_161	
4.1.1. 염벗 만들기	4.1.2. 통자락 만들기
4.1.3. 갯벌흙 말리기(함토작업)	4.1.4. 짠물 옮기기
4.1.5. 짠물 끓이기	
4.1.7. 소금물, 간수, 갠수, 짠물, 간물, 함수, 염수	
4.1.8. 조금	4.1.9. 물때
4.1.10. 산짐허다	
5. 소금의 종류 173	
5.1. 자염_173	
5.2. 화렴_173	
5.3. 재래염_174	
5.4. 천일염, 외렴, 태양염, 청염_174	
5.5. 간(소금)_174	
5.6. 원소금_174	
5.7. 송염, 송화가루소금_175	
6.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175	
6.1. 재료_175	

6.1.1. (참)조기	6.1.2. 보글치
6.1.3. 백조기	6.1.4. 황세기
6.2. 제작 과정_176	
6.2.1. 독간치다, 간치다	6.2.2. 제리다
6.2.2. 간허다	
6.3. 가공품의 종류_177	
6.3.1. 간조기	6.3.2. 뭇
6.3.3. 젓갈	
7. 민속 179	
7.1. 벗고사_179	
7.2. 뱃노래_179	
7.3. 간쟁이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_180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83
참고문헌 186
부 록 187
찾아보기 221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에 제1차 단계로 실시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에 이어 2011년도에 실시하는 제2차 단계의 조사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어촌 생활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이

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구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서해안 중부, 남해안 서남부, 동해안 북부, 제주도 동부로 어촌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점 간의 거리차를 두어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2010년에 실시한 제1차 조사 지역을 제외하되, 동일한 해안 지역 중에서 미조사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여 선정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1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다.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기’나 ‘-키’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기’이면 ‘-기’, ‘-키’이면 ‘-키’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시’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준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썸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ㅗ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ㄱ>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一’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ㅛ’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팔), 뽀다(뽀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ㅑ’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ㅕ’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깁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벵이다(배우다)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ㅓ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쎄(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ㅏ>ㅓ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ㅓ>ㅓ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뽀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ㅓ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귓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ㅓ>ㅓ : 팽이>핑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께>뀌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홉, 똥>똥,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펥퐁(병퐁), 팍나(밤낚),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굶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소금은 인간의 생활문화 중에서도 생업활동과 음식문화 및 식생활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소금의 생산, 유통, 소비의 풍속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제염업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 지리학을 비롯하여 민속학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국어학적인 측면의 제염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는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제염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려후기의 『고려사』에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평양도, 강릉도, 서해도에 많았으며, 조선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등에 많았다. 그리고 조선후기로 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한반도 이남 지방에 제염지가 많았다.

1910년 전후의 우리나라 자염 생산 현황을 도별로 살펴볼 때, 전라도가 37%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9%, 충남이 11%, 경남이 9% 순이다. 전라도 해안가와 서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빨갭이 풍부하여 염전을 조성하기에 유리하였으며, 경상도 지역은 사빈이 발달한 만에 주요 제염지(염전)가 있어서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염전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염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연적 조건이다. 서해중부에 위치한 충남 태안은 독특한 해안구조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크고 광범위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빨갭으로 사용하는 소나무가 풍부하였으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좋은 자염 생산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소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봄철의 음력 3~5월 까지와 장마철이 지난 8월~9월의 날씨가 소금 생산량을 좌우하는데, 이때는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러 함투의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염은 천일염이 보급되기 이전(1950년대)에 우리 선조들이 염도를 높인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말한다. 그 의미는 한자어 ‘煮鹽(끓일 ‘煮’, 소금 ‘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 자료에서는 ‘자염’이 오래 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실제 태안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화렴’이라고 불렀다.

자염 제조에 적합한 장소는 모래가 약간 섞인 갯펄로 조금(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은 기간) 때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펄이어야 한다.¹⁾ 태안군에서 재현한 것은 통조금 방식이다. 갯벌 가운데 함수(鹹水-염도를 높인 바닷물)를 모으는 웅덩이를 파고 조금 때를 이용하여 중앙에 통자락(소금물이 모이는 통)을 설치한 다음 웅덩이의 흙을 통 주변에 펼쳐놓고 물이 닿지 않는 기간 동안 갯벌의 흙이 잘 마르도록 소(牛)를 이용해 썬레질을 하여 말린다. 수일간 갯벌 흙을 잘 말린 다음 다시 흙을 웅덩이에 밀어 넣으면 사리 때 바닷물이 그곳에 스며들어 염도가 높은 물이 중앙에 묻혀 있는 통속(간통)에 모이게 되는데, 다시 조금 때가 돌아오면 통속에 고인 물을 퍼서 가마솥에서 숯가지 불로 8시간 정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그러므로 자염은 구운 소금과는 구별된다.

바닷물을 직접 끓이면 뿔감의 소비가 많지만 소금의 양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나무를 소비하면서도 소금양을 늘리고 염도가 높은 바닷물 모으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통조금(방식)’과 ‘갈개조금(방식)’이다. 두 가지 모두 가마솥에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지만 함수(짠물)를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남해안에서는 주로 통조금과 갈개조금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통조금 방식과 달리 갈개조금 방식은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조금 때 수일간 갯벌을 갈아 말린 흙을 육지로 옮겨온 다음 바닷물을 강제적으로 투과시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통조금방식은 조금 때 자연스럽게 통속에 고인 물을 퍼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짠물)를 끓여서 만든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전통소금인 자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갯벌이 남아 있지만 조금 때 7~8일 동안 바닷물이 닿지 않는 갯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는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갯벌의 자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자염생산의 역사, 자염 제조 및 제조과정, 도구 명칭과 쓰임새, 자염 생산의 자연적 조건, 자염생산의 지역분포, 생산방식 등을 조사하여 자염 생산과 관련된 태안 지역어의 조사한다.

자염축제 역시 모항리의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제보자를 만날 수 없는 시점에서 자염축제를 주체했던 분들을 통해 자염 만드는 전과정 재현, 소금고사, 통자락 만들기, 간수 나르기 등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1) 입빈식 무제염전법은 만조 시 해안가로 밀려온 해수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이용한 염전이다. 이 염전법은 제방이 없으므로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염전에서 채합작업을 한다. 즉 사리 때 염전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토사에 습윤시키고, 바닷물이 빠지는 조금 때는 염전을 갈아서 토사에 염분을 달라붙게 한다. 입빈식 무제염전의 채합작업은 조석의 성쇠에 따른 보른의 주기성을 갖는다. 조선후기 서해안의 염전에서 음력 8일에서 12일까지, 23일부터 27일까지 각각 5일 동안 채합작업을 하였다(승정원일기, 1068책, 영조27년 5월 1일, 유승훈, 2008:62참조) 이때는 상현과 하현의 전후로 물이 염전까지 닿지 않으므로 염부가 소를 끌고 다니며 흙을 갈아엎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태안지역 제보자에 따르면 조금 시기는 12물(한객기)에서 4물까지를 ‘조금’으로 파악하여 함토작업을 하는 시기이다. 즉 태안제보자는 사리는 다섯물부터 시작되어 열한물까지를 사리로 파악하였다. 승정원일기와는 조석의 차이가 있다. 상현(매달 음력 7-8일)/하현(음22-23) 채합작업 시작/현재 제보자의 ‘조금시기’는 아침조금(12물/초 6일/21일)에서 4물(초 13일, 28일)로 제보함.

실정이다. 다행히 자염축제를 통해 사라졌던 전통적인 소금제조법 등에 관련된 어휘를 태안지역 어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1] 낭금 갯벌 통자락터



[사진 2] 낭금 갯벌 염벗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염전	정운영	남	81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출신. 20살부터 태안지역에서 자염을 생산했으며, 2002년 태안지역 자염 재현 과정에 참여하였음.
2		정낙추	남	58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로 111번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출신. 부친(정천영)이 자염생산을 한 경험이 있음. 2002년 태안지역 자염재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자염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음.



[사진 3] 정낙추



[사진 4] 정운영

본 조사는 2001년 당시 재현 사업에 참여하신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는 과거 자염의 제조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정운영)과 현재 자염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정낙추)이다. 제보자는 모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출신으로 자염 생산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이다. 정운영 씨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거주하시며, 20세부터 자염 생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에 거주하시는 정낙추 씨는 부친(정천영)께서 자염 생산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2001년 자염재현사업을 추진하신 분으로 현재 자염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자염 생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 본 조사에서 생생한 자염 생산의 과정을 조사·정리할 수 있었다. 정낙추 씨로부터

2002년 자연 재현사업을 녹화한 방송자료 및 자연 생산 과정과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운영 씨로부터 자연 생산 과정 및 도구 등에 관한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안문화원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정지수)으로부터 관련 사진과 글을 받았다.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1년 4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염전에 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염전에 관련한 문헌을 읽으면서, 염전에서 쓰는 어휘를 선정하여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방법은 제보자와 일정 기간(1박 2일 또는 2박 3일)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밀착 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제보자가 염전에 대해 설명할 때, 조사자는 준비한 질문지 항목을 조사함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 어휘도 조사하였다. 특히 사라진 제염 방법인 자연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수집하고자 하였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일)	비고
1	문헌조사(4. 26. ~ 7. 1.)	
2	염전(충남 태안군 근흥면 낭금 마을)에 관한 현지조사(8. 16. ~ 8. 19.)	
3	염전(충남 태안군 근흥면 낭금 마을)에 관한 보충조사(9. 30. ~ 10. 1.)	
4	조사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10. 2. ~ 11. 22.)	

2.3.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예부터 소금 생산지로 유명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낭금리로 선정하였다.

2.3.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 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는 전통적으로 자연의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다.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만 5천 지형도에도 이 들판이 벼²⁾앞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곳이 과거 화염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모항리에서 자연이 가장 성했던 곳은 석장골앞이며, 당시 10여대의 염벚이 설치되어 소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대부

2) 자연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말.

본의 지역에서 자염의 제조법은 사라지고 천일염 제조로 바뀌면서 현재 이 지역에서 자염 생산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이다(어촌민속지, 1996:236).

문헌자료를 통해 충청도에서 소금 생산지로 손꼽히는 곳은 서산·태안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권 70, 선조28년 12월 18일)』 과 『비변사등록(인조 2년, 인조 16년)』 에서는 제염법이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유승훈, 2008:52) 이들 지역은 간석지가 발달하여 염전 조성이 편리하고 안면도 등지에서 땀감이 풍부하여 소금생산지로 적합하였다. 특히

충남 태안 지역의 자염 생산 지역 분포는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서해를 접한 원북면, 소원면, 근흥면, 태안읍 남면, 안면도 일부와 또 하나는 동쪽의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접한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 남면, 안면도의 일부이다.³⁾ 영조 때(1750년) 어사 韓光筆의 「균세행람均稅行覽」에 의하면 태안지역의 염분(鹽盆/鹽釜)이 453좌로 기록되었고(김의환, 2004:50-51), 1920년대 『서산군지』(1927:449-450)에서는 이 서산·태안 지역의 제염법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당시 제염업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태안군의 이북과 안면이었다. 당시 태안(30), 근흥(96), 소원(22)의 제염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태안문화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원면 염벚(염막)은 대략 4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충청도 소금생산량의 75%를 차지하던 서산·태안지역의 제염업은 한말부터 인천의 천일염, 중국염의 수입, 연료의 부족, 고래대금과 소금값의 하락으로 위축되었다.

1910년 전후 우리나라 자염 생산 현황은 도별로 볼 때 37%로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금이 생산되었고, 경기도가 19%, 충남이 11%, 경남이 9%를 차지하였다(유승훈, 2008:53-56).

그러나 2001년 자염재현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자염생산지로 적합한 장소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마금리 낭금마을임이 확인되었고, 현재 염벚터와 관련 시설물이 일부 남아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마을에서는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인 자염의 생산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염축제’가 충남 태안문화원 주최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바가 있었다. 당시 자염 생산에 종사했던 생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현 사업은 전통 소금인 자염의 생산과정을 조사·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2001년 당시 자염재현사업에서 사용되었던 염벚과 주변 시설이 일부 남아 있다.

자염의 생산과 유통은 체계적인 경제활동이었다. 하나의 염벚(염막)에는 한 개의 가마가 설치되었고, 한 번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대략 4섬(240kg)이다. 하루에 두 번 가마에 불을 때서 8섬(480kg)을 생산하고, 염벚 1개를 운영할 때 염벚주 1인, 염한이 6~8인, (소 한 마리에 연한이 두 사람이 1조를 이룸), 간쟁이 1인 등 6~8인으로 구성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염지가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분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자염의 생산 방식과 제염시설, 도구,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등에 관련된 어휘들 역시 지역적

3) 정낙추(2002:6)

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들 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한 선행 조사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진 5] 조사 지점

2.4.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의 집과 가게에서 진행되었다. 정낙추 씨의 조사는 자염 가게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운영 씨의 조사는 제보자의 집에서(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 이루어졌다.

2.5.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명칭과 행위자,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제염 과정, 소금의 종류, 소금을 이용한 가공 식품인 영광굴비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세부 조사 항목
명칭과 행위자	염전과 행위자 명칭
제염 설비	자염의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자염의 제염 도구
제염 과정	자염의 제염 과정
소금의 종류	자염의 종류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간조기, 젓갈의 재료, 제작 과정, 간조기의 종류

2.6.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염전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염전		270	199	8		20	1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구술 발화

1. 자염의 제염 과정 및 설비

1.1. 정윤영의 발화⁴⁾

@ 어르신 성함하고 주소 한 번 말씀해주세요.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 1리 정윤영.

@ 지난번에 재연사업 하시던 것은 옛날에 해보셔서 참가하신 거예요?

#1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했어요.

@ 아, 그럼 어떤 역할을 그때 하셨어요?

#1 그때는 지금은 기계들이 들어와서 기계로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소로 갈았어요. 소로 갈고, 그 뿔을 말려서 우물 파느라 다시 말건히 하나 말려다 다시 넣어놓고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그 말렸던 것이 내려앉으면서 짠 짜디짠 물이 그 우물로 들어가요.

@ 그럼 제가 그냥 차례차례 그 뭐야 염벳하고 만드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구워서 만드는 소금을 뭐라고 하시나요?

#1 화렴이라고 하죠.

@ 자염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자염이라는 말은 안 하셨나요?

#1 옛날에 옛날에가 자염이었죠.

4) #1은 정윤영, #2는 정낙추의 발화 내용이다.

@ 원래가?

#1 예 그 자염이라 해갖고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어,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조금 조금 움푹움푹 파진 데가 있어요. 돌이. 거기가 소금이라고 해갖고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소금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그 소금을 가지고서 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염을 이제, 인제 그것을 퍼 와서 자염을 생겨, 생기는 걸 보고서 아, 이것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 갖다라는 것을 어른들이 해야, 해야 했거든요. 어른들이 해서, 그 어른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 흠을 파서 그 흠을 말려서 다시 넣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 거기가 더 짠물이 들어가 모이거든요. 모이면 그 놈을 갖다 구워서 이게 소금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우리나라 전역에다 다 나왔죠. 제주도까정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적지를 보러다니느라고 전국을 다 대녔어요. 왜 다 대녔느냐면 방파제를 잔뜩 싸고서, 싹으니까 아, 이 빨을 말릴 장소가 없어요. 전국을 다 대녀서 그걸 보다가 여기 근흥면 냉금이라는 마금리 냉금을 택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분들 보고 물어봤어요. 어, 여기서 옛날에 소금을 구웠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방을 싸서 좀 물러났는데, 저 우에, 저기서 소금을 구웠다고 그래요. 그 우에 있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거를, 거기다 장소를 택하고, 흠을 파고 소루 말렸죠. 말려서 하니까 과연 소금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태안군수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소금이 무슨 소금이 나오냐고. 그래 이제 소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접때 불을 때고 물을 갖다 넣고 해서 소금이 나왔는데도 안 나온다고 하니 이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주 저, 온 태안군민을 전부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어, 그 소금은 치우고 다시 물, 거기가 고인 물 또 다시 갖다가 불을 때서 소금을 구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 이게 소금이구나 이려고서 군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이 그 후로 이제 그냥 계속해서 소금을 구웠지요.

@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정낙추 어른만 지금 소금하시는 거예요?

#1 그게 문화원에서 관리하지요. 문화원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원에서 좀 개장시켰어요. 어떻게 개장시켰느냐면은 빨을 온 바닷물 안 들어올 때까지 다 가둬요. 지금은 저 뭐야, 경운기로 로타리치니까 금방 갈아지지요. 예, 그렇게 해서 큰 우물부터 왜냐면 이제 그 한 쪽으로 이렇게 한 쪽이 높고 양쪽이 높게 만들고서, 양쪽을 높게 만들고서, 가운데를 깊게 만들고서 골을 지게 만들고, 짠물이 써왔다가 똑 여기가 저기서 저리로 쭉 가게 내임 만들어놨어요. 흠을 세워가 흠을 세우면, 그 물을 지금은 펌프로 뽑아다 하죠. 특히 옛날에는 전부 저다 왔죠. 저다가 했는데 쪽 올라가면은 가마로 올라가면 불 때면 소금이 나와요.

@ 그러면 이제 그 자염이나 화염이라는 용어를 주로 썼는데, 자염이 더 오래된 말인가요?

#2 그렇죠, 네, 오래 됐죠

@ 그 다음에 그 자염을 만들자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해 좀 말씀해주세요.

#1 사람요? 어, 옛날에는 우리 태안군에서는 농사보다도 소금 굽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리 충청남도에서 굽는 소금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경상남북도 다 내려갔지, 제주도 내려갔지, 강원도 내려갔지. 다 갔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먹게 마련, 마련했는데 팔러 가는데, 저 뭐야, 이 논산 강경까정 팔러 전부 다녀서 갔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장 인원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우리가 저, 자염 다시 저거 할 때는 사람이 7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네, 7명.

@ 그러니까 그 7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역할이.

#1 그러니까 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1 그 사람? 염부

@ 예. 그 다음에 염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염부가 3명이요.

@ 그럼 염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1 소하고 같이 흙을 뒤집고 말리고 그 하는 거예요.

@ 그것만 하는 거예요?

#1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또 물을, 옛날에는 물을 자염할 때 우리가 물을 저어갔어요. 펌프로 안 주고 저갔는데 그건 간장이라고 하죠.

@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1 그 흙에서 물을 가마를 가져가 저가는 거요.

@ 저가서 이제

#1 가마에다 붓고 불을 때면 이제 소금이 나오죠.

@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간을 보는 사람이 간장인가요?

#1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물이 월만큼 짜냐. 월만큼 싱거우냐 할 적에 그 재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요즘은, 요즘은 참 염전에서 기계를 전부 9도 이상 해서 재는데 옛날에는 송진을 따서 송진, 송진을 따서 왜 송진 속에다가 콩알만한 돌을 넣어서 송진을 땡그랴게 뭉쳐요. 뭉쳐서 거기다 노끈을 딱, 딱 다해놓고 쪽 하고서 다른 막대기에 다 쪽 이렇게 해서 막대기에 달고서 거기다 그 흙 물이나 넣어요. 넣으면 이놈이 뜰 때까지 우에 있는 물을 퍼내 버리는 거요. 그 물을, 그놈 뜬 물을 갖다가 가마에다 붓고서 불을 때야 소금이 정상 나와요.

@ 고런 그 도구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고 염도 재는 도구.

#1 대름, 대름이라 하죠.

@ 그러니까 그거는 도수가 적히지 않고, 그냥 눈으로 대증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송진을 따다 녹여서 납작하게 맨들고서 거기다 콩알만한 돌을 넣고서 그 송진을 땡그랴게 뭉쳐요. 뭉칠 적에 노끈을 하나 넣어서 단아, 같이 뭉치거든요. 그러면 얼르면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놈을 노끈을 이제 저 우에 나무에 달아매 갖고 재죠. 넣으면.

@ 그렇게 재면 그게 떠오르나요?

#1 떠오르죠.

@ 그러니까 떠오르면 이제.

#1 아니, 어느 정도 짠 데까지 그 놈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우에 습습한 놈은 다 떠내고, 떠내서 버리고 .

@ 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위에 끈 떠내고.

#1 우에끈 떠내고 그놈이 떠오르는 데까지 물이, 정상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갖다가 불을 때면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염부, 간장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 화부, 불 때는 사람.

@ 예, 이 분은 한 분인가요?

#1 예.

@ 간장도 한 분?

#1 예, 간장은 두 분 할 때 있슈.

@ 염한이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1 염한?

@ 염한이도?

#1 염한이 염부가 다 염한이요.

@ 그 다음에 이제 움막같은 거 이제.

#1 벃터.

@ 아, 벃터?

#1 벃터는.

@ 어떤 곳에다 벃터를 설정해요?

#1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이 안 올라오는데 벃터를 장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벃터에 들어가는 나무가, 서까래가 180개가 돼야 해.

@ 아, 꼭 180개요?

#1 180개를 뺑 둘러 세워는건데요, 뺑 둘러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동아줄을 틀어서 둘둘 감어 놓고서 벃짚으로 나래를 엮죠? 나래를 둘러다 놓고서 이게 불땔 적에 바람 막이 겹 비와도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불, 비올 때두 때서 소금을 굽게끔 만드는 뜸이 있어요. 뜸. 이 솔우에다 또 이렇게 걸치는 비가 못 들어가게 뜸.

@ 그러면 이제 원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1 예, 나무를 뺨돌 세우고 했으니까 구멍이 뚫렸죠. 그런데 비가 오면 구멍이 소금 굽는데 물이 들어온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나무를 쪽 감아서 우에다 쪽 걸치고서 틈을 양쪽에다 이렇게.

@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

#1 예.

@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거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벚주라고, 그러면 벚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1 감독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 그러면 어르신 뭐 벚임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벚주라고 하는 말을.

#1 벚주가 원은 옳지요.

@ 그러면 이제 벚주가 있고, 벚터에 벚을 세우는 것을 벚이라고 하는거예요?

#1 예.

@ 그러면은 벚주 하나, 벚주 하나, 염부 셋, 간장 한 명 화부 한 명 이렇게만 필요한 거예요?

#1 예. 그렇게만 필요하죠.

@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간 보는 사람 아까 누구라고 하셨어요?

#1 그게 간장이가 하는 건데, 간장이가 하는 건데, 지금 다섯명이죠? 사람이?

@ 염부 셋, 간장 한 명, 화부 한 명 벚주하고 5명

#1 두 명이 더 있어야 해요.

@ 어떤 사람이요?

#1 이 사람들은 소금을 나오면 소금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요.

@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1 그, 다 똑같아요. 염부지요.

@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팀이면 옛날에는 그런 그 벤틀, 그거 벤틀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1 많죠. 우리 동네만 해도 15개 있어요. 벤틀. 딱 이 바닷가에 말이요. 15개가 있으면 동민이 거의가 거기가 있다시피 하는 게요.

@ 그러면은 이제 그 벤틀을 아까 만들 때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1 그 무슨 가마가, 소금 굽, 갖다 물 붓고 저 구울 가마가 4미터여, 4미터. 그게 커요.

@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야, 철공이 없고 대장간, 대장간들이 막 와서 철판을 갖다가 구녕 뚫고 끈을 만들고 연결을, 철판을 연결을 허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걸 철판 연결허는데, 무엇을 사용했느냐면 그걸 황토흙을 사용했어요. 황토, 황토.

@ 틈이 생기니까?

#1 아뇨. 불 때도 안 녹어요. 황토하고 철하고 같이 저 구워서 주욱 때우면, 철판 사이를 때워놓으면 벌어지지 않을래.

@ 황토가요?

#1 네. 황토하고 철하고 같이 섞어 하면은.

@ 그러면 그거 소금 구우면 막 황토가 섞이고.

#1 아니야, 아니야. 황토가, 황토는 이미 디 녹아서 철하고 녹아서 그냥 혼합돼서 혼합돼 저거 해서 철로 다 변해 빠리요. 그래서 그 철이 저, 철판이 벌어지지 않을래요.

@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궁이도 만들어야겠네요?

#1 아, 아궁이 있죠.

@ 그러면 이제 벗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마하고 아궁이 만들고 그것 밖에 없어요?

#1 그것 밖에 없죠. 아, 이거 간송, 그러니까 그 짚물이 들어온, 가져올 때 솔에다만 붓는 게 아니여. 그, 그, 저 뭐야 벗 안에는 물을 갖다 그 짚물 갖다 붓는 흠이 여러 개가 있어요.

@ 그 흠 이름은 뭐예요?

#1 그 흠은 옛날에는 간장주라구도 하고, 요새는 뭐 그냥 짚물구대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간장이가 두 분이니까 여전 가져와야 해요. 노다지.

@ 그것은 굉장히 깊게 파겠네?

#1 아유, 짱어요. 그 한 구덩이가 그 물이, 한 가마가 돼요. 그렇게 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 놈을 한 구대기 잘 퍼서 가마에다 넣으면 또 불때면 적당해요.

@ 그것은 그거 바로 옆에다가?

#1 아니요.

@ 안에?

#1 그 안에가 있어요. 간물을 저을 때는 바깥에서 붓고, 벗, 벗 뽕뽕 새는 바깥에서 붓고. 그 놈을 떠서 솔에다가 넣을 때는 안에서 뜨거든요. 그니까 아주 구조가 돼있어요 맨들렸어요.

@ 그 구덩이를 간장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도 가면 있나요? 그때 만들었던

#1 있지요. 있을 거요. 아직 없애지는 않았을 거요.

@ 근데 그 통자락은 뭐예요?

#1 통자락? 그 통자락이라는 게 뭐냐면 흠을 파서 말리던 그 티를 보고서 통자락이고 그래요. 그 통자락을 파서 말릴 적에 거기다 이제 뱅글 나무를 세우고 아니다. 네모지게 각을 만들어서 뱅글 세우죠. 그러고서 모기장이나 뭐 이렇게 흠이 못 지나가게끔 막아놓고서 짚물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통자락이여.

@ 통자락하고 벗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1 아, 이걸 멀고 가까운 것은 옛날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가까운데 얼른 차지하고, 게으르고 좀 느린 사람들은 멀찌감치 남들이 안 왔을 것이다 하다가 남들 다 와서 했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먼데서 하는 거요.

@ 근데 이제 통자락은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고 벗터는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통자락 만드는 거 좀 설명해주세요. 통자락은 일단 바닷물이 물때가 맞아야 하잖아요. 물 때하고 맞는.

#1 아니,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뭐냐면 갯벌을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판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떻게 만들어졌느냐면은 어색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여 한 짝은 깊고, 양쪽이 어식하게. 이렇게 해서 다 경운기를 갈아요. 양쪽을. 그렇게 해서 쉽게 이 야기해서 이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거기가 마른 흙이 이제 자꾸 가라앉으면서 찼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서 큰 통에 들어가요. 거기가 거기가 한 50쯤 들어가. 짐으로. 말하자면, 깡통으로 허면은 한 100개.

@ 근데 이제 통자락도 뭐 만드는 게 뭐 안에 어떻게?

#1 아니 우리가 직접 옛날 통자락은 뽕 돌리, 뽕 돌려 파고서 그 흙을 다 꺼내고, 꺼내고서 거기는 나무를 세워. 뽕글 독에다가 뽕글 세워서 맨 우에는 네모지게 해서 오므러들지 않게끔 못박아 만들고 그래서 그 막대기 세운 바깥으로는 가마나 마대나 또 모기장이나 이렇게 둘러서 뽕이, 흙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그 거는 순전히 물만 들어가겠죠? 물만 들어가는 물을 아까 대름으로 재서 예, 고이 승거운 놈은 버리고 찼놈만 갖다가 가마에다 붓고 불을 때는거죠.

@ 바닷물이 어느 정도 며칠 왔다갔다 하면 그 통자락 안에?

#1 그것은 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고 해가지고서 열 두메날부터 그 바닥을, 통자락을 파요. 열 두메날부터 파서 그러이게네 일곱메 날까정 작업을 다 끝내야 해요. 이게 다섯메날까정 흙을 다 말려서 말려봤다가 돌을 모으고 넣거든요. 다섯메날까정 그래서 그 물이 되는 거예요. 찼물이 되는 거여.

@ 그러면 이제 그 통자락을 하고는 그 주변, 통자락 주변에다가 소로 받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갯벌을 갈 때 뭐가 뭐로 갈았어요?

#1 소로 갈았죠. (소하고) 아님 그 파낸 흙을 부시러가지고 늘어놓고 가니까

@ 이제 소가, 소에, 소한테 갈 때 도구같은 게 있잖아요. 뭘로 갈아요?

#1 씨레가 있죠. 소가, 소에다 매갓고 끌고 가는 씨레가 있는데. 씨레가 이렇게 흙을 갈 거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또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서 또 덩어리가 큰 놈이 있으면 깨뜨리게 되게 댕이 깨뜨, 댕이판이라고. 널 두꺼이,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나무판을 소에다 매달고 또 돌아댕이요. 그렇하면 댕이가 다 깨지죠. 또 자꾸 저저 가면 또 나래로 뺨들게 하고 또 댕이 파는 거 돌리고, 그러고서

@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 약 일주일.

@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또 말리고 또 하고

#1 날마다 그놈만 말리는 거여.

@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부터 그 일곱메까지는 물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뒤집으면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언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일곱메까지.

#1 여덟메부터는 거기가 완전히 통자락이 저거가 돼요. 물이 다 썩요.

@ 들어와요? 이제 여덟메날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물이 들어오는 걸 물이 찼다고 그래요?

#1 물이 맥히지요.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여덟매 아홉매 열매 열한매까정 나흘 간을 말린 흙을, 말린 흙에서 내려가는 잔물을 그때 가져가는거여.

@ 다 차면은 그걸 옮기는 건 뭘로 옮기셨어요? 뭐에 담아서?

#1 통이 있어요.

@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통을?

#1 지는 거것은 무지개고 그 통는 그냥 통이여.

@ 그게 뭘로 만들었어요?

#1 나무로 만들었죠.

@ 나무물통이네요?

#1 그러니까 물통을 두 개 만들어서 지게가 있는 데 그 양 쪽에다가 달아매갖고 다니는 무지개, 그것으로 져어올리지요.

@ 그러면 그거는 한 분이 하나요?

#1 아까 간장이 둘이라고 그랬잖여. 간장 둘이가 하는거여.

@ 그럼 뭐 몇 번 며칠 해야겠네요.

#1 그 한 달에 두 번 밖에 못해요.

@ 아, 한 달에 두 번 밖에 못하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아까 이제 그 염벙에 그 전체를 아까 바닥 갈아서 해놓은 거는 어르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랬죠? 갯벌 위에 만드는 거?

#1 갈자락을 얘기하는 거여?

@ 갈자락? 통자락은 뭐고, 갈자락은 뭐예요?

#1 통자락은 그 통이 있는 걸 보고 통자락이라 그러고, 갈자락은 갈아놓은 걸 보고 갈자락이 그래.

@ 그거 제가 처음 들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어르신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통자락, 갈자락.

#1 그게 그 저들이 생각하는 자락이란 건 내앞가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 그러니까 그 근방 통이 있는 근처를 통자락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놓은 주변을 갈자락이라고 그러면 그 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벼이라고 했어요?

#1 예, 벼예요. 옛날부터 벼.

@ 그거는 벼, 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육지에 살다보니까 벼이 뭐 어디에서 왔을까? 벼이름이. 잘 추정이 안 되가지고.

#1 글썄요. 워디서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르나 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는 그 여기서 지금 조사하고, 우리가 가서 하던 것은 몇 개만 가지고 만들어 했지만은 이런 우리 동네같은 이런 데는 수십 사람이 와서 해서 날마다 두 가마씩 해야 되고 하루에 아침부터 여덟시부터 불을 때면은 열두시 넘으머은 소금이 다 나와요.

@ 낮 열두시요?

#1 예

@ 그럼 몇 시간?

#1 네 시간정도

@ 네 시간 정도요? 빨리 되네요.

#1 그 이게 계속해서 오늘은 이 집 꾸고, 내일은 저 집 꾸고, 모레는 저 집 꾸고.

@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씩 얼마큼의 소금으로 받았어요? 돈은?

#1 아니, 소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소금을 내야지. 소금을 내야하니까 내가 이제 그 벅세를 주는 거요. 벅세. 내가 가서 일을 해서.

@ 어른이 벅주가 된다는 거예요?

#1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소금을 구워보니까 열가마다. 열가마면 벅주가 벅주에다 세 가마를 쥐야해.

@ 그러면은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냥 주인이에요?

#1 네. 벅주.

@ 벅주? 벅임자.

#1 예. 벅임자.

@ 그러면 그 벅임자가 누구한테 세를?

#1 우리한테 받죠.

@ 벗임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1 가만히 있고.

@ 이제 그 간장이 하고 염부가 했던 소금을 벗주가 세 가마를 받는다는 거죠. 세가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몇 가마 가져가고?

#1 나머지는 이제 소금 만드는 사람이 가져가죠. 갖고선 이제 팔러 가죠.

@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염부, 간장이, 화부 중에서.

#1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벗주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간장이가 한 가마 가져가.

@ 염부들은?

#1 염부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거지요.

@ 아, 그럼 그걸로 또 붓고. 근데 그 가마에 얼마큼 그 그걸 아까 통자락에 싸여있는 물을 뭐라고 해요? 간수? 그걸 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간수 말고?

#1 간수 빼고 다른 말 없죠.

@ 뭐 염분이라고도 하나요? 간수?

#1 염분은 바닷물이 다 염분이죠.

@ 아, 그냥 바닷물을 염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그 간수를 이제 가마에 다가 할 때, 가마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한 얼마정도 용량을 넣어요?

#1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그 벗 안에가 벗 안에다가 통이, 큰 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통을 다 가마에다 다 부서면 한 가마가 딱 맞아. 예, 그 털로 떠서 붓는 거예요.

@ 고무래는 뭐할 때 쓰는 거예요?

#1 아, 고무래요. 고무래는 예, 불 때서 그 가마에서 김나기 시작하면은 소금이 그 때 부텨 생기거든요. 조금씩 생기면은 어 바닥을 자꾸 긁어야 돼 고무래로 긁어야 아 이

소금이 술에 가 덜 늘어요.

@ 늘기도 하나요?

#1 아 늘죠.

@ 그럼 망치는거네요?

#1 아이 그 인저 그놈을 다시 물을 잔뜩 갖다 넣어요. 그 통에다가 벗 안의 통에다가 잔뜩갖다 붓고 그 늘은 소금을 거기다 놓으. 그 물에다 그러면 그놈이 거기에 녹어 녹 으면은 그놈이 또 그놈 떠서 하면 또 구워져.

@ 늘어도 못쓰는건 아니네요.

#1 아 못쓰는 건 아니죠.

@ 늘은 소금은 뭐라고 불러요?

#1 아이 따로 부르지 않고 뭐 이런데서 밥혀는 누룽지랑 똑같죠.

@ 엽판은 뭐예요?

#1 아니 그것이 저저 소 같은 디가 엽판.

@ 그걸 갈자락을 엽판이라 해요?

#1 갈자락이라도 허고 엽판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거기서 사용 하는거여.

@ 종류면 좀 다른 가요?

#1 아니요 만들어지긴 다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다 똑같어요. 말만 조금씩 틀려.

@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그것도 짚을 뒹나요?

#1 아니요. 뜸이라고 해갖고 거 옛날에 거저 뭐야 저 띠기 왁새 그걸 뺨이 뺨아 먹는 띠 띠 띠를 엮어서 만들은 것이 거 뜸이요.

@ 뺨비가 뭐예요?

#1 삐비? 삐비가 뭐야. 이 저.

@ 어디서 자라는거예요?

#1 저런 독에서 자라요. 독에서 자라는데 이게 뜬 치는데에 필요한.

@ 갈대같은?

#1 아니요. 그런 것 허고는 아주 달바요.

@ 음 다르고.

#1 옛날에는 그 뜬 그제 속에서 그 삐비라고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뭐야. 예, 종자나온다고 봐야지. 그 풀이서 종자 나온다고 봐야 돼.

@ 풀같은 종류예요?

#1 예, 풀이유.

@ 약새 말씀하셔서

#1 약새는 그,

@ 약새 말하시는 거예요?

#1 약새 건, 저 뭐야, 딱딱해서 못써요.

@ 삐비가 더 부드러운가봐요?

#1 예 옛날에는 그 놈을 비어다가 도량이 쳐서 쓰고서 사람이 대녔죠.

@ 어떤 거 약새로?

#1 아니요.

@ 삐비로?

#1 예.

@ 왁새는 뭐할 때 사용해요?

#1 왁새는 아무데도 필요없어요. 울타리하는데 접어서 울타리했죠.

@ 되주걱은 언제?

#1 되주걱? 되주걱은 나무를 이렇게 옴파지게 이렇게 세모지게 파서 이렇게 뜯제 인제 소금이 소금이 저 발이 좋은가 소금이 좀 크고 작은 것을 보느라고 되주걱을.

@ 아 그걸 소금밭이라고 해요?

#1 예.

@ 어떤 게 좋고 나쁜 거예요?

#1 이게 발이 가는 놈이 좋죠.

@ 굽기가. 그걸 발이 가늘다고 그래요?

#1 예.

@ 근데 왜 여기에도 소금이 될 때 보글보글 끓을 때 표현하는 말이 있던데요 소금 꽃이라는 말도 쓰시나요?

#1 예 소금꽃이죠.

@ 소금꽃이 핀다 이런 말 쓰시는 거예요?

#1 예예.

@ 직접 말씀해주세요.

#1 불을 때다가 보면은 소금물 월마나 나올라나 불 때에 소금빛이 소금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지.

@ 빛이 나오는 그거를 소금꽃이 핀다고?

#1 예. 이렇게 달버지죠. 이제 어느정도 때면은 이제 물이 달바져요. 소금나올 때.

@ 달바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 아이 보통 물하고 먼저 갖다 부셨던 물허고 끓었던 이눔이 자꾸 끓으니께 이게 자꾸 달버지죠. 판물로 자꾸 바뀌지니까 소금될라고 바뀌지니까 그게 소금꽃핀다는 거예요.

@ 달바진다는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1 예. 달라.

@ 소금 가마솥을 흙으로도 만들기도 했나요?

#1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구니를 남겨 놓고 뽕글리 가일 솥을 올려놓을라고 쌓아 싸죠. 독을 뽕글리.

@ 그거는 진흙으로 하는 거예요?

#1 예. 돌하고 진흙허고 해서 쌓는 거예요.

@ 간수하고 함수하고 어떤 말을 더 많이 쓰세요?

#1 옛날에는 간수를 많이 쓰구요. 지금은 함수를 많이 쓰지요.

@ 그럼 가마에 물을 넣고 끓이는 건 몇 시간 걸리죠?

#1 네. 시간.

@ 뭐 어떤 나무로 때나요?

#1 화목을 때죠. 저 요즘은 화목 많아요. 이 저 산에 가면 간송에서 버린 나무가 무척 많아요. 그놈을 다 갖다 때는 거죠.

@ 특별하게 소나무 같은 걸로 때기도 했나요?

#1 소나무도 때죠. 소나무도 간송하니까 쉼어 쉼어서 버리니까.

@ 그럼 불도 조절하시고 하잖아요?

#1 조절허죠. 소금꽃이 필 때 아까 말씀헌 소금꽃이 필 때는 불을 약하게 때야돼. 먼

저는 불을 많이 올라오게끔 해야되고 소금꽂이 필 때부터는 불을 약하게 해야 소금이 더 나와.

@ 그 다음에 가마에 있는 소금을 어디다가 담아서 저장해요?

#1 아니. 거 거, 가마니다 먼저 놓는게 아니고 벗 안에다 그냥 걸 뽕 뽕 이렇게 뱅 판 판히 만들어진 데다 가마니를 한장씩 깔아요. 가마니 비니루 깔면 안 되요. 비니루 깔면 물이 더 고여요. 자꾸 거기거 가마니는 거 뭐야. 물이 세서 들어 가면 흙으로 들어가죠. 비니루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니루는 필요없구 가마니를 깔고 소금 소금을 가마에서 꺼내서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 거기에도 며칠 놔두나요?

#1 그렇죠. 왜 며칠 놔두냐면 에 상인이 없으면은 상인이 없으면은 열흘도 놔두고 스 무날도 놔두는 거여.

@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비닐 안깔고 소금물 빠지게 그거로 그거도 밑에 받아서 간수로 만들면 안 되나요?

#1 그게 다 들어요. 또 함통으로 들어가요.

@ 함 위에다가.

#1 소금을 건져 놓으니까 그 가마에 깔고 흙으로 덮고 다 했어도 그늬이 흘러서 자꾸 들어간다고.

@ 그림 어르신 잘 안보이죠. 통자락 만든 아까 그 나무.

#1 예. 그 그거 벗이죠. 벗자락.

@ 아, 이거는 이제 벗자락, 이 밑에 박는 거를 뭐라 해요? 이거 지금 세우는 거 뭘 박는다?

#1 벗말.

@ 벗말을 뭐 어떻게 한다?

#1 박죠.

@ 벗말을 박는다. 벗말을 박은 뒤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1 이게 저 금 나래로 해이죠.

@ 나래로 뭘한다고요?

#1 이 해인다고.

@ 해인다고?

#1 예.

@ 그 말은 옆에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1 예예. 이것도 이것도 돌르는 거요.

@ 다 된 거예요?

#1 아, 이것이 이것은 저거요. 뜸 뜸 덮었다 열은 거여. 이게 이 짝은 들 열고 이 짝은 다 열은 거여.

@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아까 통자락 만든게.

#1 이게 아주 여기 네모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여기에 흙갓다 모으고 여기에는 우에는 가마니에다 흙을 담아서 딱 우는 흙을 못 들어가게 딱 덮고 땡 땡글리 흙을 말린놈을 다 여기다 글저 놓으면은 여기가 판판해지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이놈은 나중에 열고서 대림으로 대림으로 저거 보고서 우이 승근 높은 건져내고 짚놈만 가져가는 거고.

@ 통조금하고 갈개조금은 무슨 말이에요?

#1 아 통조금은 이것보고 통조금이라고 하고 갈개조금이라는 것은 무엇보고 갈개조금이라든 갈개조금은 참, 어, 설명하기가 골치 아픈디. 나무를 비어다가 흙을 깊이 파고서 나물 버다 책책 깔어요. 거, 어떻게 까느냐면 쉬웁게 얘기해서 이렇게 깔은 이렇게 책책 깔을 테면은 밑이다 이렇게 또 턱이 있어야 돼. 밑이 걸칠 턱이 그래서 이놈이 여기다 어식하기 해갖고 이 물이 우이서 물을 부으면 이놈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저기 흙으로 들어가게 맨들어졌어. 이 흙은 워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갈개조금이라 그 래갖고서 인력으로 갈아서 말리는 거여. 그래서 그 흙을 전부 저다 이 위로 붓는 거여.

이게 보통 힘들은 게 아니여 이걸 근데 이것은 소금이 더 나와요.

@ 그래요?

#1 예.

@ 왜그렇죠?

#1 이 일본같은 경우도 이게 갈자락 갈개조금을 하거든 일본도.

@ 아 일본도요.

#1 예, 그 바다흙을 갈아서 말려서 덩프차로 옮겨 운반해다가 여기다가 붓고 바닷물을 갖다 부으면.

@ 바닷물을 따로 붓는 거예요?

#1 예.

@ 거기에는 물이 밀려오는 곳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1 그렇죠.

@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더 많이 나죠?

#1 그 인력으로 현 같은 흙이 짙이 안 갈고 얇 얇게 갈으니까 땅을 얇게 갈잖여. 인력으로 갈으니까 얇게 가는 대신 범위가 넓지. 범위가 넓으니까 얇게 갈은 놈이 범위가 넓으니까 밑에서 간이 자꾸 올라와서 거기가 더 자꾸 더 먹는단 말이여. 말른 흙으루 그러면 그 놈이 갖다 놓으면 소금이 더 나와요.

@ 여기서도 갈개조금도 하셨나요?

#1 했죠.

@ 갈개 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왜 통조금을 더 많이 해요?

#1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얘기 했잖여. 우리동네는 농사짓는 거 신경 안 쓰고 전부 그것덜 전부 갈개조금한 사람 통자락 한 사람 이 소가 없으면 뭐 몇십리가서 소를

한 달에 얼마 주겠다고 하고서 빌려다 서로 허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저 뭐여 저뭐이, 한 달하면은 무지헌 배로 소금이 한 배여 우리나라서는.

@ 어른은 주로 통조금하셨어요 갈개조금하셨어요?

#1 나는 나도 처음엔 갈개조금했어요.

@ 근데 왜 통조금으로?

#1 아니 인제 나이 먹고 허니까 근력없으니까 통조금 서로 헐라고.

@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1 지금 나이 여든살이죠.

@ 그럼 그때 칠십 십년 전이니까 몇 살 쯤에 그렇게.

#1 내가 스물한살부터 했어요.

@ 언제까지 하셨어요?

#1 얼마까정 했는지 저 기억이 잘 안나네.

@ 통자락 만드는 것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뭐하기 뭐등등 흠파기 그 다음에 뭐 박기 이런 순서대로.

#1 통자락을 할라면은 흠을 먼저 파내지요.

@ 뭘로 파내셨어요?

#1 사람으로 팠죠.

@ 도구가?

#1 가래. 가래.

@ 파내고 그 다음에.

#1 거렇게 하고선 인제 통자락을 뺑돌리를 먼디가서 아주 짙은 진 아주 뺨을 아주 끈

적근적한 뽕을 꺾을 갖다가 뱅글 다 발라요. 예, 발르야 그 물이 땅 땅속으로 안들어가지. 그래서 그 그냥 발르디를 이렇게 내려가게끔 맨들어졌어요. 통자락으로 내려가게 맨들어졌는디. 왜냐면 그 꺾을 다 발르야 돼 뱅글리.

@ 그러니까 나무를 세운뒤에.

#1 나무를 세우고서 뽕돌리를 다 그 먼디 가서 좋은 아주 더 탄탄한.

@ 거기에는 짚 같은 거 안하고 그냥?

#1 아니요 안 해요. 아이 빨로 빨로 발르는 거예요 빨로 발르야 그 짚물이 탄 데로 세 나가지를 앓아요.

@ 갯뽕을 하고.

#1 그렇게 발르 그 뽕을 발르고 모래를 또 뱅글 피워요.

@ 또 발라요?

#1 아니, 그 발르 위에다 모래를 피요. 모래를 피면은 모래를 따라서 물이 자꾸 깊은 데로 내려가니께 탄 데로 셀새가 없지. 그렇게 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자락을 세우고서 거기다 가마나 마대나 이런 걸로 감어야 흙이 안 들어가게끔 허고서 물 고이면 허는 거야. 딱 솟에다 갖다 부으면.

@ 아니, 아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대를 놓고 뽕을 붙이는 거예요? 마대 안. 아니 거기는 거기는 저 뭐여, 마 짚이나 가마나 마대를 뽕글리하고.

@ 통자락 만들 때 처럼요?

#1 예예. 그렇게 하고 그 흙을 인제 말린 흙을 그 판디로 다 모아 넣는거요.

@ 구덩이에다가요?

#1 예. 그렇거면 통자락 고것만 거기에만 흙이 안 들어가지 다 흙이 들어가잖여.

#1 그러니까 그님이 그님이 인제 바닷물이 들왔다 나가면은 자꾸 가라앉으면서 그 짚물이 통자락 안으로 들어오지.

@ 며칠 동안 물이 왔다갔다 해요?

#1 사일 간.

@ 아, 사일 간. 근데 그런 장소가 많을텐데 왜?

#1 없어요, 없어요.

@ 왜요?

#1 아이 제방을 얼마나 많이 쌓어요. 제방 싸서 없어요.

@ 아 제방을 쌓아가지고.

#1 제방 쌓아가지고 지금 배가 한질씩 뒀는데요.

@ 조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물이 다 찰 때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1 오일, 오일 내지 육일 걸리죠.

@ 그렇게 동안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데가 장소가 많지 않다구요?

#1 옳어요. 이게 저, 이그 지금 우리가 가서 저 제림현디가 저게 제일 높은 디여, 우리지 우리 전국 다 잡아댕기는데 시간 잡아가며 물 함수되나 합류되나 간조대나 그걸 다 조사해봤는데 옳어요. 거기가 제일 높아요.

@ 그 다음에는 그 이 아까 갯펄 말리는 그 작업을 뭐라고 하셨어요? 함토작업? 실제로 그 때 하실 때 흙으로 소에다 갈아서 하는 거를 뭐한다?

#1 갈자락 갈으니께 갈자락.

@ 갈자락한다 이러시는거예요?

#1 예예예.

@ 그럼 이제 갈자락 하는 거를 순서를 말해주세요.

#1 흙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라면 쓰레로 이제 갈고 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 대니죠. 서로 갈고 대닌다 그래서 갈자락

이유, 그계.

@ 아, 같고다닌다.

#1 예예. 그래서 인제 땡이판이라고해서 두터운 이다판을 달아서 또 이다판을 달고다녀서 서는 거.

@ 이다판이 뭐예요?

#1 두꺼운 나무.

@ 판을 이다판이라고 하는거예요?

#1 예예. 그놈을 달고서 거기다 사람이 둘씩 셋씩 올라타요. 그 흙덩이가 다 깨지라고.

@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또 아까.

#1 그러고서 다 말랐으면 인제 그 흙이 에 바닷물이 올라오기 전에 그 통에다 다 뱅글이 거다 몰아 넣는 거여.

@ 그렇게 해가지고 갯벌을 말리는 건 며칠 간 해요?

#1 오일.

@ 그렇게 차면 간수는 며칠만에 다 옮겨야 해요? 간수 물 찬 거는. 그래도 시간이 있을꺼아니예요.

#1 아이 그 물 들어온 날부터 사일 간은 나뉘야 혀. 그러기 여덟엿날부터 열두엿날까정은 그냥 놔뉘야해. 그리고 조금 되면 인제 저 저거 해야 혀.

@ 열사흘메가 조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두메.

#1 열두메 열두메하고 아침조금 한조금 무시 한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물때 말이 어르신이 다르더라구요.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언제가 조금인 거예요?

#1 이게 이거 아홉물 열물 열한물 이렇게 돼있는데 한객기가 열두메여 이게 대객기는

아침조금.

@ 아침조금은 무슨 뜻이에요?

#1 아침조금이란 것은 조금이 짧다 소리지. 이걸 한조금 아주 질다 해서 한조금.

@ 아 한조금이 인제 길다는 뜻이구나. 얼마나 길어요? 아침조금이 짧다면.

#1 아침조금은 아침조금보다 약 네 시간정도 길어요.

@ 짧다는 건 몇 시간 정도예요?

#1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 이거는 한 네 시간?

#1 예 네 시간 반 네 시간.

#1 이걸 무시요.

@ 무시는 또 뭐예요?

#1 무시라고 인제 예 이게 저 뭐여 물이 다히게 들오기 시작할 땐 이제 많이 들어오
갔다 해 시작하려는 날을 이제 무시라 그러는 거예요.

@ 음 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

#1 시작하는 날이 무시 그러고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메니까 한메니까 한메 두메 이
렇게 쪽 나가니까.

@ 한매가 한물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메.

#1 예예.

@ 아까 통자락 만드는 시간은 언제부터인지 설명해주세요.

#1 이날부터지요, 한객기.

@ 여기서도 맹 한객기는 한객기 대객기는 이런 말 쓰신 거예요?

#1 옛날엔 읊었시유. 옛날엔 읊고 옛날엔 열두메 이진 이진 아침조곰 아침조곰 저 뭐야 아침조곰.

@ 그럼 이제 통자락 만들기 시작을 통자락부터 만들어요? 벗자락부터 만들어요?

#1 아이 벗터는 이미 만들어진 만들어 몇 년.

@ 이미 만들어 놔던거고 통자락은 언제부터 만들어요?

#1 통자락 여기 이이.

@ 여기 열두메부터 죽 설명해주세요 열두메에서 며칠까지.

#1 여기까지.

@ 열두메에서 말씀해주세요.

#1 서물까지 이 이게 세메쥬, 세메.

@ 이때까지 통자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뭐하세요?

#1 이진 물이 인제 통자락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간이쥬.

@ 이거는 오메부터 사리는 뭐예요?

#1 사리는 다섯물부터 사리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일곱까정.

@ 다섯물에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사리 이때가 물이 가장 많이 물어오나요?

#1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날 지나가야 그 간수를 저오기 시작하쥬.

@ 이 때가 지나가야 물이 빠지니까 그럼 이때 한객기 때?

#1 예, 그때 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 달력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럼 벗터에서 주로 가마 떨 때 그 나무같은 건 누가 구해오나요?

#1 나무 같은 건 자작 다 가져와야죠.

@ 아 자기 개인이?

#1 예. 내가 조금이서 내가 소금을 굽겼다 하는 양만큼 내가 가져와야 혀. 우리가 저기가 하던 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줘서 차로 가져왔지만은 개인이 할 때는 개인별로 내가 소금을 몇 가마를 굽 저 불을 때야 겠다 헐 때에는 그마만큼 개인이 다 부담해야 돼.

@ 그럼 이거 할 때 비가오기도 할 수 있잖아요.

#1 비오면은 버리죠. 못 혀요. 비오면.

@ 비오면 다 망치는 거예요?

#1 그렇죠, 힘들죠.. 먼저 해놓는 갖다가 소금만 굽는 것 밖에 없어 필요 없어.

@ 근데 보통 자연 햇빛에 말리는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하세요? 오다 들오다보니 자염말고 다른걸 뭐라 그래요.

#1 외렴. 아이 저것이 저저저, 염전소금 말하는 거여?

@ 예.

#1 태양염이라고 해야죠. 그건 태양으로 되니까.

@ 천일염은?

#1 천일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염전 이름을 붙인 것이죠.

@ 아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온 소금은 이제.

#1 태양염.

@ 혹은 아까.

#1 외렴. 외렴이라 하는 왜 왜 외렴이라 혀면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생산 않고 외, 외제에서 가져온 수법이다 해서 거이 외렴이여. 외렴.

@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1 몰르지 워디서 왔는지. 이게 미국서 왔는지 소련서 왔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 일본은 이 저 태양염이 별로 없슈.

@ 없어요?

#1 예.

@ 근데 보니 천일염은 좀 큰데 이걸 자체가 아주 빵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 거죠. 이게.

#1 이거요? 빵우요 어떻게 빵우느냐. 거 빵우는 방식을 내가 일러.

@ 빵아요?

#1 빵워요. 빵워.

@ 원래 그런게 아니고?

#1 네.

@ 어떻게?

#1 소금을 다 구워서 구워졌으면은 꺼내서 어, 지금 저 여기 지금 냉금 얘기를 내가 허는거요. 어,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를 놔어요. 방을 두 개를, 그러니까 방 하나가 얼마나. 삼메터에 칠메타씩 방이 두개여 불때서 구운 소금을 보일러실에 갖다 넣어요. 넣어 얼마만큼 너느냐. 일주일 넣어. 그러면 밑에서 불때서 뜨겁지. 이게 그 간 간소금이 짠물이 아주 싹빠지고 그냥 원소금만 남것죠? 이치로 생각해도 그렇게 된 놈을 또 한 또 한 계단 더 가 이이 보일러실에서 저 짝 보일러실로 가. 거기서 또 일주일이여. 또 일주일 해서 그 놈을 가공허는 거여.

@ 또 가공을 한거라구요?

#1 예. 가공해요. 말을 때는 저렇게 잘지 않어요. 굵어요.

@ 아 원래 만들었을 때는.

#1 그래서 인제 태양염 태양염처럼 이렇게 굵닥굵닥 굵어요. 아이 그러니까 굵은 놈

으로 나와요. 예, 한 번 말리고 두 번 말리고 해서 가공하면 그게 가늘게 돼. 만드는데서.

@ 그럼 옛날에 팔 때는 굵은 채로 파신 거예요?

#1 그렇죠. 옛날엔 저렇게 태양염처럼 굵진 않았죠.

@ 아 저 정도는 아니고.

#1 예예. 저거의 육분의 일정도.

@ 색깔은 어땠어요?

#1 색깔은 더 하얗죠.

@ 보통천일염보다?

#1 예예.

@ 그래서 지금 빛깔은 비슷한 정도.

#1 예.

@ 하여튼 짠맛이 덜하더라고요.

#1 지가 지금 얘기하잖여. 보일라실에서 한번 굵고 또 한 번 굵고 구번 구우니께 짠 물이란 것이 짠 것이 아주 짝 다 없어지니까. 그놈을 갖다가 다시 가공해서 병에다 담고 봉지다 담고 저 수출하잖여.

@ 그래서 짠맛이 덜하구나.

#1 예예.

@ 근데 그전에 할 때 어르신들이 했을 때 가마에 그거는 짠나요?

#1 짬죠. 그것은 가마에다가 가마니에 담아서 한가마니에 오십키로씩 옛날에 오십키로씩이여. 지금이 삼십키로지 옛날에 오십키로씩 담아서 일년 내 놔둬도 일년 내 물이 쏠어져. 거기서 그러니 녹어서 그 소금이 녹어서 쏠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금 자체에

서 물이 생겨나와 뭐 달아보면 저울갸다 달아보면 하나도 줄어진 게 없어. 그래도 물이 자꾸 나와.

@ 저는 몰랐어요. 간장 매주 담을 때 간수를 빼야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야지.

#1 예예. 우리 저 먹는 배추김치 무김치도 삼 년 된 놈 소금을 갸다 담어야 짜지도 않고 맛도 좋구. 저 중국서 가져온 소금 땅에서 캐는 거 있죠. 이것은 녹지도 않고 그냥 돌팍처럼 그냥 있죠. 그게 짠 짠 돌팍이여. 말하자면 짠돌팍.

@ 이렇게 되는 걸 뭐라해요?

#1 소금꽃 앓아서 크는거 여. 소금꽃 앓은 놈이 자꾸 불때니께 자꾸 크는 거여. 자꾸 자꾸 크는 거여.

@ 소금꽃이 크다 그래요?

#1 예.

@ 그럼 소금꽃이 핀 다음에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1 인제 처음에 생길 때는 저렇게 크지 않고 이 가공을 하고 말처럼 자지잘게 이렇게 생기요.

@ 그럴 때는 소금꽃이 핀다는 거예요?

#1 그게 소금꽃이 피는 거여. 그러면 그놈이 둘 셋씩 합해지면서 자꾸 굵어져서 이렇게 크는 거여.

@ 예 그럼 이렇게 큰 거를 부르는 말이 있나요?

#1 부르는 말 없어요.

@ 그냥 소금꽃이 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예예.

@ 어르신 이때 소금 많이 하셔서 돈 많이 버셨겠네요?

#1 많이 벌어야 뭣해. 다 옛날에는 술반아먹고 저것이 저 뭐여, 화톳하러 대니고. 저 뭐여 여름내 가을내 돈 많이 벌으면 돈 읊어야지 돈이 또 생기니까 돈 읊어야지. 허허허.

@ 가마를 올려놓기 위해 쌓아 놓은 것을 뭐래 해요? 가마 쌓는 담을 뭐라 그래요?

#1 가맛, 가마돌.

@ 가마돌?

#1 예. 가마돌 올려놓기 위해 쌓으니께, 가마돌.

@ 아까 이게.

#1 물통 이건 무지게. 이건 쓰레. 이것은 소금섬.

@ 담는 거?

#1 예. 이거 이거 이거 가마일러 솔렀구만 이거.

@ 이게 이제 통자락 만드는 거예요?

#1 예예.

@ 통조금이라고도 하신거예요?

#1 예. 통조금이라 해요.

@ 통자락하고 통조금이 같은 거예요?

#1 예예.

@ 그럼 조금때 만든다 해서 이게.

#1 예.

@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벃터 가면 볼 수 있어요?

#1 냉금 가면 있어요.

@ 그럼 남아 있는 게 뭐 있어요?

#1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베타이도 있고 베타이 해일에 쓸개 거 나무세운 거이 다 있을거여. 내가 작년 그러께 갔다왔는데.

@ 그저께요?

#1 그러께 작년 그러께.

@ 그러께가 뭐예요?

#1 작년이 올히 작년이 그 그듬해에 삼 년 됐다는 얘기가 그러끼.

@ 올해 작년 그러끼.

#1 예.

@ 어디 사셨어요?

#1 저 초등학교 앞에서 밑에 바로 밑에서 살았어요.

@ 그럼 여기 오신지는?

#1 여기 온지는 지금 이십육 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 아, 오래 되셨네요 이쪽으로 오신지.

#1 예. 거기서 살적에는 염베타다가 소금굽다가 그것 못 허니까 배를 사다가 고길 잡았지요.

@ 아 배를 직접사가지고.

#1 예. 고기잡으러 데냈어요.

@ 그럼 어르신 배의 이름 같은 것도 다 아시겠네요? 배의 구조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1 직금이니까, 직금이니까. 기계배가 있지. 옛날에는.

@ 옛날에 사용하셨던 배

#1 풍선

@ 근데 아까 소금 구울 때 가마에다가 이렇게 소금 만들 때 물을 더 주고 그런 게 있나요?

#1 있었어.

@ 그걸 뭐라 그래요?

#1 덧물붓기요.

@ 그건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1 그걸 워떨 때 하느냐면 가마에가 이미 담어진 물을 붙을 때다가 남은 남은 물이 있는데 남은 물이 한가마닐 때지 못하고 반가 반쯤되겠다면 그놈을 다시 다 긁어 떨어 그 만큼 다른 달귀진디다 또 갖다 더 부어 그럼이게 덧물붓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거면 은 한 구대 한가마 굽는데 한가마 반을 굽는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 판사람이 득이 득이 되죠 왜 득이 되느냐 내일까지 이 사람이 구우면은 나를 모래구워야 할텐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구우니까 득이되죠.

@ 지금 어르신 구대라고 하셨는데 구대라는 말이 뭐예요? 구덩이를 말하는 건가요?

#1 예 예.

@ 어떤 구덩이?

#1 물 고이는 게 다 구덩이죠.

@ 아까 거기는 다 구대라고 해요? 아까 빨이라는 말도 쓰시고 펄이라는 말고 쓰셨는데 이거는 바다의 흙을 말하는 거죠?

#1 예, 바다의 저걸 얘기하는데 빨은 음 보통 이 소로 갈아서 말리는 데 그 부근 흙을 벌이라고하고 이제 간통 거기 멧길헐라고 가져오는 흙을 이름이 달잖아요.

@ 그건 뭐라 그래요?

#1 간펄.

@간필?

#1예.

@ 아까 그 간통 만드려고 하는 흠은 간필이라고 하고.

#1예예 그러죠.

@ 그냥 일반적으로 소 가는 거는 빨. 빨 필 좀 다르네요.

#1그래도 이기 똑같은 말이유 똑같어.

@ 갯벌, 갯필이라고도 하시잖아요?

#1 다 똑같은 말이요.

@ 어르신 혹시 저 뭐야. 천일염도 하셔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 아, 없으세요? 그럼 천일염에 관련되는 용어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재래염하고요?

@ 이렇게 만드는데 용어 아까 어제 뭐 방법이라든가.

#1 방법이 완전히 달죠. 천일염은 완전히 달바요.

@ 어떻게 달바요?

#1 음,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바닷물이 젤 많이 들어올 때 그 바닷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틀을 만들어야 되요.

@ 그 틀을 뭐라고 하죠?

#1 그 틀을 개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바닷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놈을 얼마큼 저 저거를 하느냐면 그 천일염 만드는 기간 동안 사. 팔일 간을 태양으로서 천일염을 만들거든요.

@ 완전히 증발시켜가지고.

#1 예예. 그 인제 팔일 간을 쓸 수 있는 바닷물을 거다 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무척 많이 저장하는 편이에요.

@ 근데 그거는 떠다가 붓나요?

#1 아니요. 아니요. 그 제방에다가 그 수문이라고 해가지고 아구니 커다랗게 만들어서 거기서 바닷물 저장고로 막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놈을 저장하면은 팔일 간을 그 저장된 물로 소금을 이제 저 태양염을 만드는 거거든요?

@ 가만히 놔두면 되나요?

#1 아니지요. 계단이 있어요. 바닷물이 저장고에서 일단계로 저 염판이라고 하죠? 저 그 태양염 만드는 간을 갖다 전부 염판이라고 하는데 그 염판으로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게 전부 눈에 물 들어오듯 전부 들어오게 만들어 졌어요. 계단식으로 조금 높고, 낮고 이렇게 쪽 해서 만들어 갖고 사일 간을 그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서 사일 간을 별을 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느려와서 아주 망도 막 오는데는 태양염을 굽어내는 그런 장소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올 때 어디로 그 물을 워따 갖다 저장하냐 면은 간통이라고 해가지고, 간통이라 해가지고선 저기다. 계단을 들어온 물을 저장해요. 저장했다가 한 번에 소금 나오는 소금 굽어낼 수 있는 간 염판으로 보내요. 지금은 전부 모다로 해서 물을 보내는데 옛날에는 수채라 해서 사람이 밟아서 사람이 물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보내면 저녁때 소금이 나와요.

@ 아, 바로요?

#1 네. 그렇게 저장해서 쪽 계단식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물이 점점 더 짜지게 만들었던 놈을 또 간통에다 넣었다가 그놈을 단번에 퍼서 염판에서 인제 저 소금 굽는 염판에서 옮겨주면은 그날 아침에 넣어두면 저녁때 소금을 굽어요.

@ 뭐, 뒤집거나 그렇지?

#1 아니. 안 뒤집어요. 그렇게 하고선 뒤집기 전에 어제 저 제럼 소금꽃 핀다고 했죠? 이것도 소금꽃 피어요.

@ 아, 어떤 소금꽃?

#1 이것은 네모. 네모지게 되가지고 물위에 뜨요. 네모지게 되어 있는 것이. 고개 고것이 차츰차츰 밑으로 커가지고 점점점점 커지면 인제 어느 정도 커지면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또 네모지게 되면 짝 위가 올라와서 햇빛에 의해서 점점 커지면 자꾸 가라앉고 또 그런 식으로 오후 네 시정도 되면은 완전히 다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인력으로 소금을 긁어서 인제 창고로 가져가요 인제.

@ 그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긁는 도구라던가.

#1 아 긁는 도구는 그거보고 뭐라고 하나. 채제비. 채제비라고도 하고 또 달리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고매다이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걸로 밀어요. 한쪽으로 얇게 바닥에 인제 소금이 만들어 졌으면 그놈을 그 채제비로 밀어요. 한 쪽으로 밀면은 그게 한 쪽으로 다 물리겠죠? 물리면은 일륜차. 지금 저 가정에서도 쓰고 있죠? 일륜차. 사람이 밀고 다니는.

@ 아, 미는 거.

#1 예. 그것을 갖다 거기다 놓고서 큰 삽으로 떠서 일륜차에다 실어서 창고에다 붓죠.

@ 창고에 담을 때는 머 가마니 같은 거?

#1 아니요. 그냥 갖다 막 부어요.

@ 그럼 거기에도 간수 같은 게.

#1 아니 아니. 자꾸 내려오죠. 저 내려오죠. 그런데 그. 그 간수는 천일염에서 나온 간수는 다시 그 소금 만드는데 그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버려져요.

@ 아,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1 예.

@ 어제 자염은 그걸 또 다시 붓고 다시 붓고 해도 괜찮고요. 제가 그 과정 중에서 몇 가지. 그럼 아까 그 천일염 만들 때 거기도 소금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1 소금밭?

@ 뭐 염전.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1 염전. 그게 소금 염자 밭 전자해서 염전이여.

@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자염같은 경우에는 그 갈아서 서로 갈았는 것을 아까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1 그건 나래질 했다고 하지요.

@ 그 나래질 해갖고 해놓은 그 갯벌.

#1 그 물을. 물을 이야기 하는 거여?

@ 갈아서 놓은 그 주변.

#1 아, 말리느라고 갈아 놓은 것을? 통자락.

@ 통자락은 고 중간에?

#1 그것도 통자락이라고 그러. 우리는 통이라고 그러제.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것을 하려면 우리 통자락이라고 그러 것지요.

@ 그러니까 통자락은 아까 물이 고여 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 통자락이라고.

#1 예예. 그러니까 다 그 옆에가 다 말려진 흙이 있으니까 그놈을 갖다 거르고 파내고서 갖다 부어야 통자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하면 인제 판 데 놓은데 통자락이 우리.

@ 아, 전체 그냥 다 추사주고.

#1 예. 통자락이요. 예.

@ 그럼 지금 거기 냉금리 가면 저희들 볼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뭐 터 중에서?

#1 지금 가면은 베틀, 만들어진데 나무 뱅 둘러 세우고. 베틀 만든 것 있죠? 그것 볼 수 있고 통자락은 지금 옛날엔 소로 갈아서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소로 뱅 돌리고 흙을 파서 긁어내고 그 긁어낸 흙을 말려서 다시 넣고서 한 것이 통자락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 경운기로 간다고 그래요. 뺄을 경운기로 갈아서 말리면은. 이렇게 양

쪽에 놓고 어숙하게 맨들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짠물이 흘러 내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통이 또 이렇게 큰 통이 묻어 있는 디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우덜이 직접 만드는 것인디 그게 거리 이빠이 하나 차면은 더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저 물을 소금 굴디로 가져오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물들어왔다 나가면은 또 거기 안으로 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일 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못 허지요. 물이 짠 물이 다 우리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내가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염전에서 짠물을 구하지 못할 때 자기들 시간 없어서 구하지 못할 때는 염전에서 물을 갖다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한번 내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 어르신한테 그 갯벌 하고 물어봐. 어르신 그 바다가 여기는 밀물 썰물 들잡아요. 물이 들어올 때 말고 물이 나갔을 때 보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하세요?

#1 사장. 왜 사장이냐면 하얀 모래니까 흰 백자 해갖고서 백사장이라고 부르지.

@ 그 사장말고 인제 진흙으로 질척질척한데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부르세요?

#1 거기는.

@ 조개 캐고 하는데.

#1 조개 캐는 데는 빨이고. 여기서 여기는 모래 있는 데는 조개가 없지.

@ 모래 있는데 말고. 그러니까 빨이라고 하시잖아.

#1 빨이지 빨.

@ 갯벌이라고도 하고.

#1 바다에 바다를 보통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 갈 적에 갯벌간다고 하지요.

@ 개간다.

#1 개간다. 갯벌간다.

@ 아, 바다에 갈 때.

#1 예예.

@ 그런 목적은 결국 조개 캐러 간다 그런 소리예요? 빨에 조개 캐러 갈 때 개간다.

#1 개간다 하면은 조개도 파고, 굴도 따고, 홍합도 따고. 벗도 메고. 벗도 자르고.

@ 툷도 자른다고요?

#1 예 툷이라고 인제.

@ 아, 툷. 툷 먹는 거.

#1 그것도 인제 칼 갖고 와서 자르고 이러는데 먹는 게 많아요. 우묵 얻는 우묵가사리도 있고. 그건 인제 그런 것들은 해녀들이 깊이 들어가서 따오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신 신고. 신발신고서 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홍합 따고, 굴 따고, 조개 따고. 조개 파고. 툷 자르고.

@ 홍합은 바다 밑에?

#1 아니여. 밑에가 어느 정도 물 나가면 있어요.

@ 아, 있어요? 아. 그래서 하며튼 그런 걸 캐러 갈 때는 개간다.

#1 네. 개간다 그러지요. 네. 조개 파러 가. 전적으로 조개만 파러 간다면 갯벌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 그럼 거기 검은색의 흙 자체만 말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그 갯벌에 빨에 흙.

#1 빨이라고 그러죠 그냥. 갯벌이라고.

@ 그 흙도 빨이라고 그래요?

#1 응. 빨이라고 그러죠.

@ 그 빨에 흙 색깔은? 어때요?

#1 대부분이 검죠.

@ 왜 그렇게 그건 검어요? 빨은?

#1 그게 왜 그렇게 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가.

#1 아니 그게 워디서 뭐 물체가 가서 검어졌거나 그렇지는 않고 생긴 원 태새여 태세가 아주 그렇게 검고 푸르면서도 검을 정도로 이렇게 빨이 이렇게 그렇지. @그럼 혹시 어르신 뭐 난치라던가 누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못 들었어요.

@ 그러면 이제 이 자염 만들 때 그 밭은 염전이라고 안하죠?

#1 그거는 이제 천일염 할 때 하는 것이고.

@ 그담에 인제 간쟁이와 관련되는 머 속담 같은 거 있어요? 간쟁이와, 간정이와 관련되는. 인제 머 그 머 속어 같은 거.

#1 간쟁이가 쥔 힘드는게 간장이예요. 근데 그 그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한다고 했지요? 근데 그 호장 각각 그 통자락이 전부 각각이 있거든요. 여기 자염 만들 때는 인제 한사람이가 허는기 고거시 다 구분이 한 사람끼 이상이 하는 기. 여기 우리동네에서 옛날에 할 때는 수백사람이 나가서 했으니까 전부 각각이란 말이여. 그러면은 그 무은지차하고 각한지차하고 전부 그 간장이들이 통으로 저왔어. 옛날에는 전부 저 왔습니다. 저 와서 저온 놈들을 베틀로 가져와서 베틀 바깥에서 붓게끔 만들어 졌어요. 붓게 멀. 아이 인제 이제 털로 떠서 가마에다 붓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물. 그 물을 저오는 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빨이 이제 물젓 들어가니까 미끄러도 하죠. 그 통이 한 한 짝이 물통이 한 짝이 얼마 들어가냐면은 닷 말들어가요 물이 닷 말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럼 두. 그럼은 열 말을 지고 오는 거여.

@ 맨땅도 아닌데. 지고.

#1 맨땅도 아니고 미끈데서 그분들이 얼마나 욕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집에서 소금 한 가마씩 받아요. 그럼은 열 집이 여기서 일했다 하면은 열 집에서 열 포대를 받아서 두 사람이 놓는 거여.

@ 음, 두사람이서. 그럼 그때 당시에 한 가마 정도는 돈으로 사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얼마정도 할까요? 한가마가 값이.

#1 그때는.

@ 한가마 하면 뭐 살 수 있어요?

#1 50키로 50키로 되는 기.

@ 한가마가?

#1 예. 옛날에. 지금 참 30키로지만 예날엔 50키론데. 50키로면은 쌀을 사면은 쌀을 사면은 쌀 서 말 밖에 못 사요.

@ 한가마니. 50키로가 한가마인데.

#1 예.

@ 서 말을 산다고요? 서 말이면은 상당히 많지 않아요?

#1 아니요. 이게 소두 서 말이면 대두로 하면 말가웃이지 한말 반.

@ 아, 이건 소두로 서 말이구나.

#1 예.

@ 그렇게 하는 데도 한 가마 밖에 못 받는데 그것은 쌀 한말 반 밖에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 간쟁이와 관련되는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간쟁이 퐁은 뭐 어찌고 저찌고.

#1 얼마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욕봤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장이 퐁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마만큼 힘들고 욕보고.

@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1 일을 했으니깐.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고단하니까 대변이 딱딱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 것은. 그러니까 개가 못 먹지 딱딱하니까.

@ 그래서 인제 그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속담 같은 것은?

#1 다른 건 별루 없어요.

@ 그러면 아까 벋주하고 간쟁이 두 명하고 또 염한이가?

#1 세 명.

@ 그담에 염부. 염부.

#1 염부도, 염한이도 다 똑같은디.

@ 염부, 염한이 같은 말이에요?

#1 예예.

@ 그담에 불 때는 사람 화부.

#1 화부. 예.

@ 그러면은 비올로 따졌을 때, 소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벋주는 몇 가마 간쟁이는 간쟁이 두 명이니까 나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눴어요?

#1 나누. 나누는 짓은요.

@ 그 비율.

#1 한 집에서 인제 가서 그 조금을 해가지고서 소금을 소금 나오기꺼정 며칠이 걸리건 그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금 나오면 끝이란 말이여 그 일이 그러면 그 소금을 월마를 벋주가 갖느냐. 반을 가져요.

@ 아, 전체 나오는 거에 반.

#1 예.

@ 그담에 50퍼센트를 벋주가 갖고 남은 50퍼센트 가지고.

#1 간장이 하나 또 주고.

@ 두 명이니까 그 반에 한 개씩 또 주고. 그 다음에 염한이.

#1 아 그 사람들은 놀러 갔는 것이지. 자기네들 퇴근네 될 것이니까.

@ 일단 간쟁이 갖고 난 뒤에는 나머지는.

#1 두어 분이면 둘이 셋이면 셋이 노나 갖는 거여.

@ 그럼 화부는 간쟁이가 하나요?

#1 아녀 화부는 각각 자기네 것 구울 때는 자기가 붙을 때니까. 화부가 특별히 판사람이 있는지는 않여. 자기네 꺼는 자기네가 구우니까.

@ 그러면은 염한이가 하는 거는 뭐예요?

#1 아니 염한이도 똑같고. 염부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 간재이하고 염한이는?

#1 아, 간쟁이 하고는 달지요. 간쟁이는 물만 저거 하고.

@ 간도 보죠? 이분은?

#1 아니 그렇죠. 어제 대름본다 그랬죠? 대름보고 그럼 쳐다가 떼서 소금만드는데 간장은 저기 저것은 안 해요. 소금 굽는디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안 혀. 물만 저오는 거여 그사람들은.

@ 그럼 염한이는 어떤 일들을 해요?

#1 염한이는 이제 흙을 말리고. 염한이죠.

@ 아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기는 염한이가 더 중요하네요 그죠?

#1 아니 일은 염한이가 저 간장에도 육보지만은 염한이들이 많이 육봐요. 한 일주일 해야하니까.

@ 염한이가 맞아요? 염안이? 이게 뭘 말이에요?

#1 염안.

@ 엮. 소금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인가요?

#1 그렇지요. 예.

@ 그 다음에 고사 같은 건 안지내세요? 벗고사.

#1 벗고사는 지내지요. 원제 지내느냐. 벗고사는 설 세고서 처음 일을 시작 소금내느라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 그날 밤에 벗고사를 지내요.

@ 한해로 봤을 때 한 몇 월을 딱? 월

#1 4월 음력 4월 말경에.

@ 거기엔 뭐 어떤 걸 차려놓고 누가 절하고 이리시는 거예요?

#1 그건 벗주가 하지요.

@ 벗주가 다 하는 거예요?

#1 예.

@ 그런 거 뭐 어떤 음식들을 차리는 거예요?

#1 아니 뭐. 저 제사하면은 보통 과일도 놓고 고기도 놓고 그러자녀. 근데 벗. 벗. 거기 다 제사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로 돼야지 머리를 놓지요. 돼야지 머리를 놔요.

@ 그 다음에 그거 다 한 뒤에 음식물 뿌리는걸 뭐라고 하지요? 그것도 하나요?

#1 그런 것은 옛날이야기인데. 옛날 얘기고 고시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처음 제일 먼저 잔 받는 사람. 술잔을 먼저 받는 사람.

@ 그 사람은 누가 받아요?

#1 나이 많은 사람이 받지요.

@ 아, 맹 염한이나 이 사람 중에.

#1 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존대한다 해가지고 먼저 술잔을 주자녀.

그럼 술잔 받은 사람이 술 잔 자기 먹기 전에 조금 따라서 고수레를 허는 거여.

@ 거기에 인제 연장자를 좀 해주신다. 그쵸?

#1 예.

@ 그다음에 인제 그 혹시 갈아놓은 거기를 염밭이라고도 하나요? 그 갈아 놓은 갯빨 갈아놓은 거를?

#1 음, 그게 그게. 염밭이라고 허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앓고 전라남도 가니께 염밭이라고 허데요.

@ 아,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1 여기는 염한이들이 한 일이니께 그냥 간통자락, 간자락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뭐 우덜이 전국을 다니면서 물. 제방사서 벌서 물어니께 워디가 저 나야 제일 놓은 지역을 고르는 거시 냉금을 골랐는데. 전라남도 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 아, 여기서는 염밭이라는 말은 안 쓰시나 보죠?

#1 안 써요. 안 썼어요.

@ 그다음에 소금을 짚으로 엮었는 곳에 담아 놓잖아요.

#1 그게 섬.

@ 섬이라 그래요?

#1 예. 섬.

@ 그담에 그 소금을 특히 팔로 가는 배를 부르는 말인데.

#1 상굿배 불러.

@ 혹시 그 빨나무로 쓰는 종류들도 있나요?

#1 종류 없어요.

@ 어떤 나무를 주로 많이?

#1 워편 나무가 뭐 구분되어 있지 않지요. 뭐 솔나무면 솔나무 갈나무면 갈나무. 이런 아무 나무고 말론 나무면은 불이 탈 수 있는 나무면 되니까.

@ 근데 그 나무를 갖다가. 몇 묶음 헤아리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냥 막 갖고 와서 하시는게 아니라.

#1 예. 그건 인제 이 농촌에서는 막 지게에다 저서 가져가거든요.

@ 그 나무를 묶지는 않나요?

#1 아, 묶어요.

@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한 동, 두 동, 그래요 한 짐, 두 짐.

#1 한 짐 두 짐 허지요.

@ 한 짐 두 짐 하세요? 한 동 두 동 이라고는 안하세요?

#1 아니. 한 동은 쪼그만것 보고 한 동이고. 아니 짐으로 이빠이 한 짐이면 한 짐이여 그계. 그러면 한가마를 떨어면 여덟 짐을 해야혀. 여덟짐.

@ 한가마 떨어 면은 여덟 짐. 엄청 많다 그죠?

#1 많지요.

@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는 염부장 그러니까 염한이 중에서도 이렇게 대장이 있나요?

#1 없어요.

@ 그냥 순서 없어요?

#1 예. 나이 쥘 많이 먹은 고령자가 때로는 모든 일들을 지시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인제. 물이 일찍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늦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멧날 물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밤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 흠을 전부 오늘 다 메꾸란 말이야. 이렇게 지시하는.

@ 그런 사람은 따로?

#1 없어요. 같이 일하는.

@ 그 중에서 저절로 정해지는. 그러면은 혹시 일단 바닷물을 갯물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1 예. 갯물이죠.

@ 바닷물 보다는 여기서는 갯물이라는 물을 더 많이 쓰시나요?

#1 예. 갯물이라고 많이 쓰죠.

@ 짠물은 어때요?

#1 짠 건 이제 주로 이제 뭐야 염전이나 간통 같은데 나온걸 짠물이라고 하고.

@ 고거를 간수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1 간수는 이제 소금에서 흘러나온 것 보고 간수라 하고.

@ 아, 그. 따로 되네요 그냥. 짠물은 간통자락 같은데서 나온 게 짠물이고.

#1 네.

@ 그 다음에 인제 소금을 다 한 뒤에 거기에서 나온 물은 간수.

#1 예. 간수지요.

@ 구분이 다 되는데 막 구별이 안 되가지고. 그담에 혹시 그 통자락을 간통이라고도 하시나요?

#1 며 아주 우리덜이. 그때 소금 만들라고 일 할 때는 인제. 아주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양반이 90세였슈. 근데 그 양반이 거의 지시 했슈. 그 양반이 지시했다구. 내가 이가 빠져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양반 말 들으면은 하나도 실패가 없어. 그래서 그 양반 말을 아예 듣고 그랬는데.

@ 그 분이 간통이란 말씀이세요?

#1 예예. 그분이 간통.

@ 그러면 되게 오래된 말이 간통이네요.

#1 그렇지. 그렇지요. 지금부터 한 백년 이상 된 말이지요 그게.

@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통자락 이런 말 쓰는 건가요?

#1 예 예 예.

@ 이게 혹시 전라도 쪽에서는 섯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말은 못들어 보셨어요?

#1 못 들었어요.

@ 인제 그 자염을 그 구덩이를 혹시 버긱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 보셨어요?

#1 버긱.

@ 예. 머 어떤? 통자락에 있는.

#1 아니여. 그 버긱은 버긱은 아까 내가 말을 했는데. 간장이가 물을 저다가 벗 바깥에 부으면 버긱으로 들어와.

@ 아, 벗 바깥에다가 부으면.

#1 응. 이렇게 들고 만들어져 있어. 아주 그럼 거기다 부으면 그 물이 불어나면 워디로 가냐. 버긱으로 들어와요.

@ 근데 버긱은 어떻게 만들어요?

#1 버긱은 거기를 깊이 파고.

@ 굉장히 깊이 파겠네요?

#1 한 짐이지. 이렇게 손 뺏어도.

@ 거기 안에를 머 시멘트나 이런 걸로?

#1 아니 시멘트로 앓고. 뺧을 갔다. 더.

@ 벽을 붙여요?

#1 예. 아주 딱 굳어 만지고 해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놈을 발라요. 그러니까 네 번 내지 다섯 번 발라야 돼. 그래야. 그렇게 발라야 갖다 부어도 그물이 소비가 안 되지.

@ 그렇지 아니면 인제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드니까.

#1 아이구, 그러면요. 예.

@ 아, 그러면 그것을.

#1 버긱이라.

@ 그러면 그게 혹시 벚에 만드는 구덩이라서 벚긱이 버긱이라고 된 건가요?

#1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벚 있는데 만드는 구덩이다.

#1 예. 그게 버긱이여. 그러니까 벚에다 만드는 웅덩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 그다음에 그. 벚 얹힌다라고 하는 말은? 벚을 얹힌다.

#1 벚을 얹힌다. 그게 인제 벚을 새로 짓는 거여. 다

@ 아, 벚을 짓는 거를.

#1 벚을 얹힌다 그러. 새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말이지 쉽게 얘기 서. 벚을 얹힌다. 나무를 뱅글리 박고서 나래로 이니까 벚을 안친다. 그러지.

@ 혹시 그 염벚을 설치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또 있나요? 누가 설치해요? 벚. 벚. 염벚은? 벚은?

#1 아니 인제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여기 뭐 호주? 화주? 여기 머 이런 사람이 벚을 만드나요?

#1 예. 그 아니 그게 벚주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 따로 보면 그 염뱃을 만드는 사람을 대간이다. 대간, 소관 혹시 이런 말도 들어 보셨어요? 대간은 뭐 염뱃을 만들고 머 소간은 머 다른 거 하고.

#1 아니여. 여기서는 그런 대장으로 안 썼어.

@ 그 다음에 인제 그 뱃주가 염뱃을 여러 개 가질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1 아니예요 여러 개 못 가져요.

@ 못 가져요? 그럼 혹시 여러 개 가진다고 하면은 뱃이 몇 개다. 뱃을 세리는 단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뱃이 한 되 두 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뱃을? 여기가? 저기 지금 낭금리에 뱃이 몇 개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뱃이 몇 되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몇 대라는 건 없구요. 뱃이 그냥 개수로. 개수로 세는 거예요.

@ 그러니까 몇 개 있다.

#1 몇 개.

@ 아, 몇 개 개라고 하는군요. 뱃이 몇 개. 어제 어르신이 그 뱃집에 위에 지붕 만드는 것을.

#1 뜸.

@ 뜸이라고 하셨는데 옷집이라고는. 뜸이라고 하셨죠 지붕은?

#1 예. 그게 옷집이라고도 하지요. 왜그냐면은 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께. 옷집. 이우자 써서 인자 그렇게 만든 거니께.

@ 이영하고 나래하고는 어떻게 구분돼요? 이영이 나래가요?

#1 예. 이영이 나래여.

@ 음, 여기서 인제 나래라고 말씀하셨죠.

#1 이영이라고도. 여기 사람들도 이영이라고도 혀고 나래라고도 혀요.

@ 영이라고도 하나요?

#1 예. 영? 영은 아니제.

@ 이영이나 나래.

#1 예.

@ 그다음에 인제 그 가마를 아까 거기를 돌담이라 그랬나?

#1 예.

@ 거기다 부담이라 그랬어요? 걸잡아요. 그 위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가마를 얹혀 놓는거를 가마 얹히다 그래요? 가마 걸다 그래요?

#1 그게 인제 가마 걸돌 이라고 그러죠. 걸돌. 인제 가마를 올려놓다. 그래서.

@ 걸돌.

#1 예. 걸돌.

@ 그면 걸돌 위에 인제 가마를 얹는 거를 뭐라 그래요?

#1 가마를 얹히면 인제 끝나죠 며.

@ 그걸 뭘. 뭐. 가마 걸다라 그래요? 솔 얹힌다 그래요? 솔을.

#1 가마건다 그러지요.

@ 가마 건다. 음. 그담에 인제 불 때는 곳을 뭐라고 해요?

#1 아구니. 아구니.

@ 그다음에 그 인제 가마에 솔에 가마솔을 만드는 것을 뭘로 만든다 그랬죠? 철판으로 만드는.

#1 아니. 옛날이 철판이지. 지금은 철판 아니여. 지금은 스텐으로 만들어.

@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1 옛날에는 철판으로 만들었지요.

@ 그럼 그 철판은 대장간에서 만드는 철판인가요?

#1 아니. 아니여. 옛날에도 그. 거기 철판이 워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철판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대장간 사람들이 인제 혼합을 시키는 거여. 두개를 하나로. 그럴 때가 황토흙하고 철판하고 녹여서 붙이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가.

@ 근데 그 철판은 이걸 뭘로 만드는 건가요? 스텐 같은 건가요?

#1 철판이죠 철판.

@ 철판으로 만든 거. 혹시 그 아궁이를 부석이라고도 하세요? 여기서?

#1 여기 부석이라고 안 해요.

@ 아까 아궁이.

#1 예. 아궁이라고.

@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머 굴뚝같은 것도 나오요?

#1 굴뚝 안 달지요.

@ 필요 없어요?

#1 그냥 구멍이? 예. 아니 굴뚝 달면은 일이 많고. 또 그 벵을 상당히 넓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얇고. 그냥 불 때면은 뱅 돌려. 구녕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그냥.

@ 그냥 그걸로.

#1 예.

@ 굴뚝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 가마가 있을 때 가마가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되어있죠?

#1 예. 사각형이죠.

@ 그럼 이런 가예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가마의 가예 가장자리를.

#1 가마의 가에가.

@ 가녁이라 그러는 말두 쓰셔요? 가녁.

#1 가녁 안 써.

@ 그냥 가라 그러세요? 여기서는?

#1 그냥 가마라. 그냥 가마라 그래요 여기서는.

@ 혹시 그 사리뜸이 됐을 때를 사리발 이런 말도 하신가요? 사리발이 됐다. 이제.

#1 사리발이라고 앓고 사리가 왔다. 이렇지 여기서는.

@ 아, 사리가 될 물이 점차점차 많아지면은?

#1 그게 다 사라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 이제 딱 보면은 바다를 딱 보면은 아시는 거예요?

#1 아니죠. 메수를 봐야지 알죠.

@ 아, 인제 몇 메나. 그래도 바닷물 보고는 모르셔요?

#1 몰려요.

@ 아, 그냥 음력 날짜를 보고서 아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이런 앞바다는 모르고 뒷바다는 물로 보면 알아요. 뒷바다.

@ 뒷바다 앞바다는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 앞바다는 물이 나가면 빨이 있는 디가 앞바다고, 뒷바다는 바우만 나오는 데가 뒷바다죠. 그러면 그 바우만 있는데서 보면은 물이 재빨리 나가거든요. 그 나가는걸 보면 아 이게 사리발이다 알죠.

@ 사리발이란 말도 쓰시는데? 사릿발이라는 말.

#1 아, 여기서 사리발이라고 써요.

@ 그 다음에 그 소금꽃이 핀다를 혹시 분이핀다. 이런 말도 하시나요?

#1 여기서는 안 했죠.

@ 그런 말은 안 쓰시고. 그 끓일때 거품 같은 것도 나나요?

#1 거품 나지요 그것이 불순물이지요. 그것이 오래 자꾸 더 끓이면은 아주 김추 해갖고 많이 떠있슈. 그러면 대칼로 밀어 내갔고 대죽으로 건져내지요.

@ 그거를 뭐 버품라고도 하시나요? 그 거품을? 버품. 거품. 혹시 거품을 버품.

#1 그제. 그 우리서는 그런 얘기 안 썼어.

@ 혹시 조기를 절일 때, 조기를 저런 독에다 넣고 소금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머 간친다. 이렇게 독간친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1 독 간 친다 그러지요.

@ 독 간 친다. 그럼 조기를 이렇게 짚으로 묶어서.

#1 엮어서.

@ 그걸 몇 마리 엮죠?

#1 한쪽에 다섯 마리. 이쪽에 다섯 마리씩 두 개 한 뭇.

@ 한?

#1 뭇.

@ 두름 이란 말은 안 써요?

#1 두루미. 그것은 인제 아래서 아래쪽서 하는 말인데. 두루미는 여기는.

@ 그럼 여기에 조기가 크면은 한 무치.

#1 열 개.

@ 무겁다 하는 거예요? 한 무치.

#1 한 뭇여. 그러니까. 한 뭇.

@ 한 무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예. 무겁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뭇. 그러니까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가 한 뭇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뭇이지. 무겁다고 해서 한 뭇이라는게 없어요. 갯수가 열개다 해서 한 뭇이여.

@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두름 하면은 열 마리 열 마리 있고 스무 마리를 두름인데?

#1 그게 저 영광서는 두름이라고 하죠. 한 두름. 이 저 뭐야 장바닥에 가면은 요새 장사꾼들이 한 두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 혹시 소금물을 함수라고도 하시나요?

#1 함수라고 하지요.

@ 여기서도 함수라고 하시나요?

#1 예.

@ 근데 그 소금물은 아까 간통에서 나온 짠물을 함수라고 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 그다음에 인제 그 갯벌에 아까 빨. 통자락 하는데 가면 빨이 있을텐데 그 흙을 가지고 함토라고도 하나요? 그 빨 흙. 그걸 갈아 뒤엎을 때. 함토를 뒤엎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빨을 뒤엎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뒤엎는다?

#1 빨을. 빨을 뒤엎는다 그러지. 머 함토나 간토를 뒤집어 건다는 얘기는 없지요.

@ 뒤집어 건다?

#1 아래를 자꾸 젖으니깐 뒤집어 지지요. 그게 뒤집어 지면은 마르고. 댕이판을 대서 댕이를 깨치고.

@ 깨는 걸 깨치다. 혹시 옛날에 그 철가마로 안하고 토가마로 한 걸 들어 보셨어요?

#1 못 들었어요.

@ 무슨 석회로 만든 솔으로 토가마로 인제. 그 여기 너머에 가면 모항항 거기는 선착장을 해가지고 거기 포구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개고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고랑.

#1 그냥 이게 골졌다고 해서 개고랑이라고 하는겨.

@ 작은 항구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1 네.

@ 인제 그 개에 보면 물이 인제 그 갯벌에 도랑처럼 생긴 걸 개고랑이라고 하시나 봐요?

#1 네. 그러 개고랑이라 그러.

@ 그러면은 이제 벚주가 간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금 만들 때 이런 거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품앗이 같은 것도 하시나요?

#1 품앗이가 아니죠.

@ 아니에요? 이거는 품앗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통자락이라고도 하고 간통이라고도 하는거죠?

#1 예.

@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벚이라고 하기도 하고 염벚이라고도 하나요?

#1 벚을 염벚이라고도 하고 벚이라고도 하죠.

@ 염벚. 그럼 벚주라고 하기도 하고 벚임자라고 하기도 하고. 염벚임자.

#1 그건 다 똑같은 말이죠. 허기야.

@ 벚주가 제일 많이 써요?

#1 예. 벚주가 많이 써요.

@ 그럼 염벚을 염막이라고도 하나요?

#1 태양염 하는데는 염막이라고 하지요.

@ 아, 여기선 안하고 태양염은.

#1 여기도 태양염 저기 밑. 저희 어머니 있어요.

@ 그 간통자락 할 때 그 나무를 세우는 거를 뭐라고 하세요? 거거를 때려서 박아서 세우나요? 아니면 꺾꺾 눌러서?

#1 아니야. 때려서. 때려서. 때리아쥬. 때려서 들어가야쥬.

@ 그걸 뭐라고 하세요? 밑에 그때 통자락 만들때 세우는 나무를. 나무박다 그러는 거예요? 말뚝 박다?

#1 아니여. 말뚝 박다가 아니라. 통나무 박다 하는 기여 통나무.

@ 아까 가마 걸 돌을 갖다가. 부담이라고도 하시나요?

#1 예. 부담이라고도 하지요.

@ 그거는 돌을 갖다가 쌓나요?

#1 아니여 돌을 섞어서 쌓지요.

@ 아, 돌 한 단 하고 거기다가.

#1 흙을 또 한 단.

@ 그거는 빨리 하나요?

#1 아니 흙으로.

@ 진흙?

#1 예.

@ 진흙으로 쌓아서. 혹시 가마솥을 걸때 거기에 머 기등을 세워서 또 세우나요? 그거 들보를 세우나요?

#1 예.

@ 어떻게 세워요?

#1 그것을 안 세우면 가마를 달아 땀 우에 턱이 없죠. 우에 턱이. 이렇게 두 개가 가마가 네모가 졌으면은 두 개를 이렇게 들보를 세우는데. 그 들보 위에다 묶어 매니까.

@ 근데 그렇게 볼 때면 들보 다 안 타요?

#1 안 타요.

@ 어떤 나무로?

#1 아니. 큰나무로다 하는 거예요.

@ 하면은 안 타요? 그게?

#1 아니 그게. 그거 타면은 소금 나와요? 안 나오죠.

@ 인제 그 가마 밑에다가 그거를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1 가마 우에다가 하는 거여. 가마를 이렇게 올려 났으면은 그 우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 고정. 위에 머?

#1 아니여. 밑에다 기둥을 두 개 씩 세워. 세우고서 기둥 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묶어 매는 거.

@ 그때 거는 그것을 기둥이라고 하세요? 들보라고 하세요?

#1 기둥이죠.

@ 지동. 머 이런 말은 안하세요?

#1 지동은 아니고 기둥.

@ 거기서 지난 번에 재연하실 때 한 것은 통조금이라고 하시죠.

#1 예. 통조금이라고 그러요.

@ 그러니까 조금의 종류가 몇 개. 머 통조금하고 말씀해 주세요. 통조금하고 갈개조금 차이.

#1 아니. 통조금하고 갈개조금 밖에 없시유.

@ 그러니까 통조금은 이제?

#1 통을 파서 만들어서.

@ 조금 때 한다 그래서 통조금인가요?

#1 예. 아니. 아니 인제 갈개조금도 조금 때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까 같은 조금 때 하는데. 통조금은 통을. 간통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 통을. 통을 파서 말려서 하는 게 간통이고, 갈개조금은 이제 저 올린다 그러잖아요. 어제.

@ 예. 그렇게. 아 어제 갯벌에서 갈아 놓은 것들을 통자락이 만들어지면 그걸 메울려고 모으는 걸 뭐라고 하셨죠? 안으로. 통자락 안으로 막. 이제 흙을 모으는 것을.

#1 모다 넣는다. 모다 넣는다고 했죠. 흙을. 흙을 모다 넣어야 하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들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1 예. 조금들인다.

@ 아, 그것도 옷 입는다. 똑같은 사람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호락질이라는 말 비아냥거리거 사람 일 할 때. 호락질 이런 말도 들어 보셨어요?

#1 호락질? 호락질 혼자 하는 게 호락질이죠. 혼자 하는 일을.

@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1 예. 호락질.

@ 그럼 이건 좋은 의미 인가요? 그냥 혼자서 일만 하는 사람들.

#1 혼자서 일만 하는 사람보고 호락질.

@ 죽도록 하는 걸 보고 그럼 좋은 이야기 아니네요? 재는 왜 저렇게. 어떨 때 사용해요? 한 번. 저기 A라는 사람이 저기서 혼자서 계속 일한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사람 보고.

#1 아, 저 사람 호락질 하네. 그러.

@ 아, 호락질 하네.

#1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호락. 혼자 하니까 호락. 호락질 한다 그러.

@ 그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1 아니 그 사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 외야치라고 하는 말도? 혹시?

#1 예. 외야치가 있지요.

@ 그게 뭐예요?

#1 외야치가 무어나면 염부들이. 염부들이 거기서 소금내기 위해서 흙도 말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여. 그러면은 그 외야치를 어따 파냐면은 벗 가까이다 파놔요. 파 놓으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물이 고이지요? 그 물을 이용해서 신발 닦고 하는 게 그게 외야치여.

@ 아, 그러니까 벗 가까이에 웅덩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물이 갇히나요?

#1 아니요. 일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바닷물이 고이니까 그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거여.

@ 따로 일 다 한 뒤에. 그런 구덩이가.

#1 외야치지요.

@ 그 구덩이도 종류에 따라서 이런 버긱이 있고.

#1 그렇지요. 버긱은 아주 소금 만들라고 좋은 물을 붓는 데가 버긱이고 이진 외야치는 손 발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 아, 그때는. 논 할 때는. 혹시 가마에 불 때는걸 보고 낮에 불 땄 때 하는 말과 밤에 불 땄 때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밤에 하는 건 뭐 밤가마 낮가마 이런 말도 하시나요?

#1 있지요. 낮에 하면은 낮가마. 간쟁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자네는 낮가마 때. 그럼 낮에 때는 거고. 자네는 밤가마 때. 그럼 그 사람. 저 사람은 밤가마 때고 그러는 거예요.

@ 근데 왜 이렇게 낮에 안하고 꼭 밤에?

#1 아녀. 시간이 없으니까 주야로 해야 되지. 주야로 일을 해야 되니까.

@ 예. 그래서 인제 밤에 할 때도 있고 낮에 할 때도 있고. 그럼 아까 간통을 함수 통이라고도 하나요?

#1 함수통이라고 하지요.

@ 간통하고 함수통. 간수통 이라고도 하나요?

#1 간수통 이라고는 않지요.

@ 그러니까 염수 그 찌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혹시 염도가 좀 낮으면 그 다시 물을 이렇게 더 붓기도 하나요?

#1 더 붓는 게 덧물 붓는다 그러죠.

@ 그 덧물 주다도 쓰시나요? 덧물 붓는다?

#1 붓는다도 하고 덧물 주다도 하고 그렇지요. 간장이들은 대부분이 덧물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개인들은 덧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 여기서는 간수를 갠수. 이런 말은 안하시죠?

#1 갠수는 소금에서 쏟아진 것을 보고 갠수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 없으면 두부를 못했지요.

@ 갠수 깊다. 이런 말도 쓰세요? 갠수 깊다.

#1 깊다는 얇고. 깊다는 얇고 간수가 강하다고 얘기하지요.

@ 간수가 강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1 간수가 그냥 강하다 그러지. 워뎅게 얘기를 하느냐 저 두부 할 때 많이 넣어도 부두가 잘 안 될 때는 약하고 간수가 조금 넣어도 금방 될 때는 간수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못 하지요.

@ 그다음에 혹시 소금발선다 이런 말도 쓰세요? 소금발이 선다. 소금이 이렇게 각으로 만들어 질 때를 소금발 선다.

#1 그게 소금꽃 핀다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 같은 거예요? 혹시 소금 누룽지도 있나요?

#1 소금 누룽지 있지요.

@ 그거는 어제 다시 물에 넣어서 녹여서 다시 쓴다고.

#1 그렇게 해서.

@ 그거 색깔이 누래서.

#1 아니여.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이 이런 솔서 밥에서 밥 이렇게 눌러지듯 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해야면서 그냥 늘어붙는 거여.

@ 그거는 인제 그렇게 늘어붙으면 혹시 밥 타면 탄내난다고 그러는데 소금도 타면 탄내 나나요?

#1 안 나요.

@ 안 나요? 탄내 없어요?

#1 예.

1.2. 정낙추의 발화

@ 선생님 다시 주소랑 연세 좀 말씀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 정낙추, 오십팔세구요, 주소는 충남 태안군 수원면 모항리 모항 파도로 111 전화번호는 672국에 9544입니다.

@ 거기 곱고 계시면 돼요. 그럼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자염을 왜 하게 되셨는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 아 자염을 하게 된 것은요. 이지역이 태안 지역은 옛날부터 그 자염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고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리적 특성상 태안은 갯벌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그런 그 지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후 조건도 그 자염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자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이 그전엔 잘 모르겠구요. 조선시대 에 부터 이 지역에서 자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버지도 자염업에 종사했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동네에서 자염 만드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자염 끓이는 가마솥에 계를 잡아서 이렇게 익혀서 먹은 그런 기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오십년 천구백오십년 한 오십오 우리 동네는 오십 삼년도까진 만들었을 거예요. 천구백오십오 삼년도 그 뒤로 인제 자염이 없어졌죠. 아.

@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그 연세가, 지금.

#2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 자염을 재현사업을 할 때 계셔서 그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돌아가셨구요.

@ 고 때 인터뷰 하실 때 연세가 몇 년도에 몇 세.

#2 한 팔십 오 세 정도 됐었죠?

@ 몇 년 생이시죠?

#2 글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가 쓴 논문에 보면은 거기 다 있습니다.

@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2 정천영 정 천자 영자구요.

@ 그러면 아버님이 자염업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직접 소금 만드는 일을.

#2 소금 만드는 일이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님 뿐만 아니라 이 태안에서도 갯벌을 낀 동네에서는 모두 자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천구백 구 년도가 몇 년도에 그 제 논문에는 자세하게 있지만 제가 쓴 글에는 그 때 그 수산 지 리지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자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 그 조선 공계 대한 제국 초기 조선 말 고 고기록이겠죠, 아마? 음 그 기록에 보면 경기도가 켈 소금 생산 량이 많았고 두 번째 전라도 세 번째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그렇게 됐습니다. 대개 인 제 그걸 보면은 동해안은 갯벌이 없으니까 거기도 자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령게 활발하진 못했죠. 그래서 그 때 보면은 충청도에서는 이 태안이 충청도 생산량의 67%론가 얼마를 어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안이 그 때 시절에는 거의 갯벌이 있는 어촌 지역에서는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자염을 끓여서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보면 이 태안군에 에 만리포 제가 그 만리포 옆에 모항리에서 사는데 모항리에서 북쪽 으로 원북면 이원면 쪽에는 그 자염을 생산하면은 그 소금을 배에 싣고 어디로 가느냐 면은 임진강을 건너서 마포 성계나루로 갔구요. 그 모항리에서 아래쪽으로 안면도 쪽 으로 지금 지들이 에 자염 재현 사업을 했던 그능면 마금리 낭금갯벌도 포함됐지만 은 그쪽에서는 어, 자염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국 저 어딴니까 거기가 강경 강경 포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태안지역에 인제 토호들 부자들을 보면은 거의다 가 이쪽은 농토가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부자들을 보면은 그 자염사업을 했던 분들입 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의 재밌는 것이 태안 제 그 부자들은 태안 읍내에서 사는데 그 읍내 부자들이 그 뭐 할머니 증조할머니 외가를 보면은 저 원북 원북면 그런 쪽에서 자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그쪽이 외가고 또 아니면은 근흥이나 이쪽에가 그러니까 아 부자들이 그 자염 만드는 갯벌이 말하자면 공장이죠. 그 공장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책임자를 그러다보면 왕래가 되고 하니까 혼인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 든 태안은 어 자염을 만드는 최적의 고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 그니까 이제 뭐 지금 어르신 살고 있는 곳도 그렇지만 거기 낭금리 자체가 어 자염만들기에 가 장 좀 좋은 곳이어서 그 때부터 계속 사신 거예요? 아버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2 그렇니까 우리가 제가 사는 모항은 그 마금리 낭금리하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태안에서 자염을 가장 많이 만든 갯벌은 낭금이 아니에요. 에비지고 막은 에비지고 만 천수만이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공갯벌의 형태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 왜냐면 조 금사리 때 조금 때 칠일 이상 갯벌이 햇볕에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 방송에선 씨디를 보면 그게 자세히 물때하고 잘 만들었는데요. 아. 조금 칠일 동안에 갯벌이 햇빛 햇벌 에 드러나서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인제 오일 쯤 되면 구두를 싣고 들어가도 빠지지 아네요. 마당처럼 그런 갯벌에서만 자염을 만들 수 있어요.

@ 그 갯벌이 이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2 제일 좋은 곳이 천수만이었죠. 제일 많았죠. 천수만 모항리 앞에 갯벌 의항 원복이 했던 태안군의 그 해안선 중에서 갯벌 있는 모든 지역은 어 그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광범위 했던 데가 천수만이죠. 거기가 이제 예비지구로 막혀서 논으로 바꿨죠.

@ 그러면 지금 어르신은 자염이라고 말씀 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화렴 이렇게도 말씀 하시는데 명칭은 어떤 것들이 가장..

#2 명칭은 거 이쪽 태안지방에서는 화렴이라고 했어요. 화렴이라고 했는데 지들이 이제 오십년 만에 태안에서 최초로 이 자염을 복원행사를 하면서 명칭을 아 지방에서 부르던 대로 화렴으로 해야하느냐 아니면 자염으로 해야 되느냐에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염이라는 소리는 왕조실록 같은데 보면은 자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니까 자염은 그까 한자언데 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분명 말은 했겠죠. 소금이라고 그런데 소금이라고 한글표기로는 안했겠죠. 한자표기를 하다보니까 자 자가 그게 놈자 밑에 불 불 땀 자거든요. 불 땀 자 끓일 자 그러니까 그 자염이라고 표기가 땀어요. 왕조실록이나 뭐 비변사등록 같은 문헌을 찾아 보면은 이제 입으로는 소금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표기는 한글로 안 쓰니까 자염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문헌상에 있는 화렴 대신 자염으로 하자 아마 여기서 화렴이라고 한 것은 불 화 자를 생각해가지고 불을 떼서 만든다 해서 촌사람들이 화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문헌에 보니까 경기도 쪽에 백화염이라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염 궁계 불 떼서 하얀 소금 만들었다 뭐 그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아마 문헌상에는 자염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자염으로

@ 그래도 이 동네 이 지역에서는 화렴이..

#2 지금도 화렴이라고 노인네들은 지금도 화렴이라고 그래요.

@ 그러면 이 자염을 만드는 데 그 동원되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담을 하죠?

#2 제가 쓴 글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염은 자염도 옛날엔 가난한 사람은 못만 들었어요. 그까 옛날에는 농촌에도 소가 소를 기른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부자 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궁까 자기 농토가 논도 스무마지기 정도 있는 사람이 소를 길렀어요. 그런데 자염을 만들 때는 소가 꼭 필요한데 결국엔 그 갯벌 근처에 있는 뭐 밭이

나 쪽에다 움막을 세워야 되죠. 솔을 끓이는 솔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 솔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옛날에 지금같이 제철소에서 전부 쇠도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드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런 도구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소두 없고 그니까 그게 보면 재밌어요. 저 여기 글에 보면 있는데 그 각 지역마다 자염을 만드는 방법은 태안지역은 비슷하거든요? 갯벌 흙의 죽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때 말려가지구 그것을 인제 에 말하자만 바닷물을 말린 갯벌에 바닷물을 투과시키면은 그 함수 즉 소금물이 이제 염도가 높아지겠죠. 그 높아지는 것을 그걸 갖다 끓이면 이제 자염인데요. 그 끓이는 과정에서 솔이라던가 소라던가 그런 도구를 가난한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하는데 에 그래서 그 자염을 만드는데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제 각자 제각기 할 일들이 뭐냐면 이제 에 염벗주라고 해서 벗주라고 하는데 그 염벗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염을 끓일 수 있는 움막 움막을 인제 벗이라고 하죠. 벗 염벗이라고도 하고 벗이라고도 하는데 그 벗의 임자 벗임자라고도 하고 벗주라고도 하지 주 자가 뭐 뭐 주인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제 그 염벗주 벗주는 움막을 세우고 끓일 수 있는 솔을 준비하죠. 그리고 소도 이제 한마리 두마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인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거죠. 사장. 사장. 그담에 염안 염한이라고 있어요. 한자가 알다시피 노마나 노마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소금굽는 사람을 아주 하대하고 천시한 거 같더라고 그까 염한이가 염한이가 이제 음 염한이는 제각기 그 염번 밑에서 제각기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드는 그 여기서은 그걸 보고 인제 저기 통조금이라고 하는데 소금물을 만드는 웅덩이를 자기가 두 개나 세 개를 만들어요. 자기 갯벌에서 인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염벗주의 소 도구를 빌려서 흙을 말려서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인제 소금물을 만들죠. 뭐 식구가 많으면 네 개 다섯개도 만들 수 있고 통자락을 이제 관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또 들어가면 설명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식구가 많고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네개도 만들고 다섯개도 만들고 혼자 하는 사람은 한 두 개 정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소금물을 만들면은 간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쟁이란 사람은 그 만든 소금물을 갯벌에서 움막까지 물지게로 지어다가 끓여서 소금까지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간쟁이는 간쟁이는 그 통짜라 소금물을 만드는 갯벌 웅덩이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염벗 하나에 적어도 그 소금물을 만드는 웅덩이 여기서은 동자락이라고 하는데 그 통자락이 한 삼십 개 까지를 이제 보유했죠. 그러면은 네 개씩 한다고 보면은 염한이가 한 열 명 되기도 하 염한이 하나에 네 개 세 개 한다고 하면 한 열 다섯명이 나 그렇게도 됐겠죠?

@ 한 개 그 염한이 한 사람에 딸리는.

#2 두 두세 개를 했죠. 식구가 많으면 넷 다섯도 했다구요.

@ 그러면 이제 염한이 한사람이 통자락을 한 네 개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2 그 염벗 하나에 그 통자락이 한 서른 개 정도 많은데는 마흔 개 까지 보유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간쟁이가 서른개의 통자락에서 만드는 소금물을 전부 물지게로 지어다가 끓여까지 주는 거예요. 끓여까지 끓여까지 줘서 그 거기서 수고비를 받는 거지요. 간쟁이는 통자락을 한 개 정도는 만 또 부지런한 사람은 만들었다고 해요. 한개나 두개정도 그러고 염벗주는 그 소금을 끓일 수 있는 도구 가 마술이나 움막같은 거를 다 빌려주고 인제 거기서 말하자면 세를 받는거죠. 그런데 그 염벗주도 두세개는 통자락을 가졌대요. 그러면은 염한이들이 각자의 그 소금물을 만드는 것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염한이들이랑 품앗이는 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를들어서 세 개 이상 세 개 통자락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소금은 그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산된 소금에서 염벗주를 얼마 주고 물을 옮긴 간쟁이를 얼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죠.

@ 그러면 비율을 따진다면 이제 벗주가 뭐 한 몇 퍼센트.

#2 그런데 이게요. 상당히 우리 동네에 이게 모항리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게 2002년도 쓴 글인데 다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음 아주 음 아주 잘 나눴드라구요. 분배를 아 요기 보면은 제가 요기 조금 읽겠습니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자염 한섬 그러니까 한 열 말이죠. 말로 육십킬로는 쌀 한 말이었다. 대부분 소작농인 염한이들에게는 소작농을 하는 것보다 소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소득이 많았다. 소작논 한마지기 이백평을 경작하면 쌀이 두가마 정도 생산되는데 한 가마를 지주에게 주고 한가마는 소작인의 몫이었다. 열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일 년에 쌀 열가마를 차지하게 되는데 잦은 가뭄에 농사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지만 소작논을 얻는 것도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 생산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해보면 소금 생산이 태안 지방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 생산된 소금은 염벗마다 염벗은 아까 그 움막이입니다. 염벗마다 아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솔모루 염벗 솔모루 염벗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애깁니다. 태안군 수월면 모항리의 옛 염벗 이름이 솔모루였습니다. 솔모루 염벗의 경우 염한이는 육십칠점 오프로 염한이 아까 말씀 했죠. 염한이는 각자의 소금 웅덩이를 갖고 음 자기가 그 소금물을 만드는 사람 염벗주는 이십 오프로 간쟁이는 7%로 비율로 분배했는데 이는 한 가마에서 그 소금 만드는 불때는 가마솔 애깁니다. 한 가마에서 일회 생산되는 소금이 약 네 섬 그니까 이백사십킬로 었을 때 염한이가 이십칠 두 스물 일곱 말 염벗주가 열말 간쟁이가 세 말 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매년 가마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이 일정하지 않

때문에 소금을 생산할 때 마다 이 비율로 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간쟁이가 소금물을 날라 주고 소금 한 가마에서 한 번 불을 지펴서 소금을 생산할 때 소금을 세 말 씩 가졌다면 엄청 적은 거 같은데요. 가 염 간쟁이는 그 삼십 개의 그 통자락에서 생산된 물을 다 지어다 두고 끓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대략 보면 이 분배가 그렇게 그 염벗주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나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 때 일하신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염벗주를 그 부자죠. 그 동네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회사 사장, 회장 그런 노든데 그분들을 욕하는 걸 못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평 정 공명정대하게 요런 것도 나뉘더라고요. 그러니 옛사람이 지금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애. 말하자면 양극화가 없는 거지.

@ 그러면은 염한이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한이.

#2 그렇지는 않아요.

@ 그 사람을 이르는 말을 따로 뭐 염한이 혹시 그 대간 화주라고 하는게 벗임자가 맨 화주예요? 염벗주.

#2 그렇죠. 벗임자죠. 벗주로 하여 화임자라고 그 전라도 쪽인 여쪽에서는 염한이 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염벗 하나에 염한이들이 자기 소유의 통자락을 네 개 다섯 개씩 가진 사람들이 일고 여덟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남의 통솔하고 소속되지 않았죠. 그 염벗의 도구를 사용하고 제각기 그 통자락을 일궈 가지고 거기를 사용해서 소금을 만들고 소금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도 안 받죠. 나만 부지런하면은 통자락을 더 만들 수 있죠.

@ 따로 대장은 없다 이거네요.

#2 네 다만 염벗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있었다고 해요. 그 똑같이 일하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염벗주 입장에서는 소금 생산이 많아야 자기가 그 세를 빌려주는 샅을 많이 받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소금물의 염도가 갯벌 흙을 좀 안 말린다던가 뭐 게으름을 피워서 똑같은 땀감을 뺐는데 소금 생산량이 적었다 하면 물론 그 염한이는 맞는 장본인은 물론 손해겠지만 그 염벗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염벗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 사용 빌려준 사용세를 적게 받으니까 손해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염벗주는 그 오래 보통 정월 보름 쇠고 나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하면 음력으로 시월 쯤이면 끝나는데 다음에 할 사람은 염벗주 입장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염한이로 돌려고 자기 염벗에서 일하는 사람을 돌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게 요즘말로 하

면 스카우트죠.

@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필요한 사람이 이제 소도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 염벳 그 그담에 벗주가 있고 벗주 밑에 염한이 그다음에 간쟁이 근데 그 왜 그 간쟁이라고 붙인 거예요?

#2 글썬 그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 소금물의 농도를 농도를 체크하고 체크하고 물을 어 물지계를 지어다가 불을 떼서 소금을 만드니까 간 그 소금 하면 간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2 아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소금을 만드는 일은 안합니다. 물만 운반해서 불을 떼 주는 일만 합니다.

@ 아 그믐 농도 맞추는 건 염한이가 하나보지요?

#2 아니 이미 농도가 맞춰져서 사리 때가 되면 어떻게 농도를 더 올리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조금이 끝나면 그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낮으면 소금 생산이 적게 되니까 염한이는 조금만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금 생산량이 적으니까 자기가 손해죠. 다만 인제 간쟁이도 조금 손해나는 게 소금이 덜 생산되는 소금물을 갖다가 불을 떼는 수고가 많았죠. 근데 간쟁이가 그 소금 세 말이면 적은 거 같지만 사실은 그 통자락이 서른 개라고 하면은 한 조금 동안에 한 조금 동안에 서른 개에서 서 말씩 하면은 삼삼은 구 구삼 말 아닙니까 자기는 그 흙을 소로 써래질 해서 흙을 말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않고 다 만들어서 물만 만들어주면 운반해서 불만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낮가마 밤가마라고 해서 낮에도 불을 떼고 밤에도 불을 땀습니다. 그니까 그 분배비율을 보면 그렇게 어느 한쪽이 되게 손해난다 그런 건 았더라구요. 그렇진 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역마다 분배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 결국에 이제 일은 그 아까 염벳이 만들어 지려면 나무도 많이 주변에 있어야 돼.

#2 나무는 염한이는 자기 펠러든 자기가 감당합니다. 그니까 염한이의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염한이가 내가 소금을 만드는 웅덩이를 파서 흙을 말려서 바닷물로 걸러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펠감까지 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염벳주의 움막이고 소금 끓이는 가마솥, 소 같은 것을 빌릴 뿐이죠. 그러는 과정이니까 그 펠감 같은 것도 염한이 뭍입니다 염벳주나 간쟁이 뭍이 아니라.

@ 그럼 거기 떼는 나무들은 주로 어떤 나무들을?

#2 다 뭐 여기서 소나무겠죠. 그러니까 땀감도 이 자염을 생산할 조건에 주변에 이제 아까 얘기한 갯벌의 조건도 있지만 땀감 조건도 좋았죠. 그런데 여기 태안 쪽에는 해송이 아주 엄청 많기 때문에 했는데 옛날에는 산이 그러니까 벌거숭이였답니다. 그 소나무를 어린 소나무를 낫으로 다 베어다가 이제 겨우 내내 그 나무를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쌓아 놓았다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소금을 끓이고 그렇게 했답니다.

@ 그러면 일 년에 이 자염 생산은 몇 번 쯤 대충.

#2 그거는 날씨에 따라서 한 그니까 몇 번이라고 못 하죠. 조금 때 비가 오면 못 하는거죠. 그니까.

@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뉘었을 때.

#2 그런데 겨울은 안하구요. 봄에는 보통 양력으로 따지면 한 사월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사월. 음력으로 이월 정월 사월부터 시작하면은 사월 오월 유월 하고 나면 장마치고 나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팔월 하순에서 구월 시월 해쬐으면은 흠이 안 마르니까.

@ 그럼 여름에는 거의 못하겠네요. 장마가 많이 저서.

#2 그렇죠. 못하죠. 봄에도 흠을 다 말려놨다가 소나기라도 와서 조금 때 소나기라도 와서 젖으면 그것이 안됩니다.

@ 가을에는 이제 한 구월에서 시월.

#2 시월도 안 났을 거예요. 흠이 안 마르니까.

@ 그러니까 햇빛도 좋아야 되고.

#2 조금 때만.

@ 조금 때 햇빛도 안 돼야 되고 해가 좋아야 되고 햇빛이 좋아야 되고 그런 종건 때문에 까다롭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자염을 아까 설비할 때 염벚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염벚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2 뭐 염벚이야 말뚝 박고 이영으로 바람이나 안 들어오게 하고 천정은 둥그렇게 뚫

려서 김이 빠져나가야 하니까 지붕이 없었죠. 다만 그 가마솥에 갑자기 소금을 끓이다 소나기가 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뜸이라는 걸 했죠. 뜸은 지금 말로 하면 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솥을 가리는.

@ 그러면 비가 올 때만.

#2 예 열었다 닫았다 하게 그렇게 장치가 됐죠.

@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안에 솥은 용량이 한 얼마정도 크기.

#2 용량은 기준이 없습니다.

@ 아 크기도 다르나요.

#2 예 크기도 각 염벳마다 틀리고 소규모로 하는 데는 작고 크게 한데 보통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큰 철판을 못하니까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서 늘려가지고 조각보 마냥 조각조각 이어가지고 했으니까 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시다.

@ 그런데 요즘은 솥이 그냥 쇠철판으로 하나요. 가마솥으로 안하고? 그 때 재현하실 때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2 그 쇠를 쇠철판으로 했는데 녹물이 나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끓이는 것은 스텐으로 끓여요.

@ 그다음에 이제 혹시 천일염도 해 보셨나요?

#2 안 해봤지만 우리 천일염은 뭐 우리 동네에서 많이 하니까 잘 알죠.

@ 간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2 간통은 소금물을 허는 건데요. 이걸 말로 설명이 잘 안 될텐데 그 지름이 구미터 지들이 고대로 재현했을 때 구미터 정도였는데요. 어 구미터 정도를 깔때기 형식으로 팝니다. 깊이는 한 이점 이미터 그 둥그렇게 둥그란 형텐데요. 그 원 중심은 한 이미터 정도 이 점 오미터 정도 파구요. 그 안에 말뚝을 박고는 다시 이영을 이영이나 방석같은 걸 두르고 흙으로 빨같은 걸로 맥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맥질하는 것은 흙모를 걸르는 필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그런 통자락 주변에서 마른 흙을 내려로 밀어 넣고 다 이제 함봉을 하고 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말린

갯벌 흙속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여과시켜가지고 그 간통 안으로 물이 고일겁니다. 그러면은 사리가 되면은 그 간통 뚜껑을 물을 계속 퍼내면은 그 깔대기 형식의 지름이 구미터인 그 둥그런 깔대기 형식의 그 마른 흙이 머금고 있던 그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간통 속으로 이렇게 우물 샘물이 고이듯 고입니다. 그걸 계속 퍼다가 끓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자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통자락이라고 그 형태를 통자락이라고 해요.

@ 전체를 통자락이라고 합니까?

#2 예, 통자락이라고.

@ 전 써레하고 간통하고 헛갈려가지고.

#2 간통은 그 네모진 거 간통은 여기 있죠. 이영으로 한 거 저겁니다. 지금 저 덩이질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나중에 이 씨디를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한 것 보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아마.

@ 그다음에 이제.

#2 간단히 끝내죠. 나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 그다음에 이제 재현하는 과정을 좀 조금 상세하게 소를 해가지고 갯벌에서 가지고 와서 사이에 필요한.

#2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갯벌 흙을 써레질해서 일주일동안 말린 다음에 이제 덩이질로 깨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동안 콩가루처럼 말린 흙을 깔대기 형식으로 판 통자락 안에 몰아넣고 그 안에 이제 간통은 이미 있죠. 저렇게. 저 이영에 맥질을 하면 그 마른 갯벌 속에 통과한 시커먼 빨물일 맥질을 진흙을 맥질하면은 그 필터 작용을 해서 맑은 물이 고일거 아닙니까 그 물을 퍼다 하는 건데 그것을 조금 세물 서 부터 일곱물 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물 여섯물 세물 네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물 육일에서 칠일 동안 조금 때 매일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이 주번이고 사리가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겁니다 날씨가 좋았을 경우에

@ 그다음에 갯벌의 흙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나요?

#2 그건.

@ 개흙이라던가 이런 말로.

#2 저 소금 굽는 데서는 특별히 그런 말은.

@ 그다음에 갯물이라던가 이런 용어도 쓰나요? 뭐 개의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

#2 염수라고 했지요. 여기서 염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염수를 함수라고 한자표기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이라고 하고 염수라고 했지요.

@ 그니까 그냥 바닷물이 염수가 아니고 아까.

#2 염도가 높아진 물 말이지요. 염수.

@ 그다음에 벼의 염벚의 단위가 있네요. 하나를 염벚 하나 둘 헤아린다는 한 되 두 되 이렇게 하나요.

#2 아 그냥 염 벼 하나 그러니까 대개 지역 명칭을 붙였죠. 솔모루에 있으면 솔모루 염벚 그 염벚을 염벚 벚임자가 부자여서 염벚을 나란히 두 개 했으면은 뭐 쌍둥이 염 벼 쌍벚이라고 했죠. 두 개를 한다고 쌍벚.

@ 세 개 있다면요?

#2 그건 모르겠어요.

@ 저 집의 벚임자는 뭐 염벚이 몇 개 있어 이렇게 할 때.

#2 세 개라고 하지 뭐.

@ 세 개 있어 네 개 있어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나요 ?

#2 네.

@ 여기는 아까 그 이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을 이렇게 지붕에 염벚에.

#2 나래라고 합니다.

@ 나래. 아까 그 나래는.

#2 그거 미는 나래도 있는데 여기서는 초가지붕을 이르는 그 짚으로 엮은 걸 이영이

라고 하는데 태안에서는 그 말을 나래라고 합니다.

@ 이름이 똑같네요. 그다음에 그 자염을 만들 때 염도가 높은 간수를 그 시설 같은 걸 간수 구덩이.

#2 그게 간통입니다.

@ 염구덩이라고도 말을.

#2 예. 염구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염구덩이라 안하고 간통이라고 합니다.

@ 그다음에 아까 그 벗짚은.

#2 벗짚 안에는 가마솔이 있구요. 옆에는 그 염수를 간쟁이가 나르다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 그 저장고는 밖에서 물을 부으면 염벚 안에서 바가지로 풀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보굿이라고 했어요. 보굿.

@ 버구?

#2 버굿, 버굿. 그러니까 미리 간쟁이가 미리 거기다가 날라다 놔야 밤에도 퍼서 소금을 끓였죠. 그렇게 그 버굿이 그 말하자면 지하에 있는 염소 저장 탱그라고 보면 되요. 근데 그것이 염벚 하나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가 있었죠. 그러면은 고 크기는 간수 참 통자락에서 만든 소금물을 넣을 수 있는 양 그 정도겠죠.

@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우물이 혹시 염부장 이런 말도.

#2 그건 천일염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한이들은 계급이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 그다음에 이제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여놓은 논처럼 만드는 거

#2 그건 천일염이에요.

@ 아 염전.

#2 염전.

@ 이런 거는 천일염에서 나오는 거군요. 혹시 소금이라는 말을 여러가지 여기서 소금 하나 뿐이

예요?

#2 간이라고도 하죠.

@ 이미 저렇게 만든 것을 간이라고 하나요? 소금 자체를.

#2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천일염을 두고 왜렴 왜렴 (왜염) 왜놈들이 만든 소금이라고 친구백 구년인가 칠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최초로 인천 주안에서 천일염이 개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백 조선조 때네요. 기록에 보면은 자염을 만드는 지금 염벚 같은 게 그게 갯벌이 좋은데 집단화 됐을 거 아닙니까 염벚주가 하나가 아니고 한 동네에 다섯이 있으면 그 염벚이 막 일곱 개 여덟 개 짝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은 염벚주는 뭐 두 개 염벚을 움막을 세 개 가진 주인도 있을 테고 부자는 뭐 두 개 가진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조건이 좋은 데가 집단으로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는 이게 말하자면은 전매제도였어요. 아무나 이걸 못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궁궐에서 뭐 세자 책봉이 끝나면은 왕족들이 이걸 소유권을 왕족들이 갖기도 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근데 왕족이 여기 와서 자기가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을 이제 시키는 거지요. 옛날 지주들이 마름이 될 하듯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왕족들만이 소금을 생산해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통제해야 될 대상이었었어요. 소금이 없으면 그 말하자면 정권이 권력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왕조실록 비변사등록 같은 데 보면 흥년이 들면 들수록 소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나무를 삶아 먹으려면은 소금을 없이 안삶으면 각기 병에 더 걸려요. 설사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흥년될수록 암행어사한테 비변사등록에 보면 아무개 지역에서 매점매석을 못하게 상인들이 그러는 걸 잡아들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문건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소금이 없다면 우리 나라는 원래 소금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소금이 이 소금이 생산이 이게 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권력이 왔다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란 상품을 통제하는데 왕족들한테 주는 거죠. 왕족들이 니들 무언가 해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세자 책봉 되면 후궁의 아들들도 있을테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사회가 막 혼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 그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지방의 부자들, 토호들이 염벚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부안에 가장 큰 그 염벚이 있어요. 국가에서 소유하던 그런데 이 안면도가 태안군의 안면도가 그 땅이 안면도 소나 땅이 국가 거예요. 충남 토호예요. 옛날엔 국가 왕실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안면도 소나무는 궁궐 중축이나 배를 짓는 외로는 절대 사용 못하게 되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부안에 소금을 구해야 하는데 펄감이 없으니까 안면도 소나무를 반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거에 대해 그러니까 조정이 조정의 땅

에 소나무를 이렇게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지 천일염이 생기는 거죠. 천일염이 생기고 그 이후로도 일제 강점기에도 천일염이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에 좋은 갯벌에? 천일염이 생기는데 염전이 천일 염전이 그런데 천일 염전이 생겼어도 개인이 못했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국가 전매 제도였어요. 지금 담배를 전매청에서 하듯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삼년동안 미군이 미군정 하에 있을때도 그게 전매제도 였는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그 전매제도가 풀렸어요. 풀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토호나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갯벌에 염전을 만들죠. 간척사업을 해서 논처럼 염전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자염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이렇게 만들기가 아까 설명한대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천일염을 만드니까 천일염은 햇빛에 증발하니까 간단하지요. 그리고 자염을 만들 수 있는 갯벌에 천일염전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바닷물이 제방 쌓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매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개인한테 천일염전을 만들어서 조금 만들 수 있는 허가를 주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조수간만차가 많은 갯벌에 염전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자염이 쇠퇴해서 천구백 오십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추죠. 그것을 우리들이 오십년만에 처음으로 재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현하게 된 동기는 우리 태안에 몇몇 분들이 태안의 그 전통 생활문화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태안은 특별히 유적같은 것도 없고 생활문화나 우리가 해보자 해서 찾은 아이템이 바로 자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염을 찾으러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칠일동안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조금 갯벌을 찾으러 오년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낭금에 있는 데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 갯벌을 가봤어요. 그런데 사리 때만 갔기 때문에 조금 때 칠일 동안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줄을 몰랐어요 조금 때 그 때 바빠서 못가고 그래도 두 번 갔는데도 자염을 만들 수 없는 갯벌인 줄 알았는데 마침 우리하고 같이 활동하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 자염의 역사를 설명하니까 어느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했다고 거기가 만드는 갯벌이라고 해서 어 설날 아침에 그 선생님이 전화해서 제가 차례지내고 갔더니 마침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서 하니까 여기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재현사업을 할 때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오십년 전에 그 간통이라고 이거 만든 말뚝이 빨갭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 그런데 저 갯벌도 사실 천구백육십 팔년도에 막은 거예요. 그 밑에서 간척사업을 했는데 그때 밀가루 사업으로 미국에서 원조를 줘서 막았는지 어쨌는지 그 사업주가 밀가루를 너무 도둑질해서 빼먹은 거야 그래서 허술하게 막아서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 갯벌이 남은 거예요. 충남도에 충청남도 우리가 다갔어요. 서천 광천까지 다 홍성까지 조금 때 칠일동안 물이 안 들어오는 갯벌이 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전국을 다 뒤져봐도 그런 양질의 갯벌이 없을 거예요.

@ 그럼 이따가 오후에 가면 저기 물 들어왔겠네요?

#2 오늘이 며칠이죠? 조금인가 사린가? 하여튼 조금 칠일 동안 뽕송뽕송해야 돼요. 갯벌이.

@ 달력 하나 칠월 달 거 하나.

#2 아 오늘 백중하리여서 안돼 물들어왔어 지금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지들이 처음에는 사비를 한 오백만원씩을 모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하다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 매일 아침에 모셔다 놓고 막걸리에 밥 식당에서 밥 대주다보면 옛날 방식대로 갯벌 가서 재현을 시키는데 그분들도 이미 오십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거야 노인들이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그걸 조정하고 해서 재현을 시켰어 무려 두 달 동안에 노인네들을 그 양지쪽에 앉혀 놓고 술을 맥여 가며 전부 해서 그것을 한 자료가 이겁니다.

@ 그 때 어르신들 성함 같은 거.

#2 여 뒤에 다 있어요.

@ 그러면 그 뱃짐에 지붕을 혹시 뭐라고.

#2 지붕 같은 거 없었어.

@ 지붕은 없고 지붕 이 아까 뚫려졌다고.

#2 김이 빠져야 되니까 지붕이 뚫려야지.

@ 혹시 옷집이나 이런 용어는.

#2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요. 이 지 자염을 만드는 게 아마 여기서 섯등 얘기도 들어왔을 거예요. 섯등은 또 틀려요. 만드는 방법이 그니까 지역마다 다 이름이 틀리고 제가 얘기 하는 건 태안 지방입니다. 그런데 섯등 같은 것은 태안 지방보다 훨씬 그 덜 발전된 형태의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아까 술을 갖다가 가마솥을 철판으로 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2 그건 조선시대겠죠. 그 전에는 토 토가마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허더라고.

@ 아 토가마고 그다음에 재현하신 원래 어른들이 했던 건 그분들은.

#2 그분들은 솔이 새로 했는데요. 대장간에서 쇠를 두들겨서 이렇게 그 옛날 상보를 조각 상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요. 두들겨서 잇는거예요. 그런데 용접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용접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덧붙여 잇고 여 구멍을 뚫어서 쇠뭇으로 조여요. 쇠뭇을 쓰고 여기 물이 썰 거 아닙니까? 거기는 굴껍질을 태운 석회가루로 메웁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 가마는 네모지나요?

#2 네모지게도 하고 했는데 대개 네모지는 네모지게 많이 했는데 네모진 것이 그 옆 벗 안에서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네모지게 만들었나봐요.

@ 그래서 철판이라고도 하는가보죠?

#2 예 철판이라 하고 솔이라 하죠. 가마라고 솔이라도 앓고 가마 가마.

@ 그다음에 이제 그 가마를 이렇게 반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2 뭐 부담이라고 하죠. 부뚜막 같은 거죠. 부담.

@ 부담? 부담에다가 건다 이거죠?

#2 부담 쌓는다 하죠. 부담 쌓는 위에 가마를.

@ 부담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2 그 돌하고 흙으로 쌓는거죠.

@ 돌하고 진흙으로.

#2 그렇죠. 진흙으로.

@ 그러면 이제 그 부담에다가 솔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걸 무엇이라고 해요?

#2 그냥 건다고 하죠. 뭐 가마를 건다 가마를 솔이라 소린 안하고 가마로 통해요. 가마 그니까 한 번 소금을 끓였을 때 한 가마 불을 땀다 한 가마 땀다 그러지요.

@ 그러면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걸 아궁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2 그 뭐 아궁이죠.

@ 부석이라던가. 부엌이라던가.

#2 그런 건 안 해.

@ 아궁이.

#2 여기에서는 옛날에 흙집에서 가, 살 때 구, 여기는 그 아궁이에 태안토박이말은 구락쟁이라 그랬어요, 구락쟁이. 그런데 그냥 대게 그, 소금끓이는 그, 가마에 아궁이가 아궁이뿐만 아니라 온돌방에 불때는 그 부엌의 아궁이를 구락쟁이라고 많이 했죠.

@ 그럼 그것도 구락쟁이라고 했겠네요?

#2 글썸, 글썸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그다음에 거기에 굴뚝을 세우나요?

#2 그렇죠, 굴뚝세우죠.

@ 그 굴뚝을 뭐라 그러죠?

#2 그건 굴뚝이죠.

#2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호락질이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 소금구울 때만 쓰는 말이라 폼앗이로 앓고 혼자하는 일을 호락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염환이 중에서 식구가 없고 폼앗이에 혈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 흙을 말리는 작업을 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보고 그런 염환이 보구 아무개는 호락질로그 저기.

@ 염환이가 주로 하는 일이?

#2 염환이가 그 모든 일을 다허죠.

@ 호락질을 하기도 하고?

#2 혼자 있을 때는 폼앗이를 못하고 혼자하는 일을 호락질이라 그러죠.

@ 그 다음에 소금이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결정체라 그래요?

#2 소금이 온다 그러죠. 소금이 온다고.

@ 소금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소금이 온다?

#2 온다고.

@ 혹시 갈고리 같은 물꼬를 막혔을 때

#2 그런 건 없었어요.

@ 혹시 바닷물을 갯물이라 하나요?

#2 그렇죠, 갯물이라고 많이 하죠. 여기선 바다를 개라고 하니까. 근데 개라고 하는 것은

@ 바다를 개가 아니라 바다의 갯펄이 있는 데를 개라고?

#2 그렇게 개간다고 그래요. 개개간다는 소리는 바다를 간닷 소린데 보통 갯벌이 있는 바다를 개간다 하고 그러죠. 갯벌이 있는 마을 바다를 일러서 개라 그러죠. 개, 갯마을, 뭐 갯바다,

@ 거기에 있는 흙을.

#2 다 흙이라고 했죠..

@ 혹시 염도가 25% 이하인 소금물을 따로 이르는 말이 있나요?

#2 모르겠어요. 그건 천일염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질문지가.

@ 뒷물, 진물.

#2 그언 천일염 얘기여 천일염전에서 나온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 사리 즈음 때 사리가 가까워 오는 때를 이르는 말이 있나요?

#2 사리 때라 그러죠. 사리 때.

@ 여기는 간수는 안하나요?

#2 그러니까 간수를 여기 사람들은 소금물을 간수라고도 통영도 하는데 사실천일염을 천일염에서 흘러내린 물이 간수거든요. 근데 그 간수의 성분이 저기 마그네슘하고 칼륨이거든요. 되게 짜고 쓴거 그 여기서 간수를 갠수라고 그렇게 호칭하긴 하는데

@ 자염에는 필요하지 않네요. 그죠?

#2 옛날 어른들은 소금물 자체를 간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간수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쓰였죠. 소금에서 흘러내린 물을 간수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자염을 끓이는 물을 이제 한자로는 함수라 그러잖아요. 풀어썼으면 소금말인데 태안 사람들은 걸 갠수라 그랬어요. 간쟁이가 갠수로 저 날랐다 그것은 함수를 저날렸다 소금물을 저날렸다 하고 같이 통용됐죠.

@ 혹시 가마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잘 안 맞을 때 다시 물을 넣기도 하나요?

#2 소금물이 소금물이 염도가 높을수록 좋죠. 땀감이 적게 들고 소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염이 그걸 더 밑으로 염도를 낮 높 낮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붓진 않죠. 다만 끓이면서 소금을 이 불 불달인 철판에 덧물을 붓죠. 덧물을 붓으면은 그러니까 밥할 때 덧물 붓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 덧물은.

#2 이왕이 똑같은 땀감인데 쇠가 열을 받았으니까 덧물을 붓으면은 땀감을 절약하고 그 가마안에 있는 소금 생산량이 많을 꺼 아니에요. 그 물을 덧물이라 그러죠.

@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다 붓는걸 가지고?

#2 예. 그러니까 염도가 낮아서 넣는 게 아니라 어 덧물을 부어서 소금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한 거죠.

#2 거의 다 됐죠?

@ 그 다음에 거품 같은 것이 생기나요?

#2 끓일 때 거품이 생기죠, 당연히.

@ 거품을 여기서는 뭐라 하나요?

#2 거품이라 그러죠, 뭉. 거름이라 그러죠.

@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2 소금발이 쓴다 그러죠. 소금발 소금발이 온다 소금발이 선다 뭉 그렇게 했지.

@ 소금에서 물기를 빼는 거를?

#2 간수 뺀다 그러죠.

@ 다해 놓고도 간수 빼는 작업을 해야하나요?

#2 아이 그러면 거 물 속에서 건지니까 소금이 그렇게 놔두면 거 섬에다 담어 놓면 간수가 흘러내리죠. 그럼 소금이 해야지죠 천일염도 마찮가지예요. 간수를 빼야되요.

@ 간수는 언제쯤 빼나요? 빼는 시기가 있나요?

#2 아유 담아 놓면 저절로 빠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빼는게 아니라 지금 천일염도 그래요.

@ 그럼 그 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따로?

#2 예 웅덩이를 파놓고여 고것을 인제고기다 쪼끄마한 웅덩이를 파놓고 단지 같은 걸 놓은 다음에 걸로 흘러내리게 해서 두부할 때 그걸 갖다 간수로 두부했죠. 파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두부를 두부를 해먹을 때 그 간수를 퍼다 두부를 했죠.

@ 바닷물에 떨어지는 돌가루 같은 건?

@ 식념, 화렴 이렇게 하는 게 식념은 뭐예요?

#2 아이 식념은 현대적인 말 아니예요. 식념 먹는다 소리.

#2 그 때는 말 안했어요?

#2 그런 소린 그 때 없었죠.

@ 화렴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저게 원래인거예요? 다시 제조를 해서 저런 거예요?

#2 끓는 데서 건지어서 간수를 빼면 저렇게 하얗게 됩니다.

@ 굽기도 저런가요?

#2 끓는 데서 건지면 저렇게 되요. 천일염이 굽지 원래 입자가 저렇게 나옵니다.

@ 다시 간게 아니고?

@ 식염이라는 건 현대적으로 만들 소리에요.

@ 그렇게 만들었는데 먹을 수 없는 소금도 있나요?

#2 먹을 수 없는 소금 거 소금을.

@ 지나치게 거칠다던지.

#2 아니 그런건 없고 소금을 끓이고 나면 솥에 누룽지마냥 늘어붙은 그걸 굽으면 누르스름하죠. 거 소금 누른게 누룽지라고 하는데 건 좀 탄내가 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거 소금값이 비싸니까. 그 소금 만드는 분들은 그런 건 녹여가지고 배추도 저리고 그렇게 먹었다고 험디다.

@ 그거 이름이 따로 없나요? 늘어서 그렇게 된 소금.

#2 뭐 소금 높은 거라고.

@ 상염 뭐 이런 것도 하나요?

#2 그런 건 뭐 모르겠어요. 저 천일염 만든 데서 나온 말인지 특별히 그런 얘긴 못들어 봤어요.

@ 자연 자체가 사람을 그.

#2. 그러니까 이렇게 광활한 갯벌이 있으면은 조금 때 요기까지 들어오는 조금 때 왔다 갔다 사리라는 것은 아홉매. 오늘이 백중 사리거든요.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게 사리거든요? 조금은 조금 들어왔다 조금 빠지고. 고 7일 동안 갯

벌이 드러나가지고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구두신고 가도 흙이 하나 안 물을 정도가 되어 썩래질을 거기서 한 5일을 하면 갯벌이 이 콩가루 같아져. 그럼 그 콩가루 같은 갯벌이 그 과정에서 그 유기물이 광분해 되어서 올라오고 중금속은 축축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흙을 모아서 바닷물로 거르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통자락에 걸렸는데 우리도 이 사업을 접으려고 했어요. 도저히 옛날 방식으로는 안 맞더라고 내가 어느 날 역으로 생각했죠. 아, 갯벌흙에 바닷물을 붓는다면 바닷물에 갯벌 흙을 담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니깐 전통 자염하고 모든 성분이 합일치가 되더라고요.

3. 자염의 제염 도구

@ 그럼 이거는 소금 만드는 도구니까 어르신은 이거를 전공하신 것 같은데. 배는 둘째 치고. 아까 했는 것 중에서 명칭 말씀해주요.

#1 이건 가래고.

@ 아, 일번은 가래.

#1 이거 그려놓기를 잘못 그려놨네.

@ 그래요? 이거가 가래 일번 가래. 이거는요?

#1 쟁기요.

@ 쟁기. 예.

#1 이거는 뜰치는 거.

@ 이게 나래.

#1 아니여. 이게 뜰. 뜰이여. 뜰.

@ 뜰이예요? 뜰은 그 아까 그 지붕 말씀하시는.

#1 비올 때 쓰는. 키구서 소금 굽는 거예요.

@ 뜬이예요?

#1 예.

@ 여기는 이게 머 나래라고 하던데?

#1 나래?

@ 예.

#1 아, 나래다. 여기가 밑에가 나무판이 있으니까.

@ 아, 아까 뜬은 나무판이 없고 맹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나 봐요? 뜬이랑?

#1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게끔 하니까.

@ 예. 그러니까 나무판이 없으면은 뜬이 되는 비슷하네요? 모양이? 요거는 뭐예요?

#1 이건 나래. 저 쓰레죠.

@ 요거는? 그것도 쓰레인가요?

#1 이거는 죽판을 이렇게 그렸나.

@ 죽판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1 이게. 이제.

@ 땡이?

#1 저 소금 파낼 때.

@ 음. 소금 파낼 때. 이거는?

#1 그건 빗자루지요.

@ 빗자루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1 빗자루는 청소할 때 쓰는 것 아니여.

@ 아니. 어르신 소금 만들 때. 뭐 필요하거나.

#1 아냐 아냐. 그게 아니고.

@ 이거는 뭐예요?

#1 바구니구면. 이게 뭐하는데 바구니가 필요한가?

@ 필요한가요? 여기 이게 지금 소금 만들 때 필요한 건데? 소쿠리. 이걸 바구니라고 하세요? 소쿠리는?

#1 소쿠리라고 해야 원칙이여 이게.

@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게 인제. 털.

#1 이게이게. 털을 만드는 거여. 털이라고 하는 것을.

@ 털은 둥글게 아까 원박에 위에만 잘라내고 하시는 건데 이걸 뭐 두레박이라고.

#1 두레박. 이게 두레박이지. 눈에 물 푸는 거지 쉽게.

@ 이거는 여기 소금 만들 때는? 안 쓰나요?

#1 이걸 안혀.

@ 이게 아까. 그.

#1 물통이죠. 이게.

@ 물통 그 물지게에 해서 하는 거 이거는?

#1 이것도 물통이여.

@ 독인데? 또 이거는 뭐 이렇게.

#1 이걸 저 염전에도 이저 자염에도 해당이 안되는거여.

@ 자염하는데는 없어요?

#1 예.

@ 그다음에 이거는?

#1 그건 뭐하는 것이 난 모르것네. 그건 뭐하는 것이여.

@ 뭐 되박같은 건데 한 말 두 말 하는.

#1 아, 소금을 되서 파는 것이구만.

@ 예. 그때는 뭐 사각으로.

#1 사각으로 만들었지.

@ 이렇게 둥근 것은 안상. 맹 이것도 말, 한 말로 하는가 봐요. 이거는? 아까 불 짚 안으로 할 때.

#1 부지땡이.

@ 이거는?

#1 그건 뭐여. 이거. 이게.

@ 밀개? 미는 거 이렇게 소금 아까 이쪽으로 가마에서 모을 때 미는 것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예요?

#1 이게. 이게. 그, 그런 것이야. 있도 않은 것을 다 그려 놓고선 어찌된 게.

@ 그래요? 이게 그때 했다는 건데. 조선시대 때 했던 거라는데. 이걸 뭐예요?

#1 소쿠리지요..

@ 이게 삼태기 아니예요.?

#1 삼태기. 소쿠리.

@ 이렇게 등글게 된 거는. 이거는?

#1 고무레.

@ 이런 거 뭐 아까 대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거? 칼같은 거 머 굵을 때 사용하는 거.

#1 아니. 이런 건 하나 사용 안 해요.

@ 이게 그 때 할아버지네 했던 그거죠?

#1 예. 그거죠. 예.

@ 이게 인제 아까 등근.

#1 예. 이게 이견 안 털 바깥 털.

@ 이게 인제 통자락.

#1 예.

@ 여기가 인제 물이 인제 이 갯빨인가? 여기 이게 말씀해 주세요, 다 만든 거.

#1 다 만든 벗이지요.

@ 여기가 인제 아까 웅덩이 통자락에서 갖다가 저장하는 웅덩이 버긱이라는 데. 이게 그때 했는 사진인가 봐요. 이 책이 그때 물통하고 그죠? 그때 어른 재연 할 때.

#1 이런 건 맞는데.

@ 이거는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까.

#1 이게 저 소금 건져서 여기다 놓았다가 쏘는 거예요.

@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삼태기예요?

#1 이게 삼태기지.

@ 이게 아까 나래. 여기 할배 어느 분 아니예요? 주민? 그때 하신거?

#1 나는 여기가 없슈.

@ 여기 없어요?

#1 여기가 없고. 화부 불때는 데 가 있었슈.

@ 아, 그때 거기가 계셨어. 이게 인제 그.

#1 이게 박는 거지유 이게.

@ 그 다음에 박고 그다음에? 요거는? 짚을 이렇게 덮는 거. 짚을 덮고도 도 이렇게 다 인제 그 때 멀 붙인다고 하셨죠? 그게?

#1 빨.

@ 빨을 갖다 붙이신다고.

#1 예. 가마니나 이불 덮고 모기장이나 또 다시 덮고 빨 붙이는 거예요.

@ 예. 자, 그때. 저는 보니까.

@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어요? 대칼?

#1 대칼이요? 대칼은 염밭 저기 벗자락이서 아니 벗자락 아니다. 염판이서 염판이서 쓰는 것인디.

@ 그거 아까 도구 그거 뭐야 댕이판 말고도 털 하는 거는 뭐하는데 쓰여요?

#1 털. 그게 벗 안에서 벗이 뺨 돌리 있으면 가마가 걸렸쥬. 가마가 있으면 가마에다 물을 떠서 붓는 것이 털이여.

@ 아, 어떻게 만들어요?

#1 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박을 단단하게 박을 세계 열게해서 딱 갈라서 박을 타는 게, 말리는 게 아니라 구녕을 훔파. 구녕을 훔파서 꼭지 있는데는 네모지게 파서하고서 나무를 네모지게 깎아서 거기다 넣어 넣고서 저 짹 꼭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그러면 이제 그 박 안이가 계속 해서 들어갔쥬? 그러면 그 놈을 떠서 웬만큼 파졌으니께 푹 떠서 한 바가지 내면 갖다 가마니에 붓고 그놈이 털이여.

@ 거기서 뭐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1 그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을 붙이면 끈을 달아서 송진으로 맨들었던
그게 그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 그게 대칼이에요?

#1 예.

@ 아까는 대림이라셨는데.

#1 그게 대림이다. 그게 그 대칼이 거기 사용하는 거예요.

@ 후리채는 뭐예요?

#1 후리채? 후리채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비올 때 이렇게 이저 저 짬물 솔 우에다
치는 것인데 솔 우에다.

@ 뜸하고 후리채하고 같은 거예요?

#1 다 같은 똑같은 종류요.

@ 되주걱은 언제?

#1 되주걱? 되주걱은 나무를 이렇게 움파지게 이렇게 세모지게 파서 이렇게 뜰제 인
제 소금이 소금이 저 발이 좋은가 소금이 좀 크고 작은 것을 보느라고 되주걱을.

@ 아 그걸 소금발이라고 해요?

#1 예.

@ 통자락 만드는 것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뭐하기 뭐등등 흠파기 그 다음에 뭐 박기 이런
순서대로.

#1 통자락을 할라면은 흠을 먼저 파내지요.

@ 뭘로 파내셨어요?

#1 사람으로 봤죠.

@ 도구가?

#1 가래. 가래.

@ 파내고 그 다음에.

#1 거렇게 하고선 인제 통자락을 뺑돌리를 먼디가서 아주 짙은 진 아주 빨을 아주 끈적끈적한 빨을 펼을 갖다가 뺑글 다 발라요. 예, 발르야 그 물이 땅 땅속으로 안들어가지. 그래서 그 그냥 발른디를 이렇게 내려가게끔 맨들어졌어요. 통자락으로 내려가게 맨들어졌는디. 왜냐면 그 펼을 다 발르야 돼 뺑글리.

@ 그럼 이제 갈자락 하는 거를 순서를 말해주세요.

#1 흙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라면 쓰레로 이제 갈고 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 대니죠. 서로 갈고 대닌다 그래서 갈자락 이유, 그계.

@ 아, 갈고 다닌다.

#1 예예. 그래서 인제 땡이판이라고 해서 두터운 이다판을 달아서 또 이다판을 달고 다녀서 서는 거.

@ 이다판이 뭐예요?

#1 두꺼운 나무.

@ 판을 이다판이라고 하는거예요?

#1 예예, 그놈을 달고서 거기다 사람이 둘씩 셋씩 올라타요. 그 흙땡이가 다 깨지라고.

@ 인제 땡이는 흙을 깨는 도구는 뭐라고 하셨어요? 땡이 그거.

#1 땡이판.

@ 땡이판으로 흙을 인제.

#1 땡개는 게 아니라 그걸 소에다 달고 다니는 거여.

@ 그 위에 사람이 타고 다니시죠?

#1 예.

@ 그렇게 하는걸 보고 아, 저사람 지금 뭐한다.

#1 땡이탄다.

@ 땡이탄다. 그때는 땡이질한다는 안 쓰세요? 땡이 탄다?

#1 땡이 탄다. 아니 그 사람이 둘 씩 타자나요 둘 씩도 타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타고 그러는데 그 그걸 올라 앉아서 소가 소를 몰면은 뺨뺨 돌아다니면은 땡이가 깨지니까 땡이탄다 그러는 거지.

@ 땡이질 한다라고도 하죠?

#1 땡이질 하는 것은 인제 논파는 것 보고 땡이질 한다고.

@ 아, 이걸 안 하고. 그 간통에 인제 물을 갖다가 가마에 부을 때 어르신 털가지고 붓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털도 혹시 그 바깥털이 있고 안털이 있어요?

#1 바깥털이 있고 안털이 있지요.

@ 어떻게 있어요?

#1 안털은 가마에다 붓는 털을 갖다가 안털이라고 하고요. 바깥털은 간장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떠 내는 것을 보고 바깥털이라고 하지요.

@ 간수통에서 떠내는 것을 바깥털이라. 비슷하지 않아요?

#1 안에서 뜨는 놈은 그 박이 큰 놈이래야 하고. 바깥에는 네모지게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은 놈이래야 되요.

@ 아, 크기가 다르네요. 그죠?

#1 예. 크기다 다르지요.

@ 이거는 둥근 박에다가.

#1 예.

@ 등글게 큰 등근 박으로 되어 있고. 또 바깥털에는 네모진 거라고요?

#1 아니요. 그것도 조그만데서 떼내니까 박이 작고 조그만 것을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안털은 안에서.

#1 안에서만. 벗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바깥털은 인제 간쟁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 저쪽에서 간통에서 떼와가지고 다시 부을 때. 버긱에 부을 때. 혹시 그 아까 아궁이를 구락쟁이라고도 하세요? 구락쟁이.

#1 옛날에. 아주 옛날에 구락쟁이라고.

@ 그거 진짜 오래된 말이네요?

#1 구락쟁이라고 했지요.

@ 들어 보셨어요? 혹시?

#1 아니. 우털은 그때 옛날에는 우털도 구락쟁이라고 했어요.

@ 아, 했어요? 부락쟁이라는 말도 해요? 부락쟁이. 부락쟁이?

#1 부락쟁이는 없구.

@ 부락쟁이는. 고무레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1 고무레는 소금 굽을 때. 가마에서. 사용하지요.

@ 뜰채. 아까 뜰채나 후리채나 같은 건가요?

#1 예. 같은 거예요.

@ 그러니까 거품.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죠?

#1 불순물 거를 때. 그. 그게 거품이 침에 불 끓기 하면 거품이 나는데, 마이 오래 때

면 거품이 검어져요. 검으니께 후리채로 후려서 한 짝에 몰아 놓고 뜰 때. 죽통으로 인제 건져내죠.

@ 죽통으로 건져내요? 아, 후리채로 밀어놓고.

#1 예. 밀어서 한짝으로 밀어 놓고. 죽통으로 건져 내죠.

@ 죽통은 뭐로 만들어요?

#1 나무로 파지요.

@ 사각으로 되어 있나요?

#1 아니지요. 둥근 나무에다가 세모지게 파서 쪽 세모지게 파가지고 떠서 건져내는 거.

@ 어르신 거품. 거름 이라고도 이렇게 하시네요?

#1 내가 입이.

@ 아니 거름이라고 이 지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들었는데.

#1 거름? 거름. 거름은 인제 워쩌다 듣는 말이지.

@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말 아니예요? 그게?

#1 옛날말은 옛날말이지.

@ 그다음에 인제 소금이 소금꽃 필 때 그거를 혹시 소금 온다 이런 말도 하시나요? 지금?

#1 인제 그 소금온다고도 하겠지요. 뭐 왜그러내면 소금꽃이 피어서 소금이 시작되니까. 시작되니까 소금이 온다도 할 수 있는 말이지요.

@ 쟁기 같은 거는 필요 하시지 않나요?

#1 쟁기는 논 밭 갈 때나.

@ 여기는 필요 없고. 그럼 쓰레날 같은 경우에는 좀 뽀족하게 하겠죠? 옛날에는 소로 논밭을 갈

아서 모든 곡식을 실고 논은 씨레로 썰어서 갈아 놓는 걸 썰어서 이제 모를 심었는데 지금은 전부 노타리니께 그게 없자나.

@ 혹시 그 물통을 황이라고도. 가마에 운반 할 때 사용하는. 황. 황은 뭐예요?

#1 황이요? 가마에 사용하는.

@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드는데. 통자락에 함수를 가마에 운반 할 때 사용. 황.

#1 그게 물통 이야기겠지요. 그게.

@ 물통을 황이라고 해요?

#1 물통이니까.

@ 물지게에 다는 통을 황이라고 한다고요?

#1 그게 황이라고요? 아니여.

@ 그럼 어떤 걸 황이라고 해요?

#1 난. 황은 내가 잘 모르는데.

@ 이거 불 떨어 때 머 부지깽이?

#1 부지깽이 있지요.

@ 그거 혹시 비지땡이라고 하세요 부지깽이라고 하세요?

#1 비지땡이. 아니 그게 옛날부터 부지땡이여. 부지땡이.

@ 샅은 안 필요 하세요?

#1 샅이요? 샅은 워편 집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염벳에서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거여.

@ 혹시 인제 그 삼태기 같은 건 필요하지 않나요?

#1 삼태기 팔요 허지요.

@ 어떨 때 필요 하세요?

#1 금방 가마에서 건진 소금을 금방 땅에다 갖다 놓는걸 아니라 삼태기에다 놓거든요? 삼태기에다가 약 한 시간 정도 놓아둬요. 삼태기가 몇 개가 필요 하거든요. 삼태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나무를 가늘고 긴 나무를 동그랗게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휘어져요. 휘어지면 마두 한테는 묶고 이렇게 묶고서 새끼로 엮어요. 뱅글뱅글 엮고서 소금이 안 썰 정도로 엮어서 거기다 그걸 몇 개 놓고서 가마에 소금을 굽어서 그 한테다 한 시간 정도 놔다 쏘는 거여.

@ 그 나무는 무슨 나무로?

#1 아무 나무도 돼요.

@ 그걸로 좀 촘촘하게 하겠네요? 그 위에 가마니 같은 거 안 깔아도 돼요?

#1 안 깔아도 돼요.

@ 그걸 삼태미라고도 하세요? 삼태기를? 삼태미라고도 하시고요.

#1 예.

@ 도구 중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2 소금을 굽는 것은 고무래. 소금 굽는 거. 가마솥에서 소금을 굽는 걸 고무래.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푸는 것을 뜰채. 또 그 거품을 이렇게 대나무로 부채살마냥 종이를 안 붙인 부채처럼 만들어서 소금이 막 끓을 때 거품을 걷어내는 걸 후리채. 그리고 소금의 염도를 재는게 그 송화가루의 예, 송진을 문혀서 그 줄에 매달려서 염도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소금물에 띄우면 반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띄우는 것만큼 비 비중을 맞춰서 송진을 문쳐서 끈을 달아서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면 소금물이 빨리 떠오르면 염도가 높은 거죠. 가라앉으면 짜고 그렇게 비중계가 없으니까.

@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2 그이, 잃어버렸다. 그거보고 뭐라고 했는데.

#2 대름, 대름.

@ 대름.

#2 대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간쟁이가 염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염도를 측정한다 그렇게 안 하고 대름본다 그랬죠. 대름본다. 염도를 잰다. 그 소리죠.

@ 그 이외의 소금 만들 때 만드는 다른 도구 있나요?

#2 여기 뭐야 바가지는 털이라 그랬어요. 간통에서 함수를 푸는 도구. 박을 동그랗게 박을 올려서 속을 파내고 자루를 메달았어요.

@ 그걸 털이라 그랬어요?

#2 예 털.

@ 질통 같은 거 이런 것도 필한가요. 물지게라던가 밀통

#2 아 그것이 간쟁이가 지는 게요.

@ 물 퍼다 날을 대 뭘로 날라요?

#2 물지게죠.

@ 물지게는 어떻게 만들어요?

#2 그거를 황이라고도 하는데 대게 물지게라 그러드라구요.

@ 여기서 황이라 그래요?

#2 예 물통 양쪽에 물통 이에 가지고

@ 물통 그 자체를 황이라고?

#2 예예 그런데 물지게라 했죠. 물지게, 물지게죠.

@ 여기는 씨레는 저분이 앉아 있는 건

#2 건 덩이판이고.

@ 덩이판이고? 씨레는 이렇게?

#2 예예예 그런데 논에서 썬는 쓰리는 썬레하곤 조금 틀려요. 더 그거보다 썬레가 크고 서레 날이 썬레 이빨이 더 굵고 납 넘적혀요. 논에서 옛날에 논에서 모심길려고 썬레질하는 썬레보더는 썬레의 크기가 크구 썬레 밭의 두께나 넓이가 커요.

@ 썬기도 필요한가요?

#2 썬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 물지게는 물을 나르는 것처럼 소금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2 그 때는 이제 소금을 달구지로 옮기기도 했지만 대게 해상으로 이용했죠. 섬. 가마니가 아닌 섬.

@ 가마니하고 섬하고는 달라요?

#2 가마니는 왜놈덜이 들은 거죠. 원래 우리의 그 담은 그릇은 섬이죠.

@ 다 가마니처럼 만든 짚을 그러나요? 그거보다 더 큰가요?

#2 가마니 짚으로 짜서 헐거죠.

@ 이거는 섬을 다 손으로?

#2 그렇죠. 가마니는 나중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 가마솔에서 소금을 굽는 도구가 있나요?

#2 고무래라고 했잖아요. 고무래.

@ 주걱같은 거는?

#2 대주걱이라고 있죠. 푸는 거 되주걱이라 그랬죠. 거의가

@ 아까 소금물 염도측정하는 도구.

#2 대름 대름.

@ 대패도 필요한가요? 굽어서 모으거나? 가마솔 같은 거 닦는거.

#2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대패소리는

@ 삽 같은 거 가지고도?

#2 아이 삽이야 분명히 있죠. 가래질도 해야 되고 가래는 그 웅덩이 통자락을 팔 때는 가래로 파죠?

@ 삽은 어떤 때 사용해요?

#2 삽도 결국은 그 가래로 판데 잘 다듬을 때 삽 같은 건 삽은 당연히 도구로서 필요하죠.

@ 그러면 이제 자염에 필요한 도구 아까 이제 염한이가 소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도구 갯벌에서 소를 해가지고 하는 도구 좀 알려주세요.

#2 이제 갯벌 흙을 말리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는 건 씨레 씨레구요.

@ 씨레는 이제 주로 어떤 기능을 그냥 주로 갯벌을 파는.

#2 예예 씨레 씨레는 이제 갯벌 흙을 말릴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덩이 덩이 판이라는 게 있죠. 갯벌 흙이 뭉쳐진 것을 소로 끄는 덩이판인데 그 덩이판 위에 큰 돌을 얹어 놓고 소를 끌이면 갯벌 덩어리가 부숩지죠. 소를 끌고.

@ 흙을 덩이를 깨는.

#2 게 소 씨레처럼 소 뒤에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 돌을 놓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 이런 도구들은 남아 있나요?

#2 그런 거는 뭐 제작해서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걸.

@ 그 다음에는 이제 물 뭐 필요한 거 다 말씀해 주세요.

#2 그러면 덩이 판으로 덩어리를 깨고 나면 또 씨레질 하고 덩이판 깨고 그것을 한 칠일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칠일동안 그래서 갯벌을 콩가루처럼 말립니다. 바삭 그 말리는 이유는 갯벌이 가지고 있던 수분을 햇볕에 의해서 증발시키면 갯벌흙이 염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갯벌 흙의 염도가 올라간 염도가 높아진 갯벌흙의 바닷물을 투

과시키면 바닷물의 염도가 올라가죠.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일점 오프로 되는데요. 그렇게 갯벌 흙을 말려가지고 바닷물을 투과시키면 한 십도에서 십삼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올라간다. 소리는 똑같은 땀감 가지고 소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덩이판과 씨레질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통자락 이라고 깔대기 형식으로 파논 그 안에 나래 나래는 나래질을 하죠. 소로 그 흙을 몰아 넣죠. 다시 그 나래라는 것은 뭐 불도저 앞에 흙 미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소로 꿩고요. 불도저 앞의 날로 도저가 이렇게 미는 것처럼 흙을 다시 뭉덩이에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우는 간통 뚜껑을 가마나 뿔로 꼭 막아서 그 갯벌 흙으로 막아 놓고 나면은 사리가 되서 하루에 두 번 씩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렇게 해서 한 삼일이 지나면은 사리 때부터 그 뚜껑을 열고 간통 안에 있는 그 소금물을 물지게로 지어다가 끓이는 겁니다.

#2 아니 뭐 소금섬을 놓을라면 밑에 나무로 이렇게 받침을 놓겠죠 당연히.

@ 그 밑에 간수를 받으려고 따로 설치를 하나요?

#2 그런 건 모르겠어요 간수는.

@ 소금을 담은 도구가?

#2 섬.

@ 섬에다가 꼭 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님 다른 그릇에 담거나.

#2 그때 그릇이 어딴겠어요 지금처럼 자루도 뭐여 없고 섬 아니면 가마니였겠죠.

@ 섬에는?

#2 열말.

@ 한가마니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역에서 자염이 만들어지면 어디어디에 사용하나요?

#2 지금사람들이 먹는 거와 똑같이 먹었겠지 사용했겠죠.

@ 혹시 그 염수 위에 불순물 같은 것이 위에 뜨는 것은 없나요?

#1 있어요.

@ 그걸 뭐라고 하시나요?

#1 그게. 그게 저 어제 얘기하던 대칼로도 하고요. 또 저 무슨 주걱이나.

@ 대주걱?

#1 예. 대주걱. 그놈으로도 건져내고 그러지요.

@ 대칼이나 대주걱. 근데 대칼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칼처럼 생겼나요?

#1 아니여. 그냥 대막대기여.

@ 아. 대 막대기인데. 그런데 불순물을 부르는 말은 없어요?

#1 불순물은 인제 머라고 부르지 않지요.

@ 부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 부유? 부유? 아니. 아니여.

@ 부유는 못 들어 보셨어요? 부유를 머 대칼로 건져낸다 뭐 이렇게.

#1 근데 인제 대주걱으로 건져내죠. 대부분.

@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따로 부르는 말은 없는 거예요?

#1 예. 여기서서는 없어요. 딴 데서는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서서는 없어요.

@ 그다음에 간쟁이가 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를?

#1 대름.

@ 그거는 뭘로 만들어요?

#1 아니. 송진을 따다가.

@ 송진인데 그 대는?

#1 그 이런 대막대기 있죠. 그걸로 해. 자루는 그걸로 만들어. 대칼도 그걸로 그놈대로 그냥 하는 거여. 위디 큰대를 쪼개서 납작하게 해는 대갈하는게 아니라 대밭에 가면 실대라고 가는 거 손가락 도탕이 만한 거 가는 거 있죠? 그거를 잎파리째 딱 잘라내고 한 짝은 머로 내고 대죽으로 건져내는 거여.

@ 가래를 이용해서 흙을 파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 가래질이죠.

@ 가래일이라고도 하나요? 가래질 한다고 그래요?

#1 가래일이 맞기는 하는데. 가래질이요.

@ 질한다고. 가래 일도 그거 하는 거는 가래 일이고. 직접 하는 거는 가래질을 하는 거죠?

#1 예.

@ 가래질 할 때 이 가래가. 일곱명이 하는 가래도 있고, 아홉명이 하는 가래질도 있어요?

#1 그렇지요.

@ 지난 번에 하실 때는 몇 명이 하신 거예요?

#1 일곱 명이 했죠.

@ 그럼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1 그건 일곱명 가래.

@ 예. 아홉 명이 하면?

#1 아홉. 구명 가래.

@ 그럼 가래에다가 새끼를 구멍을 일곱 개 달아서 일곱 명이 동시에 하는 건가요?

#1 아니죠. 저 가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고다리를 만들어 꿰가지고 이쪽에다 줄을 매요. 이쪽도 똑같이 그래서 한 짝 두 개가 세명 씩 붙으고 가래있는 데가 하나 서고 하면 일곱 가래. 일곱명 가래.

@ 세 명. 세 명. 여기 잡고 있는 사람 한 명. 아, 그럼 일곱 가래. 아홉 가래는 네 명.

#1 네 명. 네 명 인제.

@ 그다음에 나래도 나래하는 것을 갖다가 나래질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나래질 한다 하지요.

@ 나래질 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나래. 머 어떻게 하는 게 나래질.

#1 나래. 나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시면 우선 나래부터 만들어야 나래질을 하지요. 이다판을 나무 넓직한 제제소에 가서 만들어요. 넓적하게.

@ 그걸 이다판이라고 해요?

#1 예. 이다판을 만들어서 거게다 구녕을 다섯을 뚫어요. 어떻게 뚫냐. 우에다 뚫거든요? 우에다 뚫고서 나무를 다섯을 꽃고. 그 꽃은 우에다가 연결시켜. 그 손잡이 하는 나무가 우에가 있는데 그놈과 연결을 시켜요. 꽃은 나무를. 거기 거기에다가 왕대. 대가 마디마디 대가 있죠? 왕대. 왕대를 다 쪼개서 엮어. 거기다 인제 흙이 더 못 넘어 가게끔 엮는 거여. 다섯 개를 세웠으면 이렇게 전부 엮어지겠죠? 이렇게 책책 이렇게 해서. 엮어져서 그놈을 그게 나래여. 맨 밑에다 구녕을 넣고 구녕에서 소에다 연결해서 소가 끌고 끌면 사람이 붙잡고 가면 흙이 조금 될 때 흙이 모으는 거여.

@ 흙을. 그럼 나래는 흙을 모을 때 사용하는 건가요?

#1 예. 나래질이여.

@ 하는 걸. 그다음에 이제 씨래질은 씨래는 어떻게 만들어요?

#1 씨래는 나무가 동그란 나무든지 각진 나무든지 관계없이 구녕을 열둘을 파요. 열둘 파서 요렇게 하면 이게 한 십센치 되겠죠? 그런 나무를 박아.

@ 못으로 박나요?

#1 아니요. 구녕을 뚫고. 구녕을 뚫고 끌로 구녕을 파고 다 거기다 박아서 만들어서 열두 개를 박고서 밑에다 끈내고 소에다 연결시키고 이 우에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게 두 개 막대기를 세우고 가로 막대기를 대고 누르면은 나래질 할 수 있는.

@ 소에 매서. 그건 갈 때. 바닥을 갈 때. 그다음에 어제 그 대름 가지고 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1 그 아니 그게. 그 밑에는 짠물이 많고 우에는 짠기가 작으니까 그놈을 걷어내야 밑에를 가져가야 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물이 그걸 재는 것은 간쟁이가 염도를 재는 것뿐이여.

@ 그러니까 이렇게 간쟁이가 대름을 가지고 대름을 본다. 대름을 머 한다.

#1 대름 본다.

@ 대름 본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후리채는 거품을 아까.

#1 예.

@ 이렇게 모으는 것을 후리채질 한다. 거품을 이렇게 모으는 걸 말하는 거죠? 후리채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 대요. 그냥 실대. 실대가 옷 입었죠? 쪽. 대가 실대가 옷 입었잖아요. 쪽.

@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 아니 실대가 옷을 안 입고 어떻게 사나요. 저 금년에 나는 대는 쪽 보편은 대만 있는게 아니라.

@ 아, 옆에 가에 껍질 같은 거.

#1 껍질.

@ 아, 그거를 옷 입는다 그래요?

#1 예. 옷을 입었죠. 그게 그걸 벗겨내고서 그 놈으로 그놈으로 후리채를 하는 거예요.

4. 소금의 종류

@ 송화가루 소금 같은 것도 만드시나요?

#2 송화가루 소금이요? 송화가루 소금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일염을 만들 때 송화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만드는 소금이 천일염 내 가장 양질의 소금입니다. 왜냐 하면은 천일염을 만들 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없어야 소금맛이 좋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 차면은요. 소금이 빨리 결정돼요. 액체에서 고체로 그럼 빨리 결정될 때는 불순물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삼요소는 염화나트륨 마스네슘 칼륨 그밖에 미량 요손데 천연천히 결정이 되어 불순이 빠지고 불용분이 빠지고 소금이 염화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칼륨이 적당하게 삼대일대일로 만들어지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 추우면은 기온이 떨어지면은 소금이 갑자기 결정이 됩니다. 그럼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에 송화가루 날릴 때면 오월 하순에서 유월 초순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그 때 만들어진 소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으른들도 그때는 송화가루 소금이 좋다는 자염을 만들 때도 마참가집니다 해가 길어요. 그리고 태안에는 기후가 몹시 가물고 모내기 할 때 북서풍이 불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그러면은 자염을 만들 때 갯벌흙이 잘 말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갯벌흙을 말려서 바닷물로 걸러서 끓여두 고 때는 갯벌흙에 아주 건조하게 말르니까 소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송화가루 날릴 때 만든 소금이 좋다 근데 자염은 그거이하곤 상관없이 끓이는 거니까 마참가진데 그게 천일염을 하면서부터 일교차가 없으니까소금맛이 순허죠. 불용분이나 불성분이 결정되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이 인제 송화가루 날릴 때 보면 지금 천일염전에 가면은 소금물을 이렇게 가뒀놓은 데 보면은 노랗게 송화가루가 떨어져 노래요. 고럼 고 때 그 송화가루 묻어서 소금이 약간 노르소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사람들이 송화가루라고 천일염을 불에 가열시켜서 북한이나 중국서 송화가루를 수입해서 인절미 둥글리듯 둥글려 내가지고 이 소금이 좋다해서 송화가루 소금 파는 거예요. 송화가루 소금이라고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 혹시 소금이름에도 여기서 쓰는 거는 아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이름?

#1 그렇죠. 소금이름 두 가지 밖에 없죠.

@ 자염하고.

#1 외렴허고.

@ 사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1 소금이 지금 열두 가지가 나오죠? 열두 가지가 나오나 열세 가지가 나오나?

@ 어떤 게 있어요?

#1 송염. 또 지금 저 과일 과일염도 나오죠.

@ 아 최근의 이름이요? 예예 옛날의 이름은?

#1 옛날에는 옛날에는 읍이요 옛날에는 송염 먹고 싶다고 해갖고그러 간장통에 저 통에다가 솔나무잎 잎을 막 매달아 갖다가 뱅글이 놓고서 소금구면은 그 소금 먹어보면은 솔잎이 냄새가 난다해서 송염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 혹시 소금의 종류들 용어.

#2 천일염보고 외렴이라고했다니까.

@ 아까 외렴하고.

#2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에도 자염도 만들고 천일염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천일염을 먹어보니까 쓰고 맛이 없응겨여 자염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르신들이 천일염을 두고 외렴이라 그랬죠 외놈들이 만드는 소금이고 맛 맛이 없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부자집 장맛이라는 부자집 속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천일염도 생산되고 짠감으로 자염도 자염도 생되 부자들은 비싼 자염으로 된장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집 장맛 부자집장맛처럼 맛있네. 그건 뭐냐면 좋은 소금으로 담았다 소리여. 그러니까 천일염을 하대 헨거죠 외렴.

@ 혹시 혼소금 이런 것도 있나요?

#2 그런 소린 근래 만들어진 소리에요.

5.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 어른은 자염해갓고 굴비도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굴비 굴비만드는 거 조기도 여기서 많이 잡으셨잖아요.

#1 많이 잡았죠.

@ 그러니까 이쪽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혔던 고기가 어떤 거예요?

#1 여기서 많이 잡혔던 게 갈치하고 조기죠.

@ 그러니까 그 조기에 소금을 넣어서 만든걸 뭐라 그러죠?

#1 조기다 소금 낸 것들? 간조기, 간조기죠.

@ 굴비라는 말은 안 해요?

#1 여기는 굴비라고 안 했시유. 전라도 가야 굴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제 전라도가면 굴비라는 것이 고기가 좀 잘잡여. 여기서 잡은 놈은 조기가 이래 이랬슈, 네뻬.

@ 엄청크네요. 지금은?

#1 없어요.

@ 그 다음에 여기는 게도 되게 많잖아요.

#1 없어요. 이게 그거 안 맥여.

@ 아니 옛날에.

#1 옛날에 게는 옛날에도 별로였어. 그렇게 신경 안썼어 게는.

@ 거이라고 하시던데요. 게를 갖다가 거이.

#1 여기는 그런 말 없슈.

@ 불을 때서 얼마동안 불을 때면 가마솥에 소금이 나와요?

#2 그것은 뭐 가마솥에 소금물을 많이 넣면 더 오래 때야 되고 적게 넣면 그만 보통 여덟 시간 정도.

@ 그 소금이 만들어지면 가마에 담아서 옮겨서 쌓아 놓는 창고도 있나요?

#2 그 때에는 창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했든.

@ 혹시 창고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던가?

#2 염막이라고 해가지고 염막이라고해서 그 소금을 소금섬을 쌓아두고 비오면은 비가 못 들어가게 그 이영이로 이렇게 덮은 덮어 놔다가 이제 배가 들오면은 그걸 배에다 싣고 강경포구나 상개나루로 갔죠 그러니까 강경포구의 젓갈이 오늘날 강경젓갈이 유명한 것도 그 때에 군산 앞 서해안바다에서 좋은 젓갈류 생선을 잡고 이쪽에서 양질의 자염이 가서 버무려졌기 땀에 강경젓갈이 유명했어. 여기뿐만 아니라 서천이나 장항 했던 해안선을 낀 데는 다 소금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 그럼 소금을 염막에 쌓아두면 간수가 흘러내린다고 하셨잖아요. 간수를 따로 받기 위해 따로 시설을 설치하나요?

@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조기를.

#2 아이 여기서 잡히는 모든 생선에 뭐 절이고 간혀고 했겠죠. 지금이랑 똑같죠 뭐.

@ 그럼 태안에서 제일 유명하게 절여서 하는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2 여기서 많이 잡히는 고기들이죠 뭐 그전에는 우럭이나 농어 조기도 찍혔으니까.

@ 근데 우럭같은 거를 젓갈로 만들거나 하진 않잖아요.

#2 절여서 절였다가 포파서 절여서 널죠.

@ 아 우럭가지고

#2 예 우럭같은 거 그렇게 민어 농어같은 거 다 그렇겠죠 민어 농어, 조기도 절였을테 고 했던 모든 생선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젓갈을 담던 절여놓던 포를 떠가지고 소금물에 담갔다 말렸던 모든 소금을 사용했겠죠. 그거는 지금 사람들

이 사용하는 거나 똑같았죠.

@ 그 다음 소금으로 한 것 중에서 조기가 제일 유명할 텐데 혹시 태안에서는.

#2 여기가 옛날에 조기를 많이 잡았었죠.

@ 조기엔 주로 참조기도 있고.

#2 뭐 조기는 똑같이 봄에 봄에 알낱리 칠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연평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독살이에서 잡은 거니까 조기는 다 참조기죠 뭐 다른게.

#2 백조기야 뭐 조기라고 험니까? 보글치 건 조기의 종류지 조기가 아니죠 보글치라고는 건데 그건 조기가 아니에요.

@ 그럼 제일 좋은 건.

#2 참조기죠 예 참조기죠.

@ 황석어는?

#2 그런 건 못 허겠어요 뱃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명칭과 행위자

1.1. 소금, 자염, 화염(火鹽), 간, 재래염, 천일염

‘소금’은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를 말한다. 소금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자염과 천일염 등으로 구분한다. 자염은 자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이며, 자염법은 함수(소금물)를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천일제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인데, 천일제염법은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볕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자염(煮鹽)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한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상·하현(조금)때 7~8일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을 소로 4~5일 동안 하루에 몇 차례씩 썰레질을 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소금기가 농축된 갯벌흙(함토, 숨吐)에 다시 바닷물을 여과시켜 만든 소금물(함수, 鹹水)을 철가마에 끓여 만든 소금을 말한다. 태안 지역에서는 자염을 전통적으로 ‘화염(火鹽)⁵⁾’이라고 불렀다. 태안 지역의 자염법에는 무제염전식(無堤鹽田式, 통조금 방식), 양반식과 흡사한 갈개조금 방식이 있다.

소금의 15세기 고유어형은 ‘소곰’이다. ‘소곰>소금’의 변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18세기 이후 등장한 쇼금, 쇼곰과 함께 20세기 사용되다가 ‘소금’으로 정착된 어형이다. 소곰에 대응되는 한자어 ‘煮鹽’ 『세종실록 권 111』(세종 29년, 1445) 역시 15세기 이래로 문헌자료에서 널리 사용된 명칭이다. 그러나 태안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어형은 ‘화염’이며, 그 밖에도 ‘간, 재래염’ 등으로 불렸다. ‘화염’은 표준어 자염에 대응되는 충남 태안 지역의 생활어이다. 구워서 만든 재래염은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중국에서 천일제염법으로 수입, 생산된 청염(淸鹽), 1907년 인천 주안에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서 수분을 증발시킨 뒤, 소금 결정을 얻어내는 천일제염법에 대비하여, ‘화염, 자염’이라고 하였다.

- ⇒ {화염이라고} 하죠. 옛날에 옛날에가 {자염이었죠}. 자염이라 해갖고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조금 조금 옴폭옴폭 파진 데가 있어요. 돌이. 거기가 {소금이라고} 해갖고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소금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그 소금을 가지고서 {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염을} 이제, 이제 그것을

5) 태안 지역에서는 ‘화염’을 ‘화렴’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퍼와서 자염을 생겨, 생기는 걸 보고서 아, 이것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어른들이 해야 했거든요. 어른들이 해서, 그 어른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 흠을 파서 그 흠을 말려서 다시 넣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 거기가 더 짠물이 들어가 모이거든요. 모이면 그 놈을 갖다 구워서 이게 {소금이요.} 지금도 {화렴이라고} 노인네들은 지금도 화렴이라고 그래요. 조금 칠일 동안에 갯벌이 햇빛 햇볕에 드러나서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인제 오일 썸 되면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빠지지 아네요. 마당처럼 그런 갯벌에서만 {자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소금을 {간이라고도} 하죠.

- ⇒ 천일염은 {재래염하고요} 방법이 완전히 달죠. 천일염은 완전히 달바요.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바닷물이 켈 많이 들어올 때 그 바닷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틀을 개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바닷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놈을 얼마큼 저 저거를 하느냐면 그 천일염 만드는 기간동안 사. 8일간을 태양으로서 천일염을 만들거든요.

1.2. 염한이, 염부

소금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염한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염부’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염한이는 한자어 ‘鹽漢’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자염법에서는 자염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명칭과 역할이 구분된다. ‘염한이’는 생산된 소금의 임자로서 소금 생산을 위한 함토와 함수를 만들고 땀감을 마련한다. 간장이가 운반해 온 함수를 꿰이는 일을 담당하며, 생산된 소금을 ‘염벗임자’와 ‘간쟁이’에게 염벗의 임대료와 품삯으로 소금을 나누어 주고 남은 몫을 가진다.

- ⇒ {염부가} 세 명이요. 소하고 같이 흠을 뒤집고 말리고 그 하는 거예요. {염부가} 다 {염한이요.} 이 사람들은 소금을 나오면 소금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 똑같아요. {염부죠.}{염부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거요.

1.3. 염벗임자, 벗임자, 벗주, 염주

‘벗주’는 염벗의 주인을 의미하는데, ‘염벗임자, 벗주, 염주(鹽主)’ 등으로도 불린다. 벗은 염벗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이다. ‘벗임자’는 소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벗(염막)과 가마솥, 일소(牛) 그 밖의 제염 도구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벗임자는 염한이로부터 소금을 염벗의 임대료로 받는다.

- ⇒ {벗주가} 오히려 옳지요. 감독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소금을 구워보니까 열가마다. 열가마면 {벗주가} 벗쪽에다 세 가마를 쥐야해.
- ⇒ 벗주인을 뭐라고 해요? {벗임자.}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벗주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간장이가 한 가마 가져가.

1.4. 간쟁이, 간장이, 간장

간장은 대름으로 함수의 염도를 측정해 주고 염한이가 만든 함수를 염벗의 간수 저장고(버곳)에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간쟁이는 간장의 방언형으로 보이며, 함수의 염도를 측정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간장은 가마솥에 함수를 끓이는 순서를 정하는 등 소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며, 품삯은 염한이로부터 생산한 소금으로 받는다.

⇒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또 물을, 옛날에는 물을 자염할 때 우리가 물을 저갔어요. 펌프로 안 주고 저갔는데 그건 {간장이라고} 하죠. 그 흠에서 물을 가마로 가져가 저가는 거요. 가마에다 붓고 불을 때우면 이제 소금이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나면 물이 얼마큼 짜냐. 얼마큼 싱거우냐 할 적에 그 재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참 염전에서 기계를 전부 9도 이상해서 재는데 옛날에는 송진을 따서 왜 송진 속에다가 콩알만한 돌을 넣고서 송진을 때기 갔다 뭉쳐요. 뭉쳐서 거기다 노끈을 딱, 딱 다해놓고 쪽 하고서 다른 막대기에다 쪽 이렇게 해서 막대기에 달고서 거기다 그 흠 물에다 넣어요. 넣으면 이놈이 뜰 때까지 우에 있는 물을 퍼내 버리는 거요. 그 물을, 그놈 뜰 물을 갖다가 가마에다 붓고서 불을 때야 소금이 정상 나와요. {간장은} 두 분할 때 있슈. 벗집 안에는 가마솥이 있구요. 옆에는 그 염수를 {간쟁이가} 나르다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1.5. 화부

가마에 불을 때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서는 화부는 주로 염부가 담당한다.

⇒ {화부} 불 때는 사람.

이상으로 염전의 명칭과 행위자에 관한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과 행위자	
자염	명칭	소금/소굶, 자염/화렴(火鹽)/간/재래염, 천일염
	행위자	염벗임자/벗임자/벗주/염주, 염한이/염부, 간쟁이/간장이/간장, 화부

2. 제염 설비

2.1. 자염의 설비

2.1.1. 통자락, 갈자락, 염판

‘통자락’은 자염(煮鹽)을 만들 때, 간통 주변의 갯벌흠이 있는 터를 말한다. 통자락은

통과 자락의 합성어이며, 통은 함수가 모이는 간통을 말한다. ‘자락’은 북한어 ‘거웃’에 대응되는데 ‘한 방향으로 한 번, 죽 쟁기질하여 젖힌 흙 한 줄 혹은 양방향으로 한 번씩 쟁기질하여 두 번 모으거나 양방향으로 두 번씩 쟁기질하여 네 번 모아서 한 두둑을 짓는다 <표준국어대사전>.’ 통자락은 간통이 있는 자락을 의미하는데, 간통에 함수를 모으기 위해 갯벌흙을 써레로 갈아 뒤집어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 함토작업을 하는 간통의 주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통자락은 ‘함수를 모으기 위해 갯벌 흙을 말리는 함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갯빨을 깔대기 모양으로 둥글게 파낸 형태가 ‘간통’이고 그 주변에 통자락을 만들기 때문에 구별된다. 이와 같이 엄밀하게 보면 간통과 통자락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통자락의 중심부분에 간통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자락과 간통이란 용어는 구별하지 않는다.

통자락은 자염의 생산 방식 중 통조금 방식에서 만드는 자염의 설비 중의 하나이다. 통조금방식은 조금 때 간통을 만드는 방식에 연유한 명칭이다. 간통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통자락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양과 가마솥의 크기에 맞춰 만든다. 간통은 둥근 원의 지름이 8~9m이며 중심의 길이는 1.5m이다(정낙추, 2002:10~11). 가래질로 갯벌 흙을 파낸 통자락의 중심부에 밑은 넓게 위는 좁게 말뚝을 박는데, 이러한 형태의 간통에는 사각형의 입구(틀)를 만드는데, 이는 함수를 퍼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뚝은 띠로 엮은 밭이나 이영(나래)으로 두르는데, 이것은 갯벌 흙이 간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한 서해안의 조금 때, 7~8일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에 흙을 둥글게 파낸 간통을 만들고 간통 주변에 있는 갯벌흙을 써레로 갈아서 흙을 말리는 것은 통자락에서 이루어진다. 통자락의 중심부에 밑은 넓고 위에는 좁게 말뚝을 박아서 간통을 만든다. 아래 제보자의 구술에서 통자락과 간통은 구별되지 않는다. 통자락은 갈자락, 염판이라고도 한다. 갈자락은 갯빨흙을 갈아놓은 자락이라는 의미에서 통자락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염판은 소로 갈아 놓은 곳을 이르는 말이므로 곧 통자락, 갈자락과 같다.

- ⇒ 통자락은 그 통이 있는 걸 보고 통자락이라 그러고, {갈자락은} 갈아놓은 걸 보고 {갈자락이} 그래. 그게 그 저들이 생각하기는 자락이란 건 내앞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쥬. 대칼은 염발 저기 벗자락이서 아니 벗자락 아니다 {염판이서} 쓰는 것인디. 아니 그것이 저저 소갈은 디가 염판. {갈자락이라도} 허고 {염판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거기서 사용 하는 거여. 갈으니께 {갈자락}, 흙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냈쥬. 그놈을 이제 말릴라면 써레로 이제 갈고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대니쥬. 서로 갈고대닌다 그래서 {갈자락이요.}
- ⇒ {통자락} 그 {통자락이라는} 게 뭐냐면 흙을 파서 말리던 그 터를 보고서 {통자락이요} 그래요. 그 통자락을 파서 말릴 적에 거기다 이제 뱅글 나무를 세우고 아니다. 네모지게 각을 만들어서 뱅글 세우쥬. 그러고서 모기장이나 뭐 이렇게 흙이 못 지나가게끔 막아놓서 짚물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통자락이요.} {통자락은} 할라면은 흙을 먼저 파내지요. 가래로. 그렇게 하고선 인제 {통자락은} 뱅돌리를 먼디 가서 아주 짙은 진 아주 뺄을 아주 끈적끈적한 띠를 펼

갓다가 뱅글 다 발랴요. 발르야 그 물이 땅속으로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 그냥 발르디를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졌어요. 통자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졌는데 왜냐면 그 펄을 다 발르야 돼 뱅글리. 뽕로 발르는 거예요 뽕로 발르야 그 짚물이 딴 데로 세나가지를 얹아요. 그 뽕을 발르고 모래를 또 뱅글 패워요. 발른 위에도 모래를 피면은 모래를 따라서 물이 자꾸 깊은 데로 내려가니까 딴 데로 셀새가 없지. 그렇게 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자락} 세우고서 거기다 가마니나 마대나 이런 걸로 감어야 흠이 안 들어가게끔 허고서 물 고이면 허는 거야 딱 술에다 갓다 부으면. 그렇게 하고 그 흠을 인제 말린 흠을 그 판디로(판 곳으로) 다 모아 넣는 거요. 그렇거면 {통자락} 고것만 거기에만 흠이 안 들어가지 다 흠이 들어가잖여. 그러니까 그 님이 인제 4일간 바닷물이 들왔다 나가면은 자꾸 가라앉으면서 그 짚물이 {통자락} 안으로 들어오지. 물일 칠 때까지 며칠 걸리지요? 오일 내지 육일 걸리죠.

- ⇒ 흠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흠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라면 씨래로 이제 갈고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 대니죠. 서로 갈고대닌다 그래서 {갈자락이요}. 염구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염구덩이라 안하고 간통이라고 합니다.

2.1.2. 간통, 통, 우물

간통은 가래질로 갓벌 흠을 파낸 통자락 중심부의 밑은 넓고 위는 좁게 말뚝을 박아 사각형의 입구인 틀을 만들어 함수를 모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말뚝은 띠로 엮은 밭이나 이엉으로 두르는데, 이는 갓벌 흠이 간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아주 진 뽕을 바르고 그 위에 모래를 뿌리는데, 이는 함수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상도는 ‘섯’, 강원도는 ‘간수통’, 전라도는 ‘섯등’, 충청도 서산·태안 지역은 ‘간통’이라 부른다.(유승훈 2008, 76)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간통’이 가장 널리 쓰이며, ‘통, 우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밖에도 전라도에서는 간통에는 짚물이 고이기 때문에 ‘소금물구덩이’를 의미하는 뜻에서 ‘염구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위진, 2010).

- ⇒ 지금은 기계들이 들어와서 기계로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소로 갈았어요. 소로 갈고, 그 뽕을 말려서 {우물} 파느라 다시 말건히 하나 말려다 다시 넣어놓고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그 말렸던 것이 내려앉으면서 짚 짜디짚 물이 그 {우물로} 들어가요. 이게 아주 여기 네모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여기에 흠갓다 모으고 여기에는 우에는 가마니에다 흠을 담아서 딱 우는 흠을 못 들어가게 닥 덮고 뱅글리 흠을 말린 놈을 다 여기다 글거 놓으면은 여기가 판판해지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이놈은 나중에 열고서 대림으로 저거 보고서 우이 승 그우른 건져내고 짚놈만 가져가는 거고. 흠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흠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라면 씨래로 이제 갈고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대니죠. 서로 갈고대닌다 그래서 갈자락이요. {염구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염구덩이라 안하고 {간통이라고} 합니다.
- ⇒ {간통은} 소금물을 허는 건데요. 이걸 말로 설명이 잘 안 될텐데 그 지름이 구미터 지들이 고대로 재현했을 때 구미터 정도였는데요. 어 구미터 정도를 깔때기 형식으로 팝니다. 깊이는 한 이 점 이미터 그 둥그렇게 둥그란 형텐데요. 그 원 중심은 한 이미터 정도 이 점 오미터 정도 파 구요. 그 안에 말뚝을 박고는 다시 이엉을 이엉이나 방석같은 걸 두르고 흠으로 뽕같은 걸로 맥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맥질하는 것은 흠모래를 걸르는 필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그런 통자락 주변에서 마른 흠을 나래로 밀어 넣고 다 이제 함봉을 하고 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말린 갓벌 흠속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여과시켜가지고 그 간통 안으로 물이 고일겁니다. 그러면은 사리가 되면은 그 {간통} 뚜껑을 물을 계속 퍼내면은 그

깔대기 형식의 지름이 구미터인 그 둥그런 깔대기 형식의 그 마른 흙이 머금고 있던 그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간통 속으로 이렇게 우물 샘물이 고이듯 고입니다. 그걸 계속 퍼다가 끓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자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통자락이라고 그 형태를 통자락이라고 해요.

2.1.3. 틀

간통은 모인 함수를 퍼내기 쉽도록 만든 간통의 사각형 입구를 ‘틀’이라고 한다.

⇒ 간통의 입구를 {틀이라고} 하느니 이게 아주 여기 네모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여기에 흙 갖다 모으고 여기에는 우에는 가마니에다 흙을 담아서 딱 우는 흙을 못 들어가게 딱 덮고 뱅글리 흙을 말린 놈을 다 여기다 글거 놓으면은 여기가 판판해지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이놈은 나중에 열고서 대림으로 저거 보고서 우이 승그우문 건져내고 짚놈만 가져가는 거고.

2.1.4. 버긱, 흙(흙), (짚물)구대기, 구대, 간장주

‘버긱’은 자염을 만들기 위해 염벚의 안쪽에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를 이르는 말이다. 이 밖에도 ‘버긱’에 대응되는 어형은 ‘흙(흙), 짚물구대기, 간장주, 구대기, 구대’ 등으로 불린다.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버긱’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다.⁶⁾ 태안 지역의 ‘버긱’은 ‘벗+긱’으로 분석되는데, ‘벗’은 15세기의 ‘밭(田)의 어형인 ‘뵤(田)’에서 음운 변화를 겪은 어형인 말음 ‘ㅅ’이 탈락한 ‘버’와 ‘구덩이(坑)의 의미를 가진 ‘긱’이란 어형이 합성된 어형이다.

‘버긱’은 염벚 안에 있는 함수 저장 웅덩이이다. 조금 때 간통에 함수가 모이면 사리 때 간장이가 물지게로 함수를 운반하여 버긱에 저장해 둔 함수를 가마솥에 붓고 끓이면 소금이 만들어진다. 버긱은 옛날에 ‘간장주’라고도 했고, ‘짚물구대기, 구대, 구대기, 흙(흙)’ 저장고 등으로도 불렸다.

⇒ 그 {흙은} 옛날에는 {간장주라고도} 하고, 요새는 뭐 그냥 {짚물구대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간장이가 두 분이니까 여전 가져와야 해요. 노다지. 깊어요. 그 한 구덩이가 그 물이, 한 가마가 되요. 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 놈을 한 {구대기} 잘 퍼서 가마에다 넣으면 또 불 때면 적당해요. 간물을 저을 때는 바깥에서 붓고, 벗, 벗 뽕뽕 새는 바깥에서 붓고. 그 놈을 떠서 솥에다가 넣을 때는 안에서 뜨거든요. 그니까 아주 구조가 돼있어요. 그걸 워떨 때 하느냐면 가마에가 이미 담어진 물을 불을 때다가 남은 물이 있는데 남은 물이 한가마닐 때까지 못하고 반가마쯤 되겠다면 그놈을 다시 다 끓여. 뿔 그만큼 다른 달궈진디다 또 갖다 더 부어 그럼 이게 덧물붓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거면은 한 {구대} 한 가마 굽는데 한 가마 반을 굽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 댘 사람이 득이 되죠. 왜 득이 되느냐 내일까지 이 사람이 구우면은 나를 모래구워야 할텐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구우니까 득이 되죠. 벗집 안에는 가마솥이 있구요. 옆에는 그 염수를 간쟁이가 나르다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 그

6) 전라도 지역에서는 첫등 아래의 염구덩이는 ‘짚물구덩이, 갈통’이라 부르고, 첫등 옆에 바닷물을 모아두는 구덩이는 ‘어여구덩이’라고 부른다. 갈통은 충남 서산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어여구덩이는 남양과 임천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다(위진 2010:121).

저장고는 밖에서 물을 부으면 염벚 안에서 바가지로 풀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버긱이라고} 했어요.

2.1.5. 염벚, 염막, 벚, 움막, 벚집

‘염벚’은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설치한 움막을 말한다. 통자락에 모은 함수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장소이다. ‘염막, 벚, 움막, 벚집’이라고도 한다. ‘염벚’은 ‘염밭’의 이 지역 방언형으로 보인다. ‘벚’은 ‘밭(田)’의 15세기 어형에서 이 지역 방언형 ‘아>어’형의 음운변화를 고려할 때 ‘밭>벚’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염벚이 나란히 두 개 있는 것을 ‘쌍벚, 쌍둥이 염벚’이라고 한다.

‘염벚’은 만조 시에도 바닷물이 닿지 않는 갯벌 근처에 말뚝을 비스듬히 등근 형태로 박고 이영을 울타리로 두른다. 중앙은 소금을 끓일 때 솟는 김이 빠지도록 개방된 상태이며, 내부 중앙에는 가마솥을 설치한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웃집(지붕)’을 만든다. 울타리 안쪽에는 함수 저장고(버긱)을 설치한다. 염벚의 크기는 통자락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40~50평 정도이다. 180여 개의 소나무 기둥을 돌려 세우고 동아줄로 감아 놓고 이영으로 엮는다. 벚집은 별도로 굴뚝을 내지 않고 지붕 중앙을 개방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염벚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지붕을 갈아주기만 하면 10~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시설이었다.(홍금수, 2006:142) 하나의 염벚에는 약 20여 개의 통자락과 4~5개의 갈개 조금이 있었다.

- ⇒ 우리 동네만 해도 15개 있어요. {벚이} 딱 이 바닷가에 말어요. 15개가 있으면 동민이 거의가 거기가 있다시피 하는 거요.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르나 {벚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기서 지금 조사하고, 우리가 가서 하던 것은 몇 개만 가지고 만들어 했지만은 이런 우리 동네같은 이런 데는 수십 사람이 와서 해서 날마다 두 가마씩 때야 되고 하루에 아침부터 여덟시부터 불을 때면은 열두시 넘으면은 소금이 다 나와요. 그거 {벚이쥬} 벚자락. 그런데 자염을 만들 때는 소가 꼭 필요한데 결국엔 그 갯벌 근처에 있는 뭐 밭이나 뜰에다 {움막을} 세워야 되쥬. {벚집} 안에는 가마솥이 있고요 옆에는 그 염수를 간쟁이가 나르다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 그 저장고는 밖에서 물을 부으면 {염벚} 안에서 바가지로 풀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버긱이라고 했어요. 그 염벚을 염벚 벚임자가 부자여서 염벚을 나란히 두 개 했으면은 뭐 {쌍둥이 염벚}, {쌍벚이라고} 했쥬.

2.1.5. 뜸, 웃집

뜸은 벚집 위에 띠를 엮어서 비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만든 지붕을 이르는 말이다. 벚집 위에 띠를 엮어서 만든 지붕을 이르는 말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뜸’을 윗집이라고 한다(위진, 2010:122).

- ⇒ {뜸이라고} 해갖고 거 옛날에 거저 뭐야 저 띠기 왁새 그걸 뽕이 뽕아 먹을 그 띠를 엮어서 만

- 들은 것이 거 {뜸이여.} 뼈비가 뭐야 이 저런 독에서 자라요 독에서 자라는데 이게 뜸 추런데에 필요한. 옛날에는 그 {뜸} 그게 속에서 그 뼈비라고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뭐야 종자 나온다고 봐야지 그 풀이서 종자나온다고 봐야돼. 옛날에는 그 놈을 비어다가 도량이쳐서 쓰고서 사람이 대녔죠. 가마가 여섯 평만한 놈에다가.
- ⇒ 예. 그게 {웃집이라고도} 하지요. 왜그나면은 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께. 웃집. 비우자 써서 인자 그렇게 만든 거니께

2.1.6. 나래, 이영

나래는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나래는 이영의 충남 태안 지역 생활어이다. 이 지역에서는 염벚은 먼저 기둥을 세운 다음 짚으로 이은 나래(이영)로 둘레를 두른다.

- ⇒ 여기서 초가지붕을 이으는 그 짚으로 엮은 걸 {이영이라고} 하는데 태안에서는 그 말을 {나래라고} 합니다. 빗말 박죠. 이게 나래로 해이죠. 해인다고 이것도 들르는 거요.

2.1.7. 철판, 가마, 쇠철판

철판, 가마는 염벚에서 소금물을 끓일 때에 쓰는 가마솥이다. 가마솥은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판(철판)에 해당된다. 가마솥의 크기는 염벚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가로 2.8m, 세로 3.3m, 높이 20cm의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으로 되어 있다.

토가마(土釜)는 굴 껍데기를 태워 회를 만든 다음 땅을 가마솥 형태로 파고 대나무를 엮어서 뼈대를 만든 뒤 바닷물로 반죽한 석회로 발라서 만들었다(정낙순,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정낙추, 2002:8 재인용). 이러한 방식은 전국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전북 줄포만(홍금수, 2006)이나 동해안 영해 지방(최성기, 1995)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철판(鐵釜)은 무쇠철판 조각을 덧붙여 만들었는데, 덧붙인 부분은 구멍을 뚫어 쇠못으로 고정하고 벌어진 틈은 석회로 메우거나(정낙추, 2002:9), 황토와 철을 같이 녹여서 철판과 철판 사이를 메웠다(정윤영 제보). 함수를 가열하는 데에 쓰는 가마솥은 만드는 재질에 따라 토가마(토부)와 철판(철판)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돌가마(石釜)가 있었다.⁷⁾

아래 정윤영 제보자의 구술 자료를 당시의 철판(철판)을 만드는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 ⇒ 예 {철판이라} 하고 솥이라 하죠. {가마라고} 솥이라도 아니고 {가마}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야, 철판이 없고 대장간, 대장간들이 막 와서 철판을 갖다가 구녕 뚫고 끈을 만들고 연결을, 철판을 연결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걸 철판 연결하는데, 무엇을 사용했느냐면 그걸 황토를 사용했어요. 황토가, 황토는 이미 녹아서 철판하고 녹아서 그냥 혼합돼서 혼합돼 저거 해서 철판 다 변해버리요. 그래서 그 철판이 저, 철판이 벌어지지 않아요. 덧붙여

7) 석부는 평평한 산석 혹은 벼의 파편 등을 조개회로 칠한 뒤 굳혀서 만든 가마솥인데 제작 방법은 토부와 비슷하다.(유승훈, 2008:86). 위진(2010, 참조)

고 여 구멍을 뚫어서 쇠뿔으로 조여요. 쇠뿔을 쓰고 여기 물이 썰 거 아닙니까? 거기는 굴 껍질을 태운 석회가루로 메웁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기서 지금 조사하고, 우리가 가서 하던 것은 몇 개만 가지고 만들어 했지만은 이런 우리 동네같은 이런 데는 수십 사람이 와서 해서 날마다 두 {가마씩} 해야 되고 하루에 아침부터 여덟시부터 불을 때면은 열두시 넘으면은 소금이 다 나와요.

2.1.8. 아구니, 구락쟁이

‘아구니, 구락쟁이’는 솥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이다. 표준어 ‘아궁이’에 대응되는 어형으로 태안 지역에서는 ‘아구니, 구락쟁이’라고 한다. 가마솥의 안 바닥은 앞뒤로 4개 고리를 만드는데, 이는 가마솥에 함수를 채웠을 때 솥이 가라앉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 ⇒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구니를} 남겨 놓고 뽕글리. 가을 솥을 올려놓을라고 쌓아 쌓죠. 독을 뽕글리. 돌하고 진흙하고 해서 쌓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옛날에 흙집에서 가, 살 때구, 여기는 그 아궁이에 태안토박이말은 {구락쟁이라} 그랬어요, {구락쟁이} 그런데 그냥 대개 그, 소금 끓이는 그, 가마에 아궁이가 아궁이뿐만 아니라 온돌방에 불때는 그 부엌의 아궁이를 {구락쟁이라고} 많이 했죠.

2.1.9. 굴뚝, 굴뚝달다

불을 땔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염벚에는 지붕의 가운데가 뚫려 있어 굴뚝이 필요 없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을 막기 위해 뜰을 덮는 경우에 대비하여 굴뚝을 마련하기도 한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낭금리 자연 재연 사업회에서 만든 염벚에는 굴뚝이 있다. 굴뚝을 세우는 것을 ‘굴뚝달다’고 한다.

- ⇒ 그렇죠, {굴뚝} 세우죠. 그냥 구멍이? 예. 아니 {굴뚝 달면은}일이 많고. 또 그 벚을 상당히 넓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얇고. 그냥 불 때면은 뱅 돌려. 구녕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그냥.

2.1.10. 벚터

벚터는 염벚을 세우는 자리를 말한다. 벚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높은 곳에 마련한다. 벚터에는 나무를 180개의 나무를 세워 벚말을 세우고 이엉으로 둘레를 엮어서 가마솥을 설치할 염벚을 만든다.

- ⇒ {벚터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이 안 올라오는 데 {벚터를} 장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벚터에} 들어가는 나무가, 서까래가 180개가 돼야 해. 180개를 뽕 돌려 세워는 건데요, 뽕 돌려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동아줄을 틀어서 돌돌 감아놓고서 벚짚으로 나래를 엮죠. 나래를 둘러다

놓고서 이게 불 땀 적에 바람막이 겹 비와도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불, 비 올 때도 때서 소금을 굵게끔 만드는 뜬이 있어요. {벗터만} 있는 게 아니라 벗터이도 있고 벗이 해일에 쓸게 거 나무 세운 거이 다 있을 거여.

2.1.11. 부담, 부뚜막

부담은 가마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가마의 크기만큼 돌과 진흙을 60cm 높이로 쌓은 것을 말한다. 가마를 엮는 부뚜막과 같다. ‘불+담’의 합성어이나 ‘불’의 ‘ㄹ’이 탈락된 합성어이다. 부담을 쌓은 위에 가마를 엮는다. 가마 위에 4개의 기둥과 2개의 들보를 걸고 그 들보에 줄을 매어 가마솔 바닥의 고리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또한 들보 위에는 염뱃의 지붕 역할을 하는 띠로 엮은 ‘뜸’을 설치한다. 뜸은 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내리면 삼각형의 지붕 형태가 된다.

- ⇒ 뭐 {부담이라고} 하죠. {부뚜막} 같은 거죠. {부담} 부담 쌓는다 하죠. 부담 쌓는 위에 가마를 그 돌하고 흙으로 쌓는 거죠. 그렇죠 진흙으로. 그냥 건다고 하죠. 뭐 가마를 건다. 가마를 솔이라 소린 안하고 가마로 통해요. 가마 그니까 한번 소금을 끓였을 때 한 가마 불을 땀다 한 가마 땀다 그러지요. 뜸이라고 해갖고 거 옛날에 거저 뭐야 저 뼈비 뽑아 먹는 띠를 엮어서 만들은 것이 거 뜸이요.

2.1.11. 가맛돌, 가마걸돌, 걸돌

가맛돌은 가마를 올려놓기 위해 부담을 쌓을 때 사용되는 돌을 말한다. ‘가마+ㅅ+돌’로 분석된다. 가마를 올려놓는 돌이라고 해서 ‘가마걸돌, 걸돌’이라고도 한다.

- ⇒ 가마를 올려놓기 위해 쌓아 놓은 것을 뭐라 해요? 가맛돌. {가맛돌} 올려놓기 위해 쌓으니깐 {가맛돌}.
- ⇒ 그게 인제 {가마 걸돌이라고} 그러죠. {걸돌} 인제 가마를 올려놓다. 그래서.

2.1.12. 벗자락

벗자락은 벗터가 있는 곳을 말한다. ‘○+자락’의 어형성 구조를 갖는다. 통자락, 벗자락은 통사적 합성구조를 이루지만, 갈자락은 비통사적 합성구조를 이루는 합성어이다.

- ⇒ 통자락은 그 통이 있는 걸 보고 통자락이라 그러고, 갈자락은 갈아놓은 걸 보고 갈자락이 그래. 그게 그 저들이 생각하기는 자락이란 건 내앞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칼은 염밭 저기 {벗자락이서} 아니 {벗자락} 아니다 염판이서 쓰는 것인디. 아니 그것이 저저 소 같은 디가 염판. 갈자락이라도 허고 염판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거기서 사용 하는 거여. 그거 벗이죠 {벗자락}.

2.1.13. 벗말, 서까래

‘벗말’은 벗자락 주변에 염벚을 만들기 위해 세우는 나무 기둥을 말한다. 이때 세우는 나무 기둥을 ‘서까래’라고도 부른다. 염벚은 가마에 소금물을 끓이는 곳이다. 염벚을 만들기 위해 180개의 벗말을 세우고, 둘레는 바람을 막기 위해 이엉으로 두른다.

- ⇒ 여기서의 초가지붕을 이으는 그 짚으로 엮은 걸 이엉이라고 하는데 태안에서는 그 말을 {나래라고} 합니다. {벗말} 박쥬. 이게 나래로 해 이쥬. 해 인다고 이것도 돌르는 거요.
- ⇒ 벗터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이 안 올라오는 데 벗터를 장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벗터에 들어가는 나무가, {서까래가} 180개가 돼야 해. 180개를 뺑 둘러 세우는 건데요, 뺑 둘러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동아줄을 틀어서 둘둘 감아놓고서 벗짚으로 나래를 엮쥬.

2.1.14. 해이다

‘해이다’는 염벚의 가장 자리를 나무를 박은 뒤에 이엉을 엮어서 나무기둥 주변을 두르는 동작을 말한다. ‘○하다’와 ‘이다(기와나 벗짚,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의 합성어이다.

- ⇒ 여기서의 초가지붕을 이으는 그 짚으로 엮은 걸 {이엉이라고} 하는데 태안에서는 그 말을 {나래라고} 합니다. 벗말 박쥬. 이게 나래로 해이쥬. 해인다고 이것도 돌르는 거요.

2.1.15. 염벚허다

벗주의 역할을 하다. 벗주는 염한이에게 염벚을 빌려주고 임대료로 소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 ⇒ 거기서 살 적에는 {염벚허다가} 소금굽다가 그것 못허니까 배를 사다가 고길 잡았지요.

2.1.13. 함통, 함수통, 간수통

함수통, 함통, 간수통은 가마나 섬에 담아둔 소금에서 흘러나오는 간수(짠물, 함수)를 담아두는 통을 말한다. 함통은 염벚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소금을 섬에 담아두면 흘러나온 간수를 모으는 통이다. ‘간수는’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표준국어대사전)이며, 함수(鹹水)는 염분이 들어 있는 물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간통의 물을 함수라고 한다. 그러나 소금이 다 만들어진 뒤에 가마나 삼태미 위에 올려놓은 소금에서 나오는 물을 간수라고 하고, 그 간수가 흘러내린 통을 ‘함수통, 간수통, 함통’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태안 지역의 제보자들은 간수통과 함수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 ⇒ 그게 다 들어요 또 {함통으로} 들어가요. 소금을 건져 놓으니까 그 가마에 깔고 흙으로 덮고 다 했어도 그늬미 흘러서 자꾸 들어간다고.
- ⇒ 간통을 함수통이라고도 하나요? 함수통이라고 하지요. 간통하고 함수통, 간수통 이라고도 하나요? 간수통 이라고는 않지요.
- ⇒ 안털은 가마에다 붓는 털을 갖다가 안털이라고 하고요. 바깥털은 간장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떠 내는 것을 보고 바깥털이라고 하지요.

2.1.16. 외야치, 외얏치

외얏치는 염부(염한이)들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몸에 묻은 흙 등을 씻기 위해 갯벌에 파놓은 웅덩이를 말한다.

- ⇒ 외야치가 무어나면 염부들이. 염부들이 거기서 소금내기 위해서 흙도 말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외야치를 어따 파냐면은 벗 가까이다 파놔요. 파 놓으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물이 고이지요? 그 물을 이용해서 신발 닦고 하는게 그게 외야치여. 일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바닷물이 고이니까 그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거여. 외야치지요. 버긱은 아주 소금 만들라고 좋은 물을 붓는 데가 버긱이고 이걸 {외야치는} 손 발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2.1.17. 호락질하다

혼자서 일만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즉 혼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림이 섞인 표현이다.

- ⇒ 이제 {호락질이라}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소금구울 때만 쓰는 말이라 품앗이도 않고 혼자 하는 일을 {호락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염한이 중에서 식구가 없고 품앗이에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 흙을 말리는 작업을 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보고 그런 염한이 보구 아무개는 호락질로그 저기.
- ⇒ 호락질 혼자 하는 게 호락질이죠. 혼자 하는 일을. 혼자서 일만 하는 사람보고 호락질.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호락. 혼자 하니까 호락. 호락질 한다 그러. 그 사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2.1.18. 가마, 낮가마, 밤가마

낮가마는 가마의 불때기를 낮에 하는 가마를 이르는 말이다. 소금을 만드는 바쁜 철이 되면 밤낮으로 가마에서 소금을 끓이게 된다. 이때 간쟁이는 낮가마를 할 사람과 밤가마를 할 사람을 가르쳐준다. 밤가마는 가마의 불 때기를 밤에 하는 가마를 이른다.

- ⇒ 낮에 하면은 낮가마. 간쟁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사람 보고. 자네는 낮가마 때. 그럼 낮에 때는거고. 자네는 밤가마 때. 그럼 그 사람. 저 사람은 밤가마 때고 그러는 거예요.
- ⇒ 낮에 하면은 낮가마. 간쟁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자네는 낮가마 때. 그럼 낮에 때

는 거고. 자네는 밤가마 때. 그럼 그 사람. 저 사람은 밤가마 때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야로 해야 되지. 주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상으로 염전의 제염 설비에 관한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설비	
자염	염벚 설비	통자락/갈자락/염판, 염벚/염막/벚/움막/벚집 별막/움막, 벚말/서까래, 벚자락, 벚터, 나래/이영, 윗집/뜸, 가마(낮가마, 밤가마), 가맛돌/가마걸돌/걸돌, 부담/부뚜막, 철판/가마/쇠철판, 버긱/흙(흙)/(짚물)구대기, 구대/간장주, 함수통/함통/간수통, 굴뚝, 아구니/구락쟁이
	통자락 설비	통자락/갈자락/염판, 간통/통/우물, 틀, 빨, 띠
	행위	호락질하다, 염벚허다, 해이다, 굴뚝달다
	기타	외얏치/외야치,



[사진 6] 충남 태안군 낭금갯벌 자염재현 장소

2.2. 자염의 생산 방식

2.2.1. 통조금 방식, 무제염전식

통조금 방식은 태안 지역의 자염을 만드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자염을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해수직자식(海水直煮式)⁸⁾과 제방의 유무에 따라 무제염전식(無堤鹽田式)⁹⁾, 유제염전식(有堤鹽田式)¹⁰⁾으로 구분하며, 그 밖에 양반식(揚濱式)¹¹⁾으로 구분된다(정낙추, 2002:4). 무제염전법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셋등방식, 셋구덩이방식, 통조금방식, 제주방식 등이 있다. 셋등방식은 펄갯벌이 발달한 지역에서, 셋구덩이방식과 통조금방식은 펄과 모래가 섞인 갯벌이다.¹²⁾ 충남 태안군의 통조금방식은 무제염전식과, 갈개조금방식이 있다.

모래가 섞인 갯벌을 통처럼 둥글게 파낸 곳에서 소금의 원료인 함수를 만들어서 자염을 만드는 것이 통조금 방식이다. 조금 때 갯벌을 말려 함투를 만드는 방법과 함수를 끓이는 방법은 같으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통조금 방식은 ‘갯벌을 통처럼 둥글게 파낸 곳에 간통을 만들어 소금의 원료인 함수를 모아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조금 때 가래질로 갯벌 흙을 깔대기 모양으로 둥글게 파낸 통자락의 중심부에 밑은 넓고 위는 좁은 말뚝을 막아 간통을 만든다. 말뚝을 띠로 엮은 발이나 이영으로 둘러 갯벌 흙이 간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통자락과 간통이 만들어지면 함토작업 즉 갯벌 흙을 말리는 작업을 한다.

통조금은 아침조금(12물, 한꺼기), 한조금(13물), 조금, 무수, 1물, 2물, 3물, 4물까지 7~8일 동안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통자락에서 파낸 흙은 함수의 염도를 높이기 위해 썬레질하고 덩이판으로 흙덩이를 부수어 잘 말린 흙을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까지 함토작업을 끝내야 한다. 통자락 안에 함토를 다 모으면 간통의 입구(뜰)에 이영을 덮고 진흙으로 단단히 맥질하여 사리 때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통자락 주변에 낮은 독을 쌓아 썰물 때에도 바닷물이 통자락 안에 오래 잠기도록 한다. 조금 4물까지 함토작업이 끝나면 5물부터 11물까지는 바닷물이 밀려오는 사리 때이다. 하루에 두 번씩 밀

8)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땡감이 흔한 지방에서만 가능한 방식이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원도, 함경도, 일부 지방에서 하였다.

9) 갯벌을 썬레로 갈아 말린 함토에 만조 시 바닷물을 여과시켜 함수를 만들어 끓인다.(태안지방의 통조금 방식)

10) 갯벌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염전 바닥의 중앙이나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닥의 모래와 갯벌에 바닷물을 잠기게 한다.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킨 말린 흙을 굽어 웅덩이로 운반하여 놓고 바닷물을 부어 함수를 만든다. 조선후기에서 개항기에 서·남해안에 시행했던 방식이다.

11) 갯벌보다 높은 곳에 염전 바닥을 만든다. 점질토로 바닥을 다지고 위에 사질토를 두껍게 깔 다음 도랑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두레박으로 염전 바닥을 채워 함수를 만들어 끓인다. 강원도, 함경도와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곳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태안 지방의 갈개조금 방식과 유사함.)

12) 소금꽃이핀다(전라남도 민속박물관, 2011:32) 참조. 전통소금의 제염방식별 특징은같은책 김준(2011:244)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려운 바닷물이 통자락 안의 함토를 통과함으로써 염도가 높은 함수가 되어 간통 속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통조금 방식이다. 사리를 지나 아침조금(12물이) 되면 간통 속에 모인 함수를 대름으로 염도를 측정한 뒤, 염벚에 있는 버긔(함수 저장고)으로 운반하여 가마에서 함수를 끓여 소금을 만든다.(정낙추 2002: 10-11). 소금을 굽는 동안 통자락 안의 갯벌 흙은 다시 가래질로 퍼내어 함토작업을 반복하여 간통에 함수를 모은다.

- ⇒ {통조금은} 이것보고 {통조금이라고} 허고 갈개조금이라는 것은 무엇보고 갈개조금이라는 갈개조금은 참 어 설명하기가 골치아픈디 나무를 비어다가 흙을 깊이 파고서 나물 버다 채게 깔어요. 거 어떻게 까느냐면 쉬웁게 얘기해서 이렇게 깔은 이렇게 채제 깔을 테면은 밀이다 이렇게 또 턱이 있으야 돼. 밀이 걸칠 턱이 그래서 이놈이 여기다 어실기 해갖고 이 물이 우이서 물을 부으면 임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저기 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졌어. 이 흙은 워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갈개조금이라 그래갖고서 인력으로 갈아서 말리는 거여 그래서 그 흙을 전부 저따 이 위로 붓는 거여 이게 보통 힘들은 게 아니여 이걸 근데 이것은 소금이 더 나와요.

2.2.2. 갈개 조금 방식, 갈자락 방식, 양빈식

‘갈개’는 편 물이 빠지지 않도록 낮은 둑을 쌓아서 함수가 흘러내리도록 만든 것으로 갈개 조금판의 둑이 낮은 데서 생긴 말이다. 만조 시에도 바닷물이 닿지 않는 갯벌 근처에 갈개 조금판(염전)을 만든다. 보통 가로 세로 6m의 넓이에 60cm 높이로 둑을 쌓는다. 갈개 조금판 둑의 대각선 모서리 바깥쪽에 함수를 받는 웅덩이를 파고 바닥은 함수가 잘 흘러내리도록 함수 웅덩이 쪽으로 비스듬히 만든다. 갈개 조금판 바닥은 함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점질토로 단단히 맥질을 하고 함수가 잘 흘러내리도록 모래를 골고루 뿌린다. 함수가 웅덩이로 흐르도록 둑에 구멍을 뚫고 역새를 여러 겹으로 묶어 그 구멍을 막는데, 이는 함수가 흘러들 때 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갈개 조금판이 완성되면 갯벌에서 함토작업을 한다. 통조금 방식과 같이 갯벌 흙을 잘 말린 다음 그 함토를 바지개로 갈개 조금판에 운반하여, 함토를 갈개 조금판의 2/3까지 채운 다음 외얗치(갯벌에 파놓은 웅덩이, 통조금이나 갈개 조금의 덧물을 부을 때 사용한다.)의 바닷물을 물지게로 날라 갈개조금판의 함토가 충분히 잠기게 붓는다. 바닷물이 함토를 통과하면서 염도가 높아진 함수는 갈개 조금판의 웅덩이로 모인다. 모아진 함수를 간쟁이가 버긔에 운반하면 염한이는 함수를 우려낸 갯벌 흙을 삼으로 파내고 다시 갈개조금 준비를 한다(정낙추 2002: 11-12).

- ⇒ 통조금은 이것보고 통조금이라고 허고 {갈개조금이라는} 것은 무엇보고 갈개조금이라는 갈개조금은 참 어 설명하기가 골치아픈디 나무를 비어다가 흙을 깊이 파고서 나물 버다 채게 깔어요. 거 어떻게 까느냐면 쉬웁게 얘기해서 이렇게 깔은 이렇게 채제 깔을 테면은 밀이다 이렇게 또 턱이 있으야 돼. 밀이 걸칠 턱이 그래서 이놈이 여기다 어실기 해갖고 이 물이 우이서 물을 부으면 임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저기 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졌어. 이 흙은 워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갈개조금이라} 그래갖고서 인력으로 갈아서 말리는 거여 그래서 그 흙을 전부 저따

이 위로 붓는 거여 이게 보통 힘들은 게 아니여 이긴 근데 이것은 소금이 더 나와요. 일본같은 경우도 이게 {갈자락} {갈개조금} 하거든 일본도. 그 바다 흙을 갈아서 말려서 덩프차로 옮겨 운반해다가 여기다가 붓고 바닷물을 갖다 부으면. 그 인력으로 헨 같은 흙이 짙이 안 갈고 얇게 갈으니까 땅을 얇게 갈잖여. 인력으로 갈으니까. 얇게 갈은 대신 범위가 넓지. 범위가 넓으니까 얇게 갈은 놈이 범위가 넓으니까 밑에서 간이 자꾸 올라와서 거기가 더 자꾸 더 먹는 단 말이여 말른 흙으루 그러면 그 놈이 갖다 놓으면 소금이 더 나와요. 우리동네는 농사짓는거 신경안쓰고 댄부 그것덜 댄부 {갈개조금} 사람 통자락한 사람 이 소가 없으면뭘 몇십리가서 소를 한 달에 얼마 주겠다고 하고서 빌려다 서로 허고나서. 그렇게 해서 저뭇이 한 달하면은 무지헌 배로 소금이 한 배여. 나도 처음엔 갈개조금했어요.

이상으로 자염의 생산 방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방식	
자염	통조금 방식/무제염전식	
	갈개조금 방식/갈자락 방식, 양빈식과 유사	
	통조금 방식의 물때	<p>통조금은 아침조금(12물, 한객기), 한조금(13물), 조금, 무수, 1물, 2물, 3물, 4물까지 7~8일 동안 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시기에 함토작업을 함.</p> <p>조금 4물까지 함토작업이 끝나면 5물부터 11물까지는 바닷물이 밀려오는 사리 때에 함수를 모음.</p>

3. 제염 도구

3.1. 자염의 제염 도구¹³⁾

3.1.1. 씨레, 씨리/쓰리

씨레는 통자락에서 함토작업을 하기 위해 바닷물을 머금은 갯벌의 흙을 가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¹⁴⁾ 태안 지역에서 씨레는 [씨리, 쓰리]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태안 지역의 경우 ‘어’가 [으]로 발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리]로 발음된다. 소에 멩에를 씌우고, 씨레질을 한다. 일반적으로 쟁기로 갈고 ‘씨레’는 갈아 놓은 논바닥을 고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지만, 태안 지역에서 갯벌을 가는 데 쟁기를 사용하지 않고 ‘씨레’를 사용하였다. 씨레는

13) 자염 제염 도구는 충남 태안 문화원의 정지수 국장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14) 자염을 만들기 위해 갯벌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는 ‘쟁기, 씨레, 번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그 용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씨레는 쟁기로 일군 염전의 흙을 분쇄하는 도구로, 개흙이 태양열에 노출되는 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흙을 분쇄한다.(홍금수 2006, 162) 씨레는 참나무와 소나무로 만들며, 발 부위가 단단하도록 해야 땅이 잘 뒤집어진다. 번지는 씨레가 토사를 긁고 지년간 뒤 염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함토 덩어리를 부수는 도구로, 장방형의 나무판자 양쪽에 구멍을 뚫고 줄을 메단 형태이다.(유승훈 2008, 88-89)(위진 2010, 재인용)

참나무와 소나무로 만들며, 발 부위가 단단하도록 해야 땅이 잘 뒤집어진다. 긴 각목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살을 7~10개 박고 손잡이를 가로 대었으며 각목의 양쪽에 밧줄을 달아 소나 말이 끌게 되어 있다. 씨레발의 두께가 넓고 크다.

- ⇒ 쟁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논에서 썬 {씨리는} {씨레하곤} 조금 틀려요. 더 그거보다 {씨레가} 크고 씨레 날이 {씨레} 이빨이 더 굵고 납 넓적해요. 논에서 옛날에 논에서 모심길려고 씨레질하는 씨레보다는 씨레의 크기가 크구 씨레발의 두께나 넓이가 커요.
- ⇒ 소로 갈았죠. (소하고) 아님 그 파낸 흙을 부시러가지고 늘어놓고 가니까 씨레가 있죠. 소가, 소에다 매갓고 끌고 가는 {씨레가} 있는데. 씨레가 이렇게 흙을 갈거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또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서 또 덩어리가 큰 놈이 있으면 깨뜨리게 되게 댕이 깨뜨, 댕이판이라고. 넓고 두꺼이,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나무판을 소에다 매달고 또 돌아댕기요. 그렇게 하면 댕이가 다 깨지죠. 또 자꾸 저저 가면 또 아래로 뺨돌게 하고 또 댕이 파는 거 돌리고, 그러고서. 흙을 파낸 다음에 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려면 {씨레로} 이제 갈고대니면 다 인제 부스러져서 갈고대니죠. 서로 갈고대닌다 그래서 갈 자락이요.



[사진 7] 씨레, 씨리

3.1.2. 가래, 일곱가래, 아홉가래/구명가래

통자락의 중심에 간통을 만들기 위해 갯벌흙을 파내어 떠서 던지는 도구이다. 삽의 일종으로 삽의 양쪽에 줄의 수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예컨대 일곱 명이 하는 일곱모 가래와 아홉명이 하는 아홉모 가래, 아홉 가래, 구명 가래가 있다. 일곱모가래는 가래를 잡는 사람 1명과 한 쪽에 3사람씩 여섯 명의 사람이 줄을 잡고 가래질을 하는 가래이다. 가래를 이용하여 갯벌흙을 깊이 파는 행위를 ‘가래질하다’라고 한다. 아홉모가래는 9명의 사람이 가래를 잡고 하는 것을 말한다.

- ⇒ 가래질도 해야되고 {가래는} 그 웅덩이 통자락을 팔 때는 {가래로} 파죠.
- ⇒ 가래를 이용해서 흙을 파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래질이죠. 가래 일이 맞기는 하는데. 가래 질이요. {일곱모 가래}. {아홉, 구명 가래}. 저 가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고다리를 만들어 꿰가지고 이쪽에다 줄을 매요. 이쪽도 똑같이 그래서 한 짝 두 개가 세 명씩 붙이고 가래 있는

데가 하나 서고 하면 일곱 가래. 일곱모 가래. 세 명 세 명 여기 잡고 있는 사람 한 명. 아, 그럼 일곱 가래. 아홉 가래는 네 명. 네 명. 네 명 인제 아홉. 구멍 가래.



[사진 8] 가래

3.1.3. 나래

나래는 말린 함토(갯벌흙)를 통자락(간통)으로 모으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논밭을 반반하게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 씨레와 비슷하나 아래에 밭 대신에 널판이나 철판을 가로 대어 자갈이나 흙 따위를 밀어 내는 데 쓴다(표준국어대사전).

태안 지역에서 나래는 두세 개의 긴 나무판을 이어서 만들거나 한 개의 나무판 위에 잣나무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판 양쪽에 구멍을 내고 줄을 꿰서 소에 메달 수 있게 하였다.(유승훈 2008, 89)

- ⇒ 나래질 한다 하지요. 나래. 나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우선 나래부터 만들어야 나래질을 하지요. 이다판을 나무 넓적한 제제소에 가서 만들어요. 넓적하게. 이다판을 만들어서 거게다 구멍을 다섯을 뚫어요. 어떻게 뚫냐. 우에다 뚫거든요? 우에다 뚫고서 나무를 다섯을 꽃고. 그 꽃은 우에다가 연결시켜. 그 손잡이 하는 나무가 우에가 있는데 그놈과 연결을 시켜요. 꽃은 나무를. 거기 거기에다가 왕대. 대가 마디마디 대가 있죠? 왕대. 왕대를 다 쪼개서 엮어. 거기 다 인제 흙이 더 못 넘어 가게끔 엮는 거여. 다섯 개를 세웠으면 이렇게 전부 엮어지겠죠? 이렇게 책제 이렇게 해서. 엮어져서 그놈을 그게 나래여. 맨 밑에다 구멍을 넣고 구멍에서 소에 다 연결해서 소가 끌고 끌면 사람이 붙잡고 가면 흙이 조금 덜 때 흙이 모로 가는 거여. 그럼 나래는 흙을 모을 때 사용하는 건가요? 예. 나래질이여.

3.1.4. 뎡이판, 덩이판, 이다판

씨레로 간 갯벌흙덩이를 부수는 넓은 나무로 만든 판을 말한다. ‘번지’¹⁵⁾의 태안지역

15) ‘번지’는 논밭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모판을 판판하게 고르는 데 쓰는 도구이다(표준국어대사전). ‘번지’는 씨레가 토사를 긁고 지난간 뒤 엮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함토 덩어리를 부수는 도구로, 장방형의 나무판자 양쪽에 구멍을 뚫고 줄을 메단 형태이다.(유승훈

방언형으로 쓰인다.



[사진 9] 나래

⇒ 인제 {댕이판이라고} 해서 두터운 {이다판을} 달아서 또 이다판을 달고다녀서 서는 거여. 두꺼운 나무, 그놈을 달고서 거기다 사람이 둘씩 싹씩 올라타요 그 흙댕이가 다 깨지라고. 그러고서 5 일 동안 다 말랐으면 인제 그 흙에 바닷물이 올라오기 전에 그 통에다 다 뱅글이 거다 넣는 거여. 그 물 들어온 날부터 사일 간은 나뉘야 허. 그러기 여덟멧날부터 열두멧날까정은 그냥 놔둬야해. 그리고 조금 되면 인제 저 저거 해야 허. 열두메 아침조금 한조금 무시 한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3.1.5. 되주걱, 뜰채

나무의 속을 구유처럼 파서 만든 도구이다. 소금밭이 좋은 지를 살피기 위해 소금을 건질 때 사용하기도 하고 거품이 일면 거품을 떠내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이 지역에서는 ‘되주걱, 뜰채’ 등으로 부른다. 주걱은 밥주걱처럼 끝이 둥그런 형태가 있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형태도 있다. 소금을 많이 풀 수 있도록 나무의 속을 파내어 쓰레받기처럼 만든 후에 자루를 연결한 형태도 있다.(유승훈 2008, 91)



[사진 10] 되주걱

⇒ {되주걱}, {되주걱은} 나무를 이렇게 움파지게 이렇게 세모지게 파서 이렇게 인제 소금이 저 발이 좋은가 소금이 좀 크고 작은 것을 보느라고 {되주걱을}, 소금을 이렇게 푸는 것을 {뜯채}

3.1.6. 무지게, 물지게

통자락 아래의 간통에 모인 함수(소금물)를 엮벗으로 옮길 때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넓은 등판에 긴 나무를 대고 양쪽에 갈고리를 메달아서 나무로 된 물통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유승훈, 2008:90) 무지게에 물통을 지고 엮벗으로 옮기는 일은 간장이가 맡았다.

⇒ 지는 것은 {무지개고} 그 통는 그냥 통이요. 나무로 만들었쥬. 그러니께 물통을 두 개 만들어서 지게가 있는 데 그 양 짝에다가 달아매갓고 다니는 무지개, 그것으로 저올리지요.



[사진 11] ① 씨레 ② 무지게 ③ 물통(황) ④ 되주걱 ⑤ 삼태미

3.1.7. 물통, 통, 황

통자락의 소금물을 엮벗의 함수 구덩이(버긋)로 옮기는 도구이다. 물통은 나무로 만드는데 물지게에 걸어서 사용하였다. ‘물통, 통, 황[위 사진 참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물통의 모양은 바닥 부분은 넓고, 윗부분은 좁게 한다. 이는 간통에서 엮벗으로 저서 나르기 때문에 잔물이 걸을 때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지는 것은 무지개고 그 {통은} 그냥 {통이요}. 그러니께 {물통을} 두 개 만들어서 지게가 있는

데 그 양 짝에다가 달아매갖고 다니는 무지개, 그것으로 저을리지요. 그거를 {황이라고도 하는데} 대게 물지게라 그러드라구요.

3.1.8. 털, 안털, 바깥털

털은 간장이가 찼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로 바가지의 일종이다. ‘털’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안털, 바깥털로 구분한다. 통자락의 간통에 있는 찼물을 물통에 담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바깥털’이라고 부르고, 버긱에서 가마에 함수를 퍼올릴 때 사용하는 것을 ‘안털’이라고 부른다. 바깥털은 안털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간쟁이가 들고 다닌다. 반면 안털은 염벳 안에 마련되어 있는 함수 구덩이(버긱)의 함수를 꿰이기 위해 가마에 옮겨 부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바깥털보다 크다.

털은 통박의 윗부분을 동그랗게 파내고 함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입구를 작게 만들어 긴 막대를 이어 붙인 형태이다. 털의 명칭은 염벳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과 안에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 구별되었다.



[사진 12] 털(좌), 물통(황)(우)

- ⇒ {털}, 그게 벳 안에서 벳이 뺱 돌려있으면 가마가 걸렸쥬. 가마가 있으면 가마에다 물을 떠서 붓는 것이 {털이여}. 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박을 단단하게 박을 세 개 여러 개해서 딱 갈라서 박을 타는 게, 말리는 게 아니라 구녕을 훑파. 구녕을 훑파서 꼭지 있는 데는 네모지게 하고서 나무를 네모지게 깎아서 거기다 넣어. 넣고서 저 짝 꼭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그러면 이제 그 박 안이가 계속 해서 들어갔쥬? 그러면 그 놈을 떠서 웬만큼 파졌으니께 똑 떠서 한 바가지 내면 갖다 가마니에 붓고 그놈이 털이여. 그 벳 안에가 벳 안에다가 통이, 큰 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통을 가마에다 다 부우면 한 가마가 딱 맞아. 그 {털로} 떠서 붓는 거예요.
- ⇒ {바깥털이} 있고 {안털이} 있지요. {안털은} 가마에다 붓는 털을 갖다가 {안털이라고} 하고요. {바깥털은} 간장이가 간수통에서 떠내는 것을 보고 {바깥털이라고} 허지요. 안에서 뜨는 놈은 그 박이 큰 놈이래야 하고. 바깥에는 네모지게 구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은 놈이래야 되요. 크기도 다르지요. 그것도 조그만데서 떠내니까 박이 작고 조그만 것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만. 벳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바깥털은 인제 간쟁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3.1.9. 고무래¹⁶⁾

함수를 끓여 자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마의 바닥이 눈에 될 때, 바닥을 긁는 데 쓰는 도구이다. 긴 나무 자루 끝에 나무 판자를 대서 ‘丁’ 자 모양의 기구이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그러모으고 퍼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사용한다(표준국어대사전).

- ⇒ {고무래요}. {고무래는} 어, 불때서 그 가마에서 김나기 시작하면은 소금이 그때부터 생기거든요. 조금씩 생기면은 어 바닥을 자꾸 긁어야 돼. {고무래로} 긁으야 아 이 소금이 솥에 가 들 들어요. 아이 그 인저 그놈을 다시 물을 잔뜩 갖다 넣어요. 그 통에다가 벗 안의 통에다가 잔뜩 갖다 붓고 그 높은 소금을 거기다 넣어. 그 물에다 그러면 그놈이 거기에 녹어. 녹으면은 그놈이 또 그놈 떠서 하면 또 구워져. 아이 따로 부르지 않고 뭐 이런데서 밥혀는 누룽지랑 똑같죠.
- ⇒ 소금을 긁는 것은 {고무래}. 소금 긁는 거. 가마솥에서 소금을 긁는 걸 {고무래}. 고무래요. 고무래는 어, 불때서 그 가마에서 김나기 시작하면은 소금이 그때부터 생기거든요. 조금씩 생기면은 바닥을 자꾸 긁어야 돼. 고무래로 긁으야 이 소금이 솥에 가 덜 들어요

3.1.10. 대름, 대림

‘대름, 대림’은 소금물의 염도를 측정하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나무에 송진을 녹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작은 돌을 넣어서 송진을 동그랗게 뭉치고, 뭉칠 때 노끈을 넣어서 만든 염도 측정도구, 비중계이다. 태안 지역에서는 ‘대림’이라고도 한다. 이때 송진 이외에도 황랍, 밥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태안 지역에서는 송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간통에서 함수가 만들어지면, 간쟁이는 대름을 이용하여 염도를 측정한다. 함수에 대름을 담갔을 때 재빨리 솟아오르면 함수의 염도가 높은 것이고, 천천히 뜨면 낮은 것이다. 함수의 염도는 대략 13도에서 15도 사이인데, 낮을수록 염도가 높다. 간통에 대름을 넣었을 때 염도가 낮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싱거운 함수를 떠내어 버리면 염도가 높아진다. 염도 측정이 끝나고 나면 간쟁이는 간통의 함수를 물지게로 지고 염뱃의 버긱으로 옮긴다. 간통의 입구에 대름을 넣어 염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대름본다’라고 한다.

한말 이후에 들어온 뽀메(ぼめ)는 유리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수은이 들어 있다. 대통을 가지고 간수를 푼 뒤에 이 안에 염도계의 하단을 집어넣는다. 염도가 높을수록 수은이 위로 올라간다.(유승훈 2008, 92) 현재 ‘뽀메’는 천일염을 염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 {대름}, {대림이라} 하죠. 그러니까 송진을 따다 녹여서 납작하게 만들고서 거기다 콩알만한 돌을 넣고서 그 송진을 땡그랗게 뭉쳐요. 뭉칠 적에 노끈을 하나 넣고서 달아, 같이 뭉치거든요. 그러면 얼르면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놈을 노끈을 이제 저 우에 나무에 달아매 갖고 재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남, 전남, 충남의 방언형으로 ‘당그래’가 있으나, 태안 지역에서는 ‘고무래’로 쓰인다.

쥬. 넣으면 어느 정도 짠 데까정 그 놈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우에 습습한 놈은 다 떼내고, 떼내서 버리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이놈은 나중에 열고서 {대림으로} 저거 보고서 우이 승그우문 건져내고 짠놈만 가져가는 거고. {대림을} 불러면 끈을 달아서 송진으로 맨들었던 그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진 13] 대름, 대림

3.1.11. 뎡이판, 덩이판, 이다판

뎡이판은 함토작업을 할 때 소에 매달아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하는 도구이다. 태안 지역에서는 ‘뎡이판, 뎡이판, 이다판’ 등으로도 부른다. 뎡이판 위에 돌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기도 한다. 함토작업을 할 때 소에 뎡이판을 매달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흙덩이를 부수는 행위를 ‘뎡이질, 뎡이질’이라고 한다. 뎡이판에 사용하는 두꺼운 나무를 ‘이다판’이라고 한다.

- ⇒ 또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서 또 덩어리가 큰 놈이 있으면 깨뜨리게 되게 뎡이 깨뜨, {뎡이판이라고}. 넓고 두꺼이,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나무판을 소에다 매달고 또 돌아뎡기요. 그렇게 하면 뎡이가 다 깨지쥬. 또 자꾸 저저 가면 또 아래로 뺨돌게 하고 또 뎡이 파는 거 돌리고. 그래서 이제 뎡이판이라고해서 두터운 이다판을 달아서 또 {이다판을} 달고다녀서 서는 거 그놈을 달고서 거기다 사람이 둘씩 싣씩 올라타요. 그 흙덩이가 다 깨지라고.



[사진 14] 뎡이판

3.1.12. 후리채

후리채는 가마에서 함수가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을 대칼로 한쪽으로 모은 거품을 건지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대나무를 쪼개어 파리채처럼 만든다(정낙추, 2002:9).

- ⇒ 거품을 이렇게 대나무로 부채살마냥 종이를 안 붙인 부채처럼 만들어서 소금이 막 끓을 때 거품을 건어내는 걸 {후리채}

3.1.13. 삼태기, 삼태미

‘삼태기’는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이다. 가는 싸리나 대오리, 칩, 짚, 새끼 따위로 만드는데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며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어서 만든다(표준국어대사전). 이 지역 방언형은 ‘삼태미’이다. 노감주나무를 둥글게 휘어서 가는 새끼로 그물을 짜듯 촘촘히 엮어서 만든 것으로 가마에서 건진 소금을 담아 간수를 빼는 도구이다. 채반 같은 모양이다(정낙추, 2002:10).



[사진 15] 삼태기, 삼태미

3.1.14. 대칼

대나무를 쪼개서 칼처럼 만들어, 함수가 끓을 때 거품을 한쪽으로 모으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 ⇒ {대칼이요?} {대칼은} 염밭 저기 벗자락이서 아니 벗자락아니다 염판이서 쓰는 것이다.

3.1.15. 섬, 소금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표준국어대사전)이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소금을 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섬’이라고 한다.

- ⇒ 아니 거 {가마니다} 먼저 놓는 게 아니고 벗 안에다 그냥 걸 이렇게 뱅 뽀뽀히 만들어진 데다 {가마니를} 한 장씩 깔아요 {가마니}. 비니루 깔면 안 돼요. 비니루 깔면 물이 더 고여요. 자꾸 거기거 {가마니는} 물이 세서 들어가면 흙으로 들어가죠. 비니루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니루는 필요없고 {가마니를} 깔고 소금 소금을 가마에서 꺼내서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가마에다가 가마니에 담아서 한 {가마니에} 오십키로씩 옛날에 오십키로씩이여 지금이 삼십키로지 옛날에 오십키로씩 담아서 일 년 내 담어도 일년 내 물이 쏟아져 거기서 그러니 녹어서 그 소금이 녹아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소금 자체에서 물이 생겨나와 뭐 달해보면 저 울갯다 달해보면 하나도 줄어진 게 없어 그래도 물이 자꾸 나와.
- ⇒ 물통 이건 무지게 이건 쓰레 이것은 {소금섬}



[사진 16] 섬

3.1.16. 부지깽이, 부지땡이

‘부지깽이’는 아궁이에 솔가지 불을 땡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태안 지역의 방언형은 ‘비지땡이’이다.

- ⇒ 이거 불 땡 때 머 부지깽이? {부지깽이} 있지요. 그거 혹시 비지땡이라고 하세요 부지깽이라고 하세요? 비지땡이. 아니 그게 옛날부터 {부지땡이여.} 부지땡이.

3.1.17. 소

함토틀 만들기 위해 조금 때 갓뽀흙을 씨레로 갈 때, 나래질, 땡이질을 할 때 사용된다.

- ⇒ {소로} 갈았쥬. (소하고) 아님 그 파낸 흙을 부시러가지고 늘어놓고 가니까 씨레가 있쥬. 소가, 소에다 매갓고 끌고 가는 {씨레가} 있는데. 씨레가 이렇게 흙을 갈거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돼있쥬. 또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서 또 덩어리가 큰 놈이 있으면 깨뜨리게 되게 땡이 깨뜨, 땡이판이라고. 넓고 두꺼이,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나무판을 {소에다} 매달고 또 돌아땡기요. 그렇게 하면 땡이가 다 깨지쥬.

이상으로 자염의 제염 도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기능별 구분	제염 도구
자염	염밭갈이 도구	쓰레/쓰리/씨리/씨레, 이다판/텅이판/덩이판/나무판, 나래, 가래(일곱모가래, 아홉모가래/아홉가래/구명가래), 소
	나르는 도구	무지게/물지게, 털(안털/바깥털), 물통/통/황
	소금을 거두고 담는 도구	되주걱/뜰채, 삼태기/삼태미, 섬/소금섬, 고무래
	측정 도구 및 기타	대름/대림 ¹⁷⁾ , 송진, 부지땡이/부지깽이, 대칼, 후리채,
	행위	땡이질하다, 나래질하다, 가래질하다, 쓰레질하다, 텅이타다, 대름보다

4. 제염 과정

4.1. 자염의 제염 과정

4.1.1. 염벧 만들기

1) 벧얹하다.

‘벧얹하다’는 염벧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솥에서 함수를 끓이는 장소에 움막을 짓는 것을 말한다.

- ⇒ 벧을 안친다. 그게 인제 벧을 새로 짓는 거여. 다 아, 벧을 짓는 거를? 벧을 안친다 그러. 새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벧을 얹힌다. 나무를 뱅글히 박고서 나제고 히니까 벧을 얹힌다. 그러지. 염벧은 인제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벧주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2) 부담쌓다

‘부담쌓다’는 가마솥을 걸기 위해 돌을 쌓는 것을 말한다. 부담쌓기가 된다.

- ⇒ 그다음에 이제 그 가마를 이렇게 받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뭐 {부담이라고} 하죠. 부뚜막 같은 거죠. 부담. 부담? 부담에다가 건다 이거죠? 부담 쌓는다 하죠. 부담 쌓는 위에 가마를. 부담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그 돌하고 흙으로 쌓는거죠. 그렇죠. 진흙으로.

3) 가마걸다

함수를 끓일 가마를 부담 위에 얹는 것을 ‘가마걸다’라고 한다.

17) 전라남도(곤이), 소금꽃이피다(2011:48)

- ⇒ 그냥 건다고 하죠. 뭐 가마를 건다 가마를 솔이라 소린 안하고 가마로 통해요. 가마 그니까 한 번 소금을 끓였을 때 한 가마 불을 땀다 한 가마 땀다 그러지요. 인제 가마 걸돌 이라고 그러죠. 걸돌. 인제 가마를 올려놓다. 그래서. 걸돌. 그면 걸돌 위에 인제 가마를 얹는 거를 뭐라고 래요? 가마를 얹히면 인제 끝나죠. 그걸 뭘. 뭐. 가마 걸다라 그래요? 솔 얹힌다 그래요? 솔을. 가마 건다 그러지요.

4) 버긱파다

염벳 안에 함수를 저장할 버긱을 만들다. 먼저 한 길 정도 깊이로 땅을 판 뒤에 뿔로 내부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바르게 되면 함수를 저장할 버긱이 완성된다.

- ⇒ 그 버긱은 버긱은 아까 내가 말을 했는데. 간장이가 물을 저다가 벳 바깥에 부으면 버긱으로 들어와. 벳 바깥에다가 부으면? 응. 이렇게 들고 만들어져 있어. 아주 그럼 거기다 부으면 그 물이 불어나면 워디로 가냐. 버긱으로 들어와요. 버긱은 어떻게 만들어요? {버긱은 거기를 깊이 파고}. 한 질이지. 이렇게 손 뺀어도. 거기 안에를 머 시멘트나 이런 걸로? 아니 시멘트로 얹고. 뿔을 갖다. 벽을 붙여요? 예. 아주 딱 굳어 만지고 해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놈을 발라요. 그러니까 네 번 내지 다섯 번 발라야 돼. 그래야. 그렇게 발라야 갖다 부어도 그물이 소비가 안 되지. 그렇지 아니면 인제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드니까. 아이구, 그러면요. 예. 그것을 버긱이라. 그러면그게 혹시 벳에 만드는 구덩이라서 벳긱이 버긱이라고 된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벳 있는데 만드는 구덩이다. 예. 그게 버긱이여. 그러니까 벳에다 만드는 웅덩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5) 해이다

벳말을 박은 다음 바람이나 비를 막기 위해 짚으로 엮은 나래를 두른다. ‘해이다’는 것은 벳말에 나래를 두르는 것을 말한다.

- ⇒ 벳말을 박는다. 벳말을 박은 뒤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이게 저 금 나래로 해이죠. 나래로 뭘한다고요? 이 해인다고. 해이다? 예. 그 말은 옆에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예. 이것도 이것도 돌리는 거요.

6) 뜸하다, 옷집하다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을 만드는 것을 ‘뜸하다, 옷집하다’라고 한다. 충남 태안 지역의 염벳은 지붕이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마솔에 함수를 끓이는 동안 비를 막기 위해 지붕만들기를 해야한다. 옷집, 뜸은 지붕에 대응되는 태안 지역 생활어이다.

- ⇒ 어르신이 그 벳집에 위에 지붕 만드는 것을? 뜸. 뜸이라고 하셨는데 옷집이라고는? 예. 그게 옷집이라고도 하지요. 왜그냐면은 비를 못들어가게 하니께. 옷집. 비우 자 써서 인자 그렇게 만든거니께.
- ⇒ 뭐 염벳이야 말뚝 박고 이영으로 바람이나 안 들어오게 하고 천정은 둥그렇게 뚫려서 김이 빠져나가야 하니까 지붕이 없었죠. 다만 그 가마솔에 갑자기 소금을 끓이다 소나기가 오면은 그

걸 막기 위해서 뜬이라는 걸 했죠. 뜬은 지금 말로 하면 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솔을 가리는.

4.1.2. 통자락 만들기

1) 갯벌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표준국어대사전)으로 풀이하여 개펄과 모래사장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충남 태안 지역의 자연을 만드는 방식은 통조금 방식이다. 통조금 방식에서 염벚, 통자락, 간통, 염벚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통자락을 만드는 갯벌의 상태는 갯빨(바닷물이 드나드는 진흙땅)과 모래가 혼합된 혼합갯벌이어야 한다.

충남 태안 지역의 자연법은 통조금 방식¹⁸⁾이다. 통조금 방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갯벌’이다. 자연 제조에 적합한 장소는 모래가 약간 섞인 갯빨로 조금(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은 기간) 때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 때 갯벌에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갯벌에서도 높은 지대여야 한다. 조선 후기 서해안의 염전에서 음력 8일에서 12일까지, 23일부터 27일까지 각각 5일 동안 함토작업을 하였다.(승정원일기, 1068책, 영조27년 5월 1일, 유승훈, 2008:62참조) 상현과 하현의 전후로 물이 염전까지 닿지 않으므로 염부가 소를 끌고 다니며 흙을 갈아엎을 수 있었다. 결국 승정원 일기의 함토작업이 가능한 시기는 상현(매달 음력 7-8일)과 하현(음 22-23)은 5일간이다. 반면 현재 태안 지역 제보자들의 함토작업 가능 시기는 ‘조금 시기’인데, 아침조금(12물/초 6일/21일)에서 4물(초 13일, 28일)은 7~8일간이 되는 셈이다. 최근 자연재연사업을 통해 확인된 함토작업 시기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뭐냐면 {갯벌을}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판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은 어색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여 한 짝은 깊고, 양 짝이 어색하게. 이렇게 해서 다 경운기를 갈아요 양짝을. 그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거기가 마른 흙이 이제 자꾸 가라앉으면서 찌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서 큰 통에 들어가요. 거기가 한 50쯤 들어가. 침으로. 말하자면, 깡통으로 허면은 한 100개. {갯벌} 흙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때 말려가지구 그것을 인제 말하자면 바닷물을 말린 {갯벌에} 바닷물을 투과시키면은 그 함수 즉 소금물이 이제 염도가 높아지겠죠 그 높아지는 것을 그걸 갈다 끓이면 이제 자연인데요.

2) (웅덩이) 파다

통자락의 중심부에 간통을 만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갯벌 흙을 가래로

18) 입빈식 무제염전법을 말한다. 만조 시 해안가로 밀려온 해수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어 이용한 염전이다. 이 염전법은 제방이 없으므로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염전에서 함토작업을 한다. 즉 사리 때 염전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토사에 흡윤시키고, 바닷물이 빠지는 조금 때는 갯빨을 갈아서 토사에 염분을 달라붙게 한다. 입빈식 무제염전의 함토작업은 조석의 성쇠에 영향을 받는다.

파낸 웅덩이는 진 빨로 내부를 바른다. 함수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 통자락을 할라면은 흙을 먼저 파내지요. 뭘로 파내셨어요? 사람으로 찼죠. 도구가? 가래. 파내고 그 다음에. 거렇게 하고선 인제 통자락을 뺑돌리를 먼디가서 아주 짙은 진 아주 빨을 아주 끈적끈적한 빨을 펴를 갖다가 뺑글 다 발라요. 예, 발르야 그 물이 땅 땅속으로 안들어가지. 그래서 그 그냥 발르디를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졌어요. 통자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졌는디. 왜냐면 그 펴를 다 발르야 돼 뺑글리.

3) 벳말세우다, 통자락세우다

웅덩이를 파고 내부에 진 빨로 바른다. 벳말을 박고 간통을 만든다. 벳말의 테두리는 모기장 등으로 두른 다음, 진 빨로 표면을 바른다.

- ⇒ 나무를 세우고서 뺑돌리를 다 그 먼디 가서 좋은 아주 더 뚫뚫한. 거기에는 짚 같은 거 안하고 그냥? 아니요 안 해요. 아이 빨로 발르는 거예요 빨로 발르야 그 찐물이 뚫 데로 세나가지를 알아요. 그렇게 발르 그 빨을 발르고 모래를 또 뺑글 피워요.
- ⇒ 그 다음에 벳말을 세우고 통자락을 세우고서 거기다 가마나나 마대나 이런 걸로 감어야 흙이 안 들어가게끔 허고서 물 고이면 허는 거야. 딱 솟에다 갖다 부으면. 아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대를 놓고 빨을 붙이는 거예요? 마대 안. 아니 거기는 저 뭐여, 마 짚이나 가마나나 마대를 뺑글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 흙을 인제 말린 흙을 그 판디로 다 모아 넣는거요.

4) 찐물모으다

‘찐물모으다’는 통자락에 사리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서 간통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간통 속에는 함수가 모이는 것을 말한다.

- ⇒ 그렇거면 통자락 고것만 거기에만 흙이 안 들어가지 다 흙이 들어가잖여. 그러니까 그 님이 그 님이 인제 바닷물이 들왔다 나가면은 자꾸 가라앉으면서 그 찐물이 통자락 안으로 들어오지.

4.1.3. 갯벌흙 말리기(함토작업)

1) 갯벌흙, 갯벌, 뺑

갯벌의 흙을 이르는 말이다. 조금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갯벌의 흙을 썩레로 갈게 되면 염도가 높은 갯벌흙이 된다. 갯벌의 흙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 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른다. 흙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가 생겨 염도의 농도를 높게 한다.

- ⇒ {뺑이라는} 말도 쓰시고 펴이라는 말고 쓰셨는데 이거는 바다의 흙을 말하는 거죠? 예 바다의 저걸 얘기하는데 뺑은 음... 보통 이 소로 갈어서 말리는 데 그 부근 흙을 뺑이라고허고 이제 간통 거기 맏길힐라고 가져오는 흙을 이름이 달잡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간펄. 아까 그 간통 만드려고 하는 흙은 간펄이라고 하고. 예예 그러죠. 그냥 일반적으로 소 가는 거는 뺑. 뺑 펴

좀 다르네요. 그래도 이기 똑같은 말이유 똑같어. 갯벌 갯펄이라고도 하시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요.

2) 간통자락

함수를 만들기 위해 씨레로 갈아 놓은 염밭을 말한다. 염밭에 대응되는 충남 태안에서는 ‘간자락, 간통자락’이라고 한다.

- ⇒ 갈아놓은 거기를 염밭이라고도 하나요? 그 갈아 놓은 갯뺨 갈아놓은 거를? 음, 그게 그게. 염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않고 전라남도 가니께 염밭이라고 허데요. 그럼 여기서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염한이들이 한 일이니께 그냥 {간통자락} {간자락}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뭐 우덜이 전국을 다니면서 물. 제방싸서 벌써 묻으니께 워디가 저 나아 제일 놓은 지역을 고르는 거시 냉금을 골랐는데. 전라남도 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3) 간펄

간통을 만들기 위해 갯벌에 구덩이를 파게 되는데, 구덩이 안에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 간통의 벽을 바르는 흙을 이른다.

- ⇒ 뺨은 음 보통 이 소로 갈아서 말리는 데 그 부근 흙을 뺨이라고 허고 이제 간통 거기 맏길힐라고 가져오는 흙을 이름이 달브잖아요 {간펄이라고}

4) 갯물, 바닷물

바닷물을 이르는 말이다. 바닷물의 염도는 보통 2~3도 정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흐르는 물’이라 하는데, 제보자는 바닷물을 ‘갯물’이라고 한다.

- ⇒ 그러면은 혹시 일단 바닷물을 갯물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예, {갯물이죠} 바닷물 보다는 여기서는 갯물이라는 물을 더 많이 쓰시나요? 예. {갯물이라고} 많이 쓰죠. 짠물은 어때요? 짠건 이제 주로 이제 뭐야 염전이나 간통 같은데 나온 걸 짠물이라고 하고. 간수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간수는 이제 소금에서 흘러나온 것 보고 간수라 하고. 짠물은 간통자락 같은데서 나온 게 짠물이고. 그다음에 인제 소금을 다 한 뒤에 거기에서 나온 물은 간수. 간수지요. 혹시 그 간통 통자락을 간통이라고도 하시나요? 우리덜이. 그때 소금 만들라고 일 할 때는 인제. 아주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양반이 90세였슈. 근데 그냥반이 거의 지시 했슈. 그 냥반이 지시했다구. 내가 이가 빠져서 말이 잘 만나와요. 그 냥반 말 들으면은 하나도 실패가 없어. 그래서 그 냥반 말을 아예 듣고 그랬는데. 그 분이 간통이란 말씀을 쓰세요? 예예. 그분이 간통. 그렇지요. 지금부터 한 백년 이상된 말이지요 그게.

5) 뺨뒤엎다

뺨뒤엎다는 함토작업을 할 때 갯벌흙을 씨레로 갈아서 뒤집는 것을 말한다.

⇒ 뽕을 뒤엎는다 그러지. 머 함토나 간토를 뒤집어 건다는 얘기는 없지요. @뒤집어 건다? 아래를 자꾸 저스니께 뒤집어 지지요. 그게 뒤집어 지면은 마르고. 땡이판을 대서 땡이를 깨치고.

6) 깨치다

씨레로 갯벌흙을 갈고 난 뒤에 생기는 흙덩어리를 땡이판으로 깨다.

⇒ 뽕을 뒤엎는다 그러지. 머 함토나 간토를 뒤집어 건다는 얘기는 없지요. @뒤집어 건다? 아래를 자꾸 저스니께 뒤집어 지지요. 그게 뒤집어 지면은 마르고. 땡이판을 대서 땡이를 {깨치고}

7) 갈자락하다¹⁹⁾

조금 때 간통 주위의 개흙을 씨레로 갈고 땡이질을 하고 나래를 이용해 통자락으로 모으는 것을 말한다. 통자락의 주변의 갯벌흙을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 하는 함토 작업을 말한다. 태안 지역의 함토작업 시기는 아침조금(열두메, 8일, 21일)에서 너물(12일, 27일)까지 7~8일간의 조금 시기이다.

갈자락은 통자락 주변의 개흙을 가는 작업을 말하는데, ‘씨레질, 땡이질, 나래질’ 순으로 이뤄진다. 씨레질은 씨레를 이용해 염전의 개흙을 가는 일로 3-5일간 계속한다. ‘땡이질’은 개흙의 땡이를 부수는 일이고, ‘나래질’은 나래를 이용해 소금기 있는 개흙을 통자락으로 모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자락에 올리고, 다진다. 또한 간통의 가장자리는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모기장 등으로 싼 다음 진 빨로 테를 두른다. 5물부터 사리가 되면 통자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간통 안에는 염도가 높은 함수가 모인다.

⇒ 그 다음에는 그 이 아까 갯펄 말리는 그 작업을 뭐라고 하셨어요? 함토작업? 실제로 그 때 하실 때 흙으로 소에다 갈아서 하는 거를 뭐한다? 갈자락 같으니께 {갈자락한다} 그래.

4.1.4. 짚물 옮기기

1) 대름보다

염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대름으로 함수의 염도를 측정한다. 염도가 낮으면 위의 싱거운 물을 퍼내어 함수의 염도를 맞춘다.

⇒ 이게 아주 여기 네모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여기에 흙갔다 모으고 여기에는 우에는 가마니에다 흙을 담아서 딱 우는 흙을 못들어가게 딱 덮고 땡 땡글리 흙을 말린놈을 다 여기다 글거

19) ‘염발같이’에 해당된다. 염발같이는 염전면을 쟁기로 뒤집고, 씨레로 끌고 다녀서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는 일이다.(홍금수 2006, 168) 염전을 갈면 하부의 흙이 뒤집어지면서, 염분의 농도가 올라간다.(김일기 2006, 22)

- 놓으면은 여기가 판판해지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이놈은 나중에 열고서 대림으로 대림으로 저거 보고서 우이 승근 높은 건져내고 짠놈만 가져가는 거고.
- ⇒ 대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간쟁이가 염도를 측정허죠. 그래서 염도를 측정한다 그렇게 안하고 대림본다 그랬죠. {대림본다} 염도를 잴다. 그 소리죠.

2) 저오다

간쟁이는 염도를 맞춘 함수를 물통에 담아서 물지게로 지고 염뱃 안에 있는 버긱으로 옮긴다.

- ⇒ 전부 그 간쟁이들이 통으로 {저왔어}. 옛날에는 전부 저왔습니다. {저와서} 저온 놈들을 베타로 가져와서 베타 바깥에서 붓게끔 만들어 졌어요. 붓게 멀. 아이 인제 이제 틀로 떠서 가마에다 붓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물. 그 물을 저오는데가 굉장히 힘이들어요. 그 빨이 이제 물젓들어가니까 미끄러도 하죠. 그 통이 한 한짜이 물통이 한짜이 얼마 들어가나면은 닷말들어가요 물이 닷말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럼 두. 그럼은 열말을 지고 오는거여. 맨땅도 아니고 미끈데서 그분들이 얼마나 옥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집에서 소금 한 가마씩 받아요. 그럼은 열집이 여기서 일했다 하면은 열집에서 열포대를 받아서 두 사람이 놓는 거여.

4.1.5. 짠물 끓이기

버긱에 옮긴 물은 다시 가마솥으로 옮겨 끓인다.

1) 화목, 소나무

버긱에 옮긴 물은 다시 가마솥으로 옮겨 끓이기 위해 땀감 준비한다. 땀감은 화목이나 소나무이다.

- ⇒ {화목을} 때조 저 요즘은 {화목} 많아요 이 저 산에 가면 간송에서 버린 나무라 엄청 많아요. 그놈을 다 갖다 때는 거죠. {소나무도} 때조 소나무도 간송하니까 슈어 슈어서 버리니까.

2) 거름/거품/버쿰걷다

가마솥 안에서 간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순물이 거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후리채를 이용하여 가장 자리로 모은 다음 대칼을 이용하여 거품을 걷어낸다.

- ⇒ 끓일 때 거품이 생기죠, 당연히. 거품이라 그러죠, 뭐. 거름이라 그러죠.
- ⇒ 그 거품을 이렇게 대나무로 부채살마냥 종이를 안 붙인 부채처럼 만들어서 소금이 막 끓을 때 {거품을 걷어내는} 걸 후리채.
- ⇒ 거품이라. 천상 거품이죠. {버쿰이라도} 그러기도 허고. 저기 {버쿰} 있네. 거품이라 그러죠 뭐 거름 거름 거름 {거름이라} 그러죠

3) (불)조절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은 화부이다. 화부는 염부가 되기도 한다. 불을 땔 때는 불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때다가 소금의 결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즉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뜸을 들인다. 소금꽃이 피기 시작한 다음에 소금꽃이 클 때까지 약한 불에서 끓인다.

- ⇒ {조절허쥌} 소금꽃이 필 때 아까 말씀헌 소금꽃이 필 때는 불을 약하게 해야 돼. 먼저는 불을 많이 올라오게끔 해야 되고 소금꽃이 필 때부터는 불을 약하게 해야 소금이 더 나와. 소금꽃 앉아서 크는 거여 소금꽃 앉은 놈이 자꾸 불때니께 자꾸 크는 거여 자꾸 자꾸 크는 거여.

(1) 불때다

염벧의 철판 위에 소금물을 붓고, 소금물을 줄이기 위해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 ⇒ 이 옛날 소금 그냥 나오믄 화렴이라 그래갖고 {불을 때서} 만드는 것이. 조금이 닥치믄은 흠을. 소로 흠을 갈아요. 뽕을 막 갈아. 여 얹어놔.
- ⇒ 그냥 건다고 하쥌. 뭐 가마를 건다 가마를 솥이라 소린 안하고 가마로 통해요. 가마 그니까 한 번 소금을 끓였을 때 한 가마 {불을 땀다} 한 가마 땀다 그러지요.

(2) (소금)발서다, 소금밭오다

소금밭은 소금의 굵기를 말한다. 소금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소금의 결정이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소금밭이 좋다.

- ⇒ 되주걱 되주걱은 나무를 이렇게 옴파지게 이렇게 세모지게 파서 이렇게 인제 소금이 저 {밭이} 좋은가 소금이 좀 크고 작은 것을 보느라고 되주걱을. 이게 가는 놈이 좋쥌.
- ⇒ 그다음에 혹시 소금밭 선다 이런 말도 쓰세요? 소금밭이 선다. 소금이 이렇게 각으로 만들어 질 때를 {소금밭 선다}. 그게 소금꽃 핀다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소금밭이 선다 그러쥌. 소금밭 {소금밭이 온다}, {소금밭이 선다} 뭐 그렇게 했지.

(3) 소금꽃앉다

아궁이에 불을 강하게 때면 생기는 소금의 결정체를 말한다. 소금꽃이 피고 나면 불의 세기를 약하게 한다.

- ⇒ 조절허쥌 {소금꽃이} 필 때 아까 말씀헌 {소금꽃이} 필 때는 불을 약하게 해야 돼. 먼저는 불을 많이 올라오게끔 해야 되고 {소금꽃이} 필 때부터는 불을 약하게 해야 소금이 더 나와. {소금꽃 앉아서} 크는 거여 {소금꽃 앉은} 놈이 자꾸 불때니께 자꾸 크는 거여 자꾸 자꾸 크는 거여.

(4) 소금꽃피다, 소금발서다

가마솥에 함수를 넣고 센불에서 끓이면 하얀 결정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소금꽃이 앉고, 소금꽃이 점점 크고 마지막에 소금꽃이 핀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소금꽃피다’와 ‘소금발서다’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 소금꽃 앉아서 크는 거여 소금꽃 앉은 놈이 자꾸 불때니께 자꾸 크는 거여 자꾸 자꾸 크는 거여. 인제 처음에 생길 때는 저렇게 크지 않고 이 가공을 하고 말처럼 자지잘게 이렇게 생기고 그계. {소금꽃이 피는거여}. 그러면 그놈이 둘 셋씩 합해지면서 자꾸 굴러져서 이렇게 크는 거여.
- ⇒ 그다음에 혹시 소금발 선다 이런 말도 쓰세요? 소금발이 선다. 소금이 이렇게 각으로 만들어 질 때를 {소금발 선다}. 그계 {소금꽃 핀다}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5) 소금꽃크다

소금의 결정체가 점점 커지다.

- ⇒ 소금꽃 앉아서 크는 거여 소금꽃 앉은 놈이 자꾸 불때니께 자꾸 크는 거여 자꾸 자꾸 {크는 거여}. 인제 처음에 생길 때는 저렇게 크지 않고 이 가공을 하고 말처럼 자지잘게 이렇게 생기고 그계. 소금꽃이 피는거여. 그러면 그놈이 둘 셋씩 합해지면서 자꾸 굴러져서 이렇게 크는 거여.

(6) 덧물 붓다

가마에 함수를 끓이다가 소금의 양이 부족하여 한 가마니의 소금이 나오지 않을 때, 버곳에 있는 함수를 더 넣는 것을 말한다.

- ⇒ {덧물붓기요} 그걸 워떨 때 하느냐면 가마에가 이미 담어진 물을 불을 때다가 남은 물이 있는데 남은 물이 한가마닐 때지 못하고 반가마쯤 되겠다면 그놈을 다시 다 굶어. 땀 그만큼 다른 달궈진디다 또 갖다 더 부어 그럼 이게 {덧물붓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거면은 한 구대(버곳) 한 가마 굶는데 한가마 반을 굶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 댤사람이 득이 되죠. 왜 득이 되느냐 내일까지 이 사람이 구우면은 나를 모레구워야 할텐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구우니께 득이 되죠. 소금물이 염도가 높을수록 좋죠. 땀감이 적게 들고 소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염이 그걸 더 밀으로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붓진 않죠. 다만 끓이면서 소금을 이 불 불달인 철판에 덧물을 붓죠. 덧물을 부으면은 그러니까 밥할 때 덧물 붓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이왕이 똑같은 땀감인데 쇠가 열을 받았으니까 덧물을 붓으면은 땀감을 절략하고 그 가마 안에 있는 소금 생산량이 많을 꺼 아니에요 그 물을 덧물이라 그러죠

5) 소금 수확하기

소금생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소금을 되주적으로 퍼서 삼태미(삼태기)에 담아 물을 뺀 다음 소금섬에 담는다.

(1) 소금굶다

가마솥의 바닥을 고무래로 모으다.

⇒ {소금을 굶는} 것은 고무래.

(2) 되주걱으로 뜨다, 뜰채로 뜨다

소금 결정체를 삼태기에 옮길 하는 동작을 말한다.

⇒ 되주걱? 되주걱은 나무를 이렇게 움파지게 이렇게 세모지게 파서 이렇게 뜰채 인제 소금이 소금이 저 발이 좋은가 소금이 좀 크고 작은 것을 보느라고 되주걱을.

(3) 간수빼다

소금에서 물기를 빼는 것을 말한다.

⇒ 간수 빼다 그러죠. 다해 놓고도 간수 빼는 작업을 해야하나요? 아이 그러면 거 물 속에서 건지니까 소금이 그렇게 놔두면 거 섬에다 담어 놓면 간수가 흘러내리죠. 그럼 소금이 해야지죠. 천 일염도 마찰가지예요. {간수를 빼야 되요.}

4.1.7. 소금물, 간수, 갠수, 짠물, 간물, 함수, 염수

만들어진 소금을 삼태기나 가마에 얹어두면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짠물, 혹은 통자락의 간통 속에 고인 함수를 말한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소금물을 ‘짠물, 간물, 함수(鹹水), 간수, 갠수’ 등으로 불린다.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로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것(표준국어대사전)을 ‘간수’라고 하지만, 충남 태안 지역에서 ‘간수’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 근데 그 가마에 얼만큼 그 그걸 아까 통자락에 싸여있는 물을 뭐라고 해요? 간수? 그걸 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간수 말고? 간수 빼고 다른 말 없죠. 뭐 염분이라고도 하나요? 간수? 염분은 바닷물이 다 염분이죠.
- ⇒ 옛날에는 간수를 많이 쓰구요. 지금은 함수를 많이 쓰지요.
- ⇒ 다섯물에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사리 이때가 물이 가장 많이 물어오나요?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날 지나가야 그 {간수를} 쳐오기 시작하죠.
- ⇒ {염수라고} 했지요. 여기서 염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염수를 함수라고 한자표기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이라고 하고 염수라고 했지요.
- ⇒ 네모지게 각을 만들어서 뱅글 세우죠. 그러고서 모기장이나 뭐 이렇게 흙이 못 지나가게끔 막아놓아서 {짠물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통자락이요. 뭐야 벗 안에는 물을 갖다 그 짠물 갖다 붓는 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간물을} 쳐올 때는 바깥에서 붓고, 벗, 벗 뺑뺑 새는 바깥에서

벗고 그 놈을 떠서 솔에다가 넣을 때는 안에서 뜨거든요. 그니까 아주 구조가 돼있어요. 약 일주일 날마다 그놈만 말리는 거여. 여덟째부터는 거기가 완전히 통자락이 저거가 돼요. 물이 다 차요. 물이 맥히지요.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까지 나흘 간을 말린 흙을, 말린 흙에서 내려가는 {짚물} 그때 가져가는 거요. 염분은 바닷물이 다 염분이죠. {간수} 빼고 다른 말 없죠. 옛날에는 {간수를} 많이 쓰구요. 지금은 {함수를} 많이 쓰지요. 갯벌 흙의 즉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때 말려가지구 그것을 인제 에 말하자만 바닷물을 말린 갯벌에 바닷물을 투과시키면은 그 {함수} 즉 소금물이 이제 염도가 높아지겠쥬 그 높아지는 것을 그걸 같다 끓이면 이제 자염인데요. 벗집 안에는 가마솔이 있구요 옆에는 그 {염수를} 간쟁이가 나르다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 그 저장고는 밖에서 물을 부으면 염벳 안에서 바가지로 풀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버긱이라고 했어요.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날 지나가야 그 {간수를} 저오기 시작하쥬. 그러니까 {간수를} 여기 사람들은 소금물을 간수라고도 통영도 하는데 사실천일염을 천일염에서 흘러내린 물이 간수거든요 근데 그 간수의 성분이 저기 마그네슘하고 칼륨이거든요 되게 짜고 쓴거 그 여기서 간수를 {간수라고} 그렇게 호칭하긴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소금물 자체를 {간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간수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쓰였쥬. 소금에서 흘러내린 물을 간수라고 허는게 정상인데 이 자염을 끓이는 물을 이제 한자로는 함수라 그러잖아요 풀어썼으면 소금물인데 태안 사람들은 걸 간수라 그랬어요 간쟁이가 {간수로} 저날렸다 그것은 {함수를} 저날렸다 {소금물을} 저날렸다하고 같이 통용됐쥬.

4.1.8. 조금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이다. 조금은 매달 초여드레와 스무 사흘 조수가 가장 낮은 때를 일컫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인데,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함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했다. 함토작업은 모래와 갯펄이 섞인 갯벌에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시기를 이용한다. 통조금방식은 바로 통자락을 만드는 것을 조금 시기에 하는 것에 연유한 명칭이다. 자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때 개흙을 모아 통자락을 만든 다음 사리 동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함수를 만들게 된다. 다시 조금이 되면 간쟁이는 간통에 모인 함수를 염벳의 버긱으로 옮긴다.

- ⇒ 그것은 {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열 두엿날부터 그 바닥을, 통자락을 파요. 열 두엿날부터 파서 열 두, 그니까 일곱엿날까지 작업을 다 끝내야 해요. 이게 다섯엿 날까지 흙을 다 말려서 말려놨다가 돌을 모으고 넣거든요. 다섯엿날까지 그래서 그 물이 되는 거예요 짚물. 무시라고 인제 이게 저 뭐여 물이 (통자락에) 다히게(닿게) 들오기 시작할 땐 이제 많이 들어오겠다 해. 시작하려는 날을 이제 무시라 그러는 거예요. 통자락 만드는 때는? 이날부터지요 한객기. 옛날엔 열두메라 했지요. 이걸 아침조금. 서물까지 이 이게 세메쥬. 이걸 물이 인제 통자락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간이쥬. 사리는 다섯물부터 사리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일곱까지.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날 지나가야 그 간수를 저오기 시작하쥬. 한객기 때 그대에 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4.1.9. 물때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한다. 충남 태안 지역의 통

조금 방식은 물때를 이용한 방식이다. 통조금은 조금시기 즉 아침조금(열두물)에서 너물(너메)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통자락 주변의 함도는 이러한 조금시기 동안 갈아서 염분이 높은 함수가 간통에 흘러들어가도록 함도작업을 해야 한다. 함도 작업이 끝나면 사리 즉 다섯물부터 열한물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간통에 함수가 모이게 된다. 이와 같이 충남 태안 지역의 통조금 방식은 물때를 활용한 방식이다.

- ⇒ 열두메하고 아침조금 한조금, 무시, 한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거 아흠물 열물 열한물 이렇게 되었는데, 한객기가 열두메여 이게 대객기는 아침조금. 아침조금이란 것은 조금이 째다 소리지. 이걸 한조금 아주 질다 해서 한조금. 아침조금은 아침보다 약 4시간 반, 4시간 정도 길어요.

4.1.10. 산짐허다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이다. 자염에서는 갯벌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추출하기 위해 간통을 만드는데, 사리 때에는 바닷물이 높기 때문에 간통 근처 갯벌까지 물이 찬다. 그리고 물이 적은 조금 때에는 간통 근처 갯벌까지 물이 들지 않아서, 갯벌이 마른다.

- ⇒ 서멧날이 낙지잡는 물썸이 가장 좋거든 인제 거, 바다에도 서멧날같은 경우는 산짐을 헨다 그러거든 산짐? 산짐이 뭐예요? 산짐이라는 건 인제 물이 산다는 얘기가. 물이 세진다. 산다 이 얘기가.

이상으로 염전의 제염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과정	
자염	염벧 만들기	벧얏허다, 부담쌌다, 가마걸다, 버긱파다, 해이다, 뜸하다/웃집하다
	통자락 만들기	갯벌, (웅덩이)파다, 벧말세우다/통자락세우다, 짚물모으다 간통만들다, 틀만들다, 간통만들다
	갯벌흠 말리기 (함도작업)	갯벌흠/갯벌/뺨, 간통자락, 간필, 갯물/바닷물, 뺨뒤엎다, 깨치다, 가래질하다, 씨래질하다, 나래질하다, 갈자락하다
	함수 읊기기	대름보다, 저오다
	함수 끓이기	화수/소나무, 거름/거품걸다, (불)조절허다, 불때다, 거품/거름/버큘걸다, (소금)발서다/소금발오다, 소금꽃앗다, 소금꽃피다, 소금발서다, 소금꽃크다, 덧물붓다
	소금 수확 하기	소금굽다, 되주격으로 뜨다, 뜰채로 뜨다, 간수빼다
	기타	소금물/간수/괘수/짚물/간물/함수/염수, 조금, 물때, 산짐허다,

5. 소금의 종류

5.1. 자염

갯벌의 간통에서 함수를 끓여서 만든 소금이다. 자염(煮鹽)은 소금의 한자어로 15세기의 문헌에서 나오던 용어이다.

- ⇒ {화렴이라고} 하죠. 옛날에 옛날에가 {자염이었죠}. 자염이라 해갖고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조금 조금 옴폭옴폭 파진 데가 있어요. 돌이. 거기가 {소금이라고} 해갖고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소금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그 소금을 가지고서 {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염을} 이제, 이제 그것을 퍼와서 자염을 생겨, 생기는 걸 보고서 아, 이것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어른들이 해야 했거든요.

5.2. 화렴

갯벌의 통자락에 모은 함수를 끓여서 만든 소금이다. 자염에 대응되는 충남 태안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갈자락, 통자락, 함토작업, 함수모으기, 끓이기의 단계를 거친 소금이다. 서남해안 지방에서 조석의 간만 차이와 갯벌을 이용하였다. 염분 함량이 높은 개흙을 얻기 위해 조금 때를 이용하여 소가 끄는 씨레를 이용하여 갯벌을 몇 차례 간다. 그 다음에 번지로 개흙 덩어리를 분쇄하여 흙을 말린다. 이 같은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여 개흙의 염분 함량을 높인다. 염분 함량이 높아진 개흙은 통자락으로 모아서 간통을 덮은 다음 사리 때가 되어 통자락의 간통 안으로 함수가 모이면, 벗집의 가마로 옮긴 다음 불을 때서 만든 소금이다. 화렴은 자염의 충청 남도 태안 방언이며, 한자어 ‘화염(火鹽)’에서 온 말이다.

- ⇒ {화렴이라고} 하죠. 옛날에가 {자염이었죠}. 자염이라 해갖고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조금 조금 옴폭옴폭 파진 데가 있어요. 돌이. 거기가 {소금이라고} 해갖고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소금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그 소금을 가지고서 {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염을} 이제, 이제 그것을 퍼와서 자염을 생겨, 생기는 걸 보고서 아, 이것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어른들이 해야 했거든요. 어른들이 해서, 그 어른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 흙을 파서 그 흙을 말려서 다시 넣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면 거기가 더 짠물이 들어가 모이거든요. 모이면 그 놈을 갖다 구워서 이게 소금이요. 지금도 {화렴이라고} 노인네들은 지금도 화렴이라고 그래요. 조금 칠일 동안에 갯벌이 햇빛 햇볕에 드러나서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이제 오일 째 되면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빠지지 아네요. 마당처럼 그런 갯벌에서만 자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소금을 간이라고도 하죠.

5.3. 재래염

자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뜻하는 ‘청염’에 상대되는 말이다.

- ⇒ 천일염은 {재래염하고요} 방법이 완전히 달죠. 천일염은 완전히 달바요.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바닷물이 젤 많이 들어올 때 그 바닷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틀을 개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바닷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놈을 얼마큼 저 저거를 하느냐면 그 천일염 만드는 기간동안 사. 8일간을 태양으로서 천일염을 만들거든요.

5.4. 천일염, 외렴, 태양염, 청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바닷물을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결정시켜 만든다. 이와 같이 천일염은 태양을 이용하여 만든 소금이라는 것에 연유하여 ‘태양염’이라고도 한다. 1907년 인천 주안에 천일제염법이 처음 소개되면서 자염법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소금이라고 하여 ‘외렴’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들어온 소금이라는 의미로 ‘청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 ⇒ {외렴}. 아이 저것이 저 염전 소금말하는 거여. {태양염이라고} 해야죠 그건 태양으로 되니까{천일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염전 이름을 붙인 것이죠. {외렴이라} 하는 왜 외렴이라 하면 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생산 않고 외 외제에서 가져온 수법이다 해서 거이 외렴이요 외렴. 몰르지 워디서 왔는지 이게 미국서 왔는지 소련서 왔는지 모를지 그러니까 어 일본은 이 저 태양염이 별로 없슈. 어떻게 뺏우느냐 거 뺏우는 방식을 내가 일러.

5.5. 간(소금)

가마에서 함수를 끓여서 만든 소금, 즉 자염을 이르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자염으로 음식의 간을 만들었던 것에 연유하여 ‘간소금’이라고 한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소금을 간이라고 했다. 소금은 따뜻한 방바닥에 넓게 펴서 짠물을 빼낸 소금을 ‘원소금’이라고 한다.

- ⇒ 지금도 {화렴이라고} 노인네들은 지금도 화렴이라고 그래요. 조금 칠일 동안에 갯벌이 햇빛 햇볕에 드러나서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인제 오일 썸 되면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빠지지 아네요. 마당처럼 그런 갯벌에서만 자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소금을 간이라고도 하죠.
- ⇒ 이게 그 간 {간소금이} 짠물이 아주 싹빠지고 그냥 원소금만 남것죠?

5.6. 원소금

원소금은 끓여서 만든 자염(간소금)을 따뜻한 방바닥에 넓게 펴서 짠물을 빼낸 소금을

말한다.

- ⇒ 소금을 다 구워서 구워졌으면은 꺼내서 어, 지금 저 여기 지금 냉금 얘기를 내가 하는거요. 어,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를 봤어요. 방을 두 개를, 그러니까 방 하나가 얼마나. 삼미터에 칠 메타씩 방이 두개여 불때서 구운 소금을 보일러실에 갖다 넣어요. 넣어 월마만큼 너느냐. 일주일 넣어. 그러면 밑에서 불때서 뜨겁지. 이게 그 간 간소금이 짠물이 아주 싹빠지고 그냥 {원소금만} 남것죠? 이치로 생각해도 그렇게 된 놈을 또 한 또 한 계단 더 가 이이 보일러실에서 저 짝 보일러실로 가. 거기서 또 일주일이며. 또 일주일 해서 그 놈을 가공하는 거여.

5.7. 송염, 송화가루소금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생산한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일 년 중 날이 가장 건조하여서 질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송염은 간통에다가 소나무 잎을 매달아 두고 구운 소금을 이르기도 한다.

- ⇒ 옛날에는 송염 먹고 싶다고 해갖고 그러 간장통에 저 통에다가 솔나무 잎을 막 매달어 갖다가 맹글이 놓고서 소금구면은 그 소금 먹어보면은 솔잎이 냄새가 난다해서 송염이라고 했어요.
- ⇒ 송화가루 소금이요? 송화가루 소금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일염을 만들 때 송화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만드는 소금이 천일염 내 가장 양질의 소금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일염을 만들 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없어야 소금맛이 좋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가 차면은요. 소금이 빨리 결정돼요. 송화가루 날릴 때면 오월 하순에서 유월 초순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그 때 만들어진 소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금의 종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금의 종류
자염/천일염	자염, 화렴, 재래염, 원소금, 간소금, 태양염/외렴/태양렴/청염, 송염/송화가루소금

6.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6.1. 재료

6.1.1. (참)조기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부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기는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 [側扁] 하며, 꼬리자루가 가늘고 길다. 등지느러미 연조부와 뒷지느러미에 거의 연변(緣邊)까지 비늘이 있다. 조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참조기다. 보글치는 참

조기와 비슷하나 몸 색깔이 희고, 가슴지느러미가 길며 아래턱이 위턱을 덮는다. 맛은 조기 맛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조기로 쳐 주지도 않았다.

- ⇒ 뭐 조기는 똑같이 봄에 봄에 알날러 칠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연평도로 올라기갈 때 여기서 독살이에서 잡은거니까 조기는 다 참조기죠. 뭐 다른 게 백조기야 뭐 조기라고 헷니까. 보글치 건 조기의 종류지 조기가 아니죠. 보글치라고는근데 그건 조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참조기} 에 참조기죠.

6.1.2. 보글치

농어목 민어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보글치는 보구치의 충남 태안 지역 방언이다. 참조기와 비슷하나 맛이 참조기보다 없다.

- ⇒ 보글치 건 조기의 종류지 조기가 아니죠. 보글치라고는근데 그건 조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참조기} 에 참조기죠.

6.1.3. 백조기

민어과의 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로 참조기와 비슷하나 몸이 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백조기’라 부른다.

- ⇒ 그리고 또 인자 {백조기라고} 조기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예요. 보구치를 백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예요.

6.1.4. 황새기

몸은 소형으로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황새기는 황강달이의 충남 태안 지역 방언이다. 부산, 여수, 장흥, 영광 등지에서는 ‘깡달이’라고도 하며, 군산, 신안, 서천, 홍성에서는 ‘황새기’라 한다.

- ⇒ 명태 찡자로 만든거. 찡새기. 찡란젓. 찡젓. 조기는 황새기. 조기새끼 황새기. 조기새끼는 황새기라고 불러 여기는. 황새기젓. 그 다음 꿀뚜기로 만든거? 꿀뚜기는 꿀떼기젓이고. 아가미로 만든 젓은? 아그미는 저기 뭐지, 큰 고기 그 내장으로 아그미 젓담는거여. 곤쟁이로 만든 거? 곤쟁이젓은 뽕에서 이렇게 밀어갓고 젓담는 거야 그건. 오징어로 만든

6.2. 제작 과정

6.2.1. 독간치다, 간치다

조기를 절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독 안에 조기를 넣고, 소금을 적당량 뿌린 다음 다시

그 위에 조기를 넣는 방식으로 절인다. ‘독간치다, 간치다’는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생선을 절이는 방식이다.

- ⇒ 혹시 조기를 절일 때, 조기를 저런 독에다 넣고 소금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머 간친다. 이렇게 독간친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독간친다} 그러지요. 조기를 이렇게 짚으로 엮어서.

6.2.2. 제리다

‘제리다’는 생선 따위에 소금기가 배어들다는 ‘절다’에 사동접미사 ‘-이-’가 삽입된 어형 ‘절이다’의 충남 태안 지역 방언이다. 절이다>저리다>제리다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 ⇒ 젓갈 좀 하셔야 하는데. 젓갈 뭐 반지젓은 저기, 바다에서 그물로 잡아갖고 안흥가면 꼭 찾아. 그것 잡는 배. 안흥. 안흥 가면. 반지라는게 뭐예요? 있어 바다서 잡는 거. 그물로 잡아 그물로. 조개예요? 조개 아녀. 바다서. 바다서 반지 그물로 잡는 거야. 그렇지 {제리먼} 반지젓이지뵤.

6.2.2. 간허다

음식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다.

- ⇒ 아이 여기서 잡히는 모든 생선에 뭐 절이고 {간허고} 했겠쵸. 지금이랑 똑같쵸 뵤.

6.3. 가공품의 종류

6.3.1. 간조기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를 이르는 말이다. 자반조기를 말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간조기를 굴비라고 하지만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굴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굴비는 작은 참조기를 이용하여 만들지만, 충남 태안 지역의 조기는 아주 큰조기로 만들었다.

- ⇒ 이쪽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혔던 고기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많이 잡혔던 게 갈치하고 조기쵸 그러니까 그 조기에 소금을 넣어서 만든걸 뭐라 그러쵸? 조기다 소금 넌 것을? 간조기 {간조기 쵸} 여기는 굴비라고 안했시유. 전라도 가야 굴비라고 그러쵸. 그러고 그저 전라도가면 굴비라는 것이 고기가 좀 잘잡여. 여기서 잡은 놈은 조기가 이래 이랬슈 네 뵤.

6.3.2. 뭇

조기 따위의 생선을 묶는 단위이다. 짚으로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은 ‘한 뭇’이라고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두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이르는 말로 ‘장쥬’

혹은 ‘두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수사+뭇’이라고 하였다.

- ⇒ 혹시 조기를 절일 때, 조기를 저런 독에다 넣고 소금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독간친다 그러지요. 엮어서 한 쪽에 다섯 마리. 이쪽에 다섯 마리씩 두 개 {한 뭇}. 두루미 그것은 인제 아래서 아래 적서 하는 말인데. 두루미는 여기는 한 무시여. 그러니까. 한 뭇. 무겁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뭇. 그러니까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가 {한 뭇이거든요}. 그러면으 한 뭇이지. 무겁다고 해서 한 뭇이라는게 없구요. 갯수가 열개다 해서 한 뭇이여. 저 영광서는 두름이라고 하죠. 한 두름. 이 저 뭐야 장비닥에 가면은 요새 장사꾼들이 한 두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안 썼어요.

6.3.3. 젓갈

‘젓’으로 담근 음식을 말한다. 새우·조기·멸치 따위의 생선이나, 조개·생선의 알·창자 따위를 소금에 짜게 절이며 삭힌 음식으로 양념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먹기 전에 양념을 하기도 한다. 충남 태안 지역은 소금을 이용한 음식은 젓갈이나 액젓이 유명하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 담았던 젓갈의 종류는 반지젓, 조개젓, 홍합젓, 멸치젓, 명란젓, 창세기젓/창란젓/창젓, 황새기젓, 꼴뚜기젓, 곤쟁이젓, 오중애젓/잇가젓 등이 있다. 창세기는 창자, 내장의 충남 태안 지역의 방언형이다. 명태의 창자로 만든 젓을 창세기젓, 창란젓이라고 한다. 조기젓은 조기로 만든 젓갈을 이르는 말이고, 황새기젓, 황석어젓은 조기새끼로 만든 젓을 말한다. 조기의 새끼를 이르는 ‘황새기, 황석어’는 황강달이의 충남 태안 어촌 생활어이다.

- ⇒ 젓갈 좀 하셔야 하는데. 젓갈 뭐 반지젓은 저기, 바다에서 그물로 잡아갖고 안흥가면 꼭 찾아. 그것 잡는 배. 안흥. 안흥 가면. 반지라는게 뭐예요? 있어 바다서 잡는 거. 그물로 잡아 그물로. 조개예요? 조개 아녀. 바다서. 바다서 반지 그물로 잡는 거야. 그렇지 채리면 반지젓이지. 젓종류 말씀해주세요. 젓종류? 조개젓. 개갯도 젓 담고. 홍합도 젓담고. 다 그런거여. 그렇거고 새우젓 있고. 멸치도 젓갈 있고. 명태알? 그것도 다 있고. 그건 명태알이로 젓갈로 만들지. 명란젓인가 뭐라는 거 같아. 명태 창자로 만든거. 창세기. 창란젓. 창젓. 조기는 황새기. 조기새끼 황새기. 조기새끼는 황새기라고 불러 여기는. 황새기젓. 그 다음 꼴뚜기로 만든거? 꼴뚜기는 꼴뚜기젓이고. 아가미로 만든 젓은? 아그미는 저기 뭐지, 큰 고기 그 내장으로 아그미 젓담는거여. 곤쟁이로 만든 거? 곤쟁이젓은 뽕에서 이렇게 밀어갖고 젓담는 거야 그건. 오징어로 만든 거? 오중애는 잇가지. 잇가젓이로 인제 절여갖고 인제 젓갈 맨드는 거지. 잇가젓이라고 하기도하고 오중애젓.

이상으로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인 굴비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재료	참조기, 보굴치, 백조기, 황새기(조기새끼), 반지, 조개, 홍합, 명태알, 명태창자, 꼴뚜기, 곤쟁이, 잇가/오중애
어로 도구	그물
제작 과정	독간치다/간치다 썰이다
가공품 종류	간조기, 반지젓, 밴댕이젓, 조개젓, 홍합젓, 멸치젓, 명란젓, 창세기젓/ 창란젓/창젓, 황새기젓, 꼴뚜기젓, 곤쟁이젓, 오중애젓/잇가젓
단위	못

7. 민속

7.1. 벗고사

소금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고사로, 소금을 생산하기 전에 지낸다. 자염의 벗고사는 소금을 굽는 염벚에서 지낸다. 설을 세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 밤에 지낸다. 보통 음력 4월 말경이다.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 떡 등을 올린다. 먼저 벗주인이 먼저 잔을 올리고, 소금 굽는 순번을 정하는 머슴 ‘불무시’(조준, 2011:257)가 두 번째 잔을, 마지막 잔은 염부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잔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고시례를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사항이 있었다.

- ⇒ {벗고사는} 지내지요. 원제 지내느냐. 벗고사는 설 세고서 처음 일을 시작 소금내느라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 그날 밤에 벗고사를 지내요. 4월 음력 4월 말경에. 거기엔 뭐 어떤 걸 차려 놓고 누가 절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벗주가 하지요. 그런 거 뭐 어떤 음식들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제사하면은 보통 과일도 놓고 고기도 놓고 그러자녀. 근데 벗. 벗. 거기다 제사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로 돼야지 머리를 놓지요. 돼야지 머리를 놔요. 그 다음에 그거 다 한 뒤에 음식물 뿌리는걸 뭐라고 하지요? 그것도 하나요? 그런 것은 옛날이야기인디. 옛날 얘기고 고시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처음 제일 먼저 잔 받는 사람. 술잔을 먼저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받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받지요. 맹 염 한이나 이 사람 중에? 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존대한다 해가지고 먼저 술잔을 주잖여. 그럼 술잔 받은 사람이 술 잔 자기 먹기 전에 조금 따라서 고수례를 하는 거여.

7.2. 뱃노래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그러나 해녀업에 종사하는 해녀들도 큰 배를 타고 가면서 뱃노래를 불렀다. 충남 태안 지역 해녀의 뱃노래이다.

- ⇒ 뱃사공? 그 노래를 뭐라그래요? 뭐 어야디어 어야디어 그거허지 뭐 뱃사람들이야. 뱃노래? 뱃노래. 뱃노래 한번 해보세요. 주세요 아는 거. 우덜이 뭐 옛날에 딱따배 탕간. 딱따배가 뭐예요? 옛날이는 저기 뭐여 그 찌끄만 배가 기계넣고 딱다구리라고 배 있어 옛날이. 그거 타고 할 때

는 우덜이 그거는 안 타고 인제 이 큰 배 댕이니까 그냥 그걸로 댕이지. 옛날이는. 그 막 물에서 투드리고 막 그럴 때는 그냥 가셔서 투드리고 그랬지. “어이여디여 우리배는 잘도 간다. 느네 배는 목선이다. 우리배는 철선이다. 어이여디여 어여디여 얼른 가자 어야디야.”

7.3. 간쟁이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간쟁이는 조금 때 간통에 모인 함수를 염벚에 있는 버긱으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한다. 질퍽한 갯벌을 물통으로 저 날랐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이 간쟁이다. 간쟁이의 힘든 노동을 비유하여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였다. 간쟁이의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간쟁이의 대변은 새카맣게 탈 정도로 딱딱해서 개도 먹지 못하였다.

⇒ 그 간쟁이와 관련되는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간쟁이 똥은 뭐 어찌고 저찌고. 얼만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욱봤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마만큼 힘들고 욱보고. 일을 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고단하니까 대변이 딱딱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 것은. 그러니까 개가 못 먹지 딱딱하니까.

구분	민속
벗고사	불무시, 고시레
뱃노래	“어이여디여 우리배는 잘도 간다. 느네 배는 목선이다. 우리배는 철선이다. 어이여디여 어여디여 얼른 가자 어야디야.”
속언	간쟁이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충남 태안 지역 어촌 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염전과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자염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소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사용했던 생활어를 조사하였다. 우선 염전과 행위자의 명칭을 살펴보고, 자염의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제염 과정 등을 각각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금의 종류와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소금의 민속에 관한 어휘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금은 짠 맛이 나는 백색 결정체로, 제염하는 방법에 따라 자염과 천일염으로 구분한다. 자염은 조금 동안 갯벌의 함토작업을 거쳐 사리 때 물에 잠긴 간통에 모인 함수를 가마에 끓인 소금이다. 소금은 15세기 이래 사용된 고유 명칭이라면, 자염(煮鹽)은 문헌 속에서 소금과 함께 사용된 한자어이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화렴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이다. 자염을 생산의 인적 구성요소는 벗주/염벗주/벗입자와 염한이/염부, 간쟁이/간장이/간장, 화부이다.
- 2) 자염의 제염 설비는 통자락, 간통, 염벗/염막으로 구성된다. 염벗의 구조는 ‘옷집/뜸, 나래, 가마, 아구니/구락쟁이, 굴뚝, 버긱(간장주, 짠물구멍이, 구더기), 부담이며, 자락의 구조는 갈자락, 통자락, 벗자락이 있다. 간통(통자락)은 염도가 높은 함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간통은 물때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모래와 빨이 섞인 갯벌에 아침조금에서 너물까지 7~8일 동안 물이 들지 않는 곳에서 함토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물/메에서 열한물/메 동안 사리 동안 간통이 물에 잠겨 함수가 모일 수 있어야 한다. 조금이 되어 간통을 헐고 간장은 함수를 가마로 옮겨 불을 때고 끓인다.
- 3) 자염의 제염 도구로는 염벗, 통자락, 함토작업, 함수끓이기, 소금 생산하기 등의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씨레/쓰리/씨리, 덩이판/덩이판/이다판, 소, 나래, 가래, 물지게/무지게, 물통(황), 고무래, 털(안털/바깥털), 되주걱, 후리채, 되주걱, 대칼, 섬, 부지깥이, 삼태기/삼태미, 대름/대림 등이 있다. 그리고 대름/대림은 전통적으로 염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 4) 자염의 제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염벗만들기(㉠ 움막짓기 : 벗말박기→나래두르기→염벗완성, ㉡ 가마솔설치 : 부담설치→철판붙이기→가마앉히기 ㉢ 버긱만들기:

구덩이 파기→빨바르기 →버긱완성 ㉔ 뜸/웃집만들기 : 들보설치→고리달기 →나래 두르기→뜸완성) 둘째, 통자락 만들기 (㉕ 가래로 웅덩이 파기 →벗말박기 → 간통에 짚두르기 →간통에 빨바르기 →간통완성 →함토폴아넣기) 셋째, 갯벌흙말리기(함토폴작업) : 간통 주변 써레질 하기→덩이판 흙부수기→나래로 간통에 흙모으기와 덮기 넷째, 짚물(함수) 옮기기 (간통헐기 →대름보기(염도측정)→바깥털로 간수 물통에 담기→간수운반 →간수저장(버긱, 짚물구덩이, 흙) 다섯째, 안털로 버긱에 짚물 가마에 옮기기→떨감(화목) 준비→불지피기(밤가마/낮가마) →덧물주기→후리채질하기→되주걱으로 불순물(거품)제거 → 덧물주기 →불조절 →소금꽃피다(소금밭서다)→소금수확→고무래로 가마 바닥 긁기→죽판으로 삼태미에 소금담기→간수빼기→섬에 담기 제염설비의 환경과 아침조금에서 너물까지 조금 동안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사리 때는 간통이 잠기는 곳이어야 한다. 모래와 개흙의 혼합갯벌이어야 한다. 충남 태안 지역의 자염 제염 방식은 통조금방식과 갈개조금방식이 있다.

- 5) 소금의 종류에는 자염/화염/재래염, 천일염/태양염/외염/청염, 간소금, 원소금, 송염/송화가루소금 등이 있다.
- 6) 자염의 떨감은 화목, 소나무이며, 염벚의 개수를 세는 단위는 ○개, 나뭇짐의 단위는 ○동, ○짐이다.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의 명칭은 상구선, 소금배, 상긱배이다.
- 7)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은 젓갈류와 간조기가 있다. 젓갈류에는 간조기, 반지젓, 밴덩이젓, 조개젓, 홍합젓, 멸치젓, 명란젓, 창세기젓/ 창란젓/창젓, 황새기젓, 꼴뚜기젓, 곤쟁이젓, 오중애젓/잇가젓이 있다.
- 8) 민속과 관련하여, 벗고사가 있으며, 염부 중에 가장 연장자가 술잔을 받고, 고시례를 한다. 소금과 관련된 속언은 간쟁이 눈 똥은 개도 안먹는다고 하여 간쟁이의 힘든 노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염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문헌 자료가 가진 현장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문헌 자료는 대부분 한자어 등의 전문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현장의 생활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2)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된 덕분에,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자염에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명사형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행위와 관련된 동사형을 많이 확보하였다.
- 3) 염전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어휘 수집을 수행해 봄으로써 염전의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5)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염전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타지역의 자염 관련 어휘의 상관성을 고찰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염 관련 민속 신앙이나 속담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충남 태안 지역은 많은 고어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네, 기’ 등이 이중 모음으로 실현되는 어형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음운현상을 통해 태안 지역의 음운체계를 설정하여, 구술발화의 통일된 표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태안 지역의 경우 음운체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민족생활어 Web DB를 구축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데이터를 주제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의 검색 기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자염 재현 사업도 중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자염 설비 및 제염 과정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일염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2) 『우리배·고기잡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8) 『만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9) 『우이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김의환(2004) 「조선후기 충청도의 소금생산과 생산방식」, 『조선시대사학보』 28.
- 김일기(1991) 「곰소염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3.
- 김일기(199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일기(2006) 「선시대 자연 생산방식」,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 신서원.
- 김천중(1988) 「조선후기의 염업경영실태」, 『역사교육논집』 12.
-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유승훈(2008) 『우리나라 소금제염업과 소금 민속』, 민속원.
- 최창렬(1993)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 홍금수(2006) 「호남지방의 자염법」,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 신서원.
- 홍금주(1993) 「18·19세기 줄포만의 자염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위진 (2010), 2010 민족생활어조사 03, 서해안중남부, 국립국어원.
- 정낙추(2002), 태안 지방 소금 생산의 역사, 태안문화원.
- 어촌민속지-경기도, 충청남도편(1996),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국립민속박물관.
- 김호중(1984), 조선후기 제염에 있어서 연료문제, 대구사학, 제 26집, 대구사학회.
- 최성기(1995), 조선시대 염전식 자염, 안동문화 6.
- 소금꽃이핀다(2011), 전라남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 록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 1	기초어휘분류 2	동원명	별칭	통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2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2	영단어정보 3	
영진	명칭					소금	명		반앗이 나는 백식의 결정체. 염도가 25%가 되어야 소금결정이 만들어진다. 소금은 제염하는 방법에 따라 자염, 천일염 등으로 구분한다. 충남 태안 지역 자염은 통조금병식에 의해 만든 소금 가마에 굽아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천일제염방으로 생산한 소금인데, 생일제염방은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빛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마암염은 염이라고도 한다.	거기가 {소금이라고} 해라고 풀이 거기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소금이 생겨서 염이라고 했거든요.	항하여 '식염(食鹽)'에서 온 말인데, 태안 지역 제염자들은 모두 '염(鹽)'의 발음을 '염'으로 하고 있음. 발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김준, 2011) 충남 태안과 건국의 화염 풍어는 발자 안 만드는 음식에서 자이가 있다.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 염전 조성 단계, 제염 단계, 진오단계를 거쳐 소금을 생산한다. 제염 단계를 위해서는 염전을 조성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갯벌을 이용하였다. 영남 화염이 높은 화살을 염기 위해 죽고 때를 이용하여 갯벌로 된 염전을 스가 가는 배를 이용하여 몇 차례 간다. 그 다음에 번지르(번이만) 깨끗이 씻어낸 다음 해수를 부린다. 이 법은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여 깨끗한 영남 화염을 얻는다. 영남화염이 높아진 계통을 저염으로 불리는데, 영남화염이 높아지면, 발막으로 불리면서 발막 속에 장치된 소금 가마 속에 간수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소금이 응결된다.(유진, 2010)	정운영(충남 태안)					
영진	명칭	자염				화염	명		자염의 태안 지역 방언. 통조금병식에 의해 만든 소금을 말함.	{화염이라고} 하죠. 옛날에 옛날에 {자염이였죠}.							
영진	명칭	자염				재래염	명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염, 화염 등을 의미함. 천일염에 대비되는 말.	천일염은 {재래염하고요} 방법이 완전히 달조.							
영진	명칭	자염				자염	명		충남 태안 지역 재래염으로 통조금병식에 의해 만든 염수를 가마에 굽어서 만든 소금임. 문헌자료에서는 15세기 이래 사용된 어휘임.	자염도 화염이라고 노인네들은 지금도 화염이라고 그러요. 조금 칠원 동안에 갯벌이 한밭 한밭에 드러나서 그 침푹푹한 갯벌이 인제 오일 풍덩이면 구두를 신고 틀어지기도 빠지지 아비요. 마암차림 그런 갯벌에서만 {자염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기서는 소금을 간이라고도 하죠.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획분류 번호 1	기초어 획분류 번호 2	동원명	별명	본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표준 어휘 등록 번호
영진	명칭	행위자				영부	명		소금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영부'라고 부른다. 소금을 생산하는 당사자, 화염생산에서 벌어들인 노동력과 소금을 공급하고, 소금 개별을 권하여 영어 모판은 영에서부터 이공기에 불을 때는 일등 염수생산까지 맡는다.	{영부들}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맡아 버리지 가져갈 수 있어. 나머지는 다 가져가. 영어 모판이 있으면 소금의 색깔이 누렇게 된다. 소금이 가마를 버덕에 놓지 않도록 지어준다. 소금이 가마를 버덕에 놓지 않도록 지어준다. 3-4회 끓이면 소금의 모양이 생긴다. 완전히 식힌 다음 뒤죽박죽으로 섞어 기계에 담아 간수를 빼고, 입자가 굵고 가벼운 것이 특진, 간수가 빠진 소금은 이말(60%)씩 모아 영벗 안에 쌓아둔다.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영진	명칭	행위자				간장이	명		홍자락의 찌뽕의 영도를 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 밖에도 홍자락의 찌뽕의 영벗 안에 있는 배춧개에 옮기는 일을 맡음. 한 개의 배에 필요한 구성은 배추 1명, 영한이 3명, 간장은 보통 2사람이다. 이, 화부 1명이다. 향수의 영도를 측정해 주고 영벗이 만들어 간수를 영벗의 비중에 온반해 주고, 가마솥에 향수를 끓이는 수서를 정하는 등 소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을 하는 사람. 풍량은 생산한 소금으로 받는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소금물을 만들면은 {간장이 영도} 사람이 있어. 간장이란 사람은 그 만든 소금물을 개별에서 옮겨까지 옮겨개로 지어다가 끓여서 소금까지 만들어주는 사람이예요.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영진	명칭	행위자				간장이	명		홍자락의 찌뽕의 영도를 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 밖에도 홍자락의 찌뽕의 영벗 안에 있는 배춧개에 옮기는 일을 맡음. 한 개의 배에 필요한 구성은 배추 1명, 영한이 3명, 간장은 보통 2사람이다. 이, 화부 1명이다.	영벗에는 물을 저장할 때 우리가 물을 지어갓어 영벗에 물을 안 주고 저가는데 그건 {간장이라고} 끓이고 소금을 만드는 일은 간장이가 담당.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영진	명칭	행위자				간장	명		홍자락의 찌뽕의 영도를 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 밖에도 홍자락의 찌뽕의 영벗 안에 있는 배춧개에 옮기는 일을 맡음. 한 개의 배에 필요한 구성은 배추 1명, 영한이 3명, 간장은 보통 2사람이다. 이, 화부 2명이다.	{간장은} 두 분 할 일. 영벗 안에는 가마솥이 있고. 영에는 그 영수를 간장이가 나르다. 영벗은 영벗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있습니다.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영진	명칭	행위자				화부	명		가마에 불을 지피는 사람. 보통 영한이가 하기도 한다.	{화부}, 불 때는 사람.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영진	명칭	행위자				부주	명		영벗의 주인. 영벗과 가마솥 일소 그 밖의 제영도 등을 제공하는 사람. 영대로는 소금으로 받는다.	{부주} 오히려 옮기요. 감독하는 것이요. 한 개 예기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소금을 구워부니까 영가마다. 영가마 {부주가} 영벗에다 새 가마를 죄야해. 영벗을 설치하는 하는 사람은 {부주} 만들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영성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조어 번호 1	구조어 번호 2	동원명	발음정보	통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시지	출처 정보 시지	출처 정보 시지	표준어 이시지 문제
영진	명칭	행위자				행위자		명	행위를 설치하는 사람, 영벗의 주인을 말함.	영벗을 뭐라고 해요? (행위자) 그 벗의 영자 (첫인자라고도) 하고 영주라고도 하지 주 자가 영벗이자 뭐 뭐 주인하는 그게 어딴니까		정낙추(충남 태안)		0		
영진	명칭	행위자				영주		명	행위를 설치하는 사람, 영벗의 주인을 말함.	영벗자를 영주라고 그래		정낙추(충남 태안)		0		
영진	체언단위 단위				0동			명	성인 한 사람이, 지계에 질 수 있는 뿔나무의 작은 뿔을 이르는 단위.	{한 뿔은} 쪼그만 것 보고 한 뿔이고.		정은영(충남 태안)		0		
영진	체언단위 단위				0장			명	가마에 붙을 때는 뿔안의 큰 뿔은 단위, 2뿔이 1장이며, 가마솥을 가득 채우려면 28장이 든다. 한 가마에서 단 성(다섯가마니)의 소금이 생산된다. 한 뿔(한가마)의 소금이 만들어지려면 여섯장에서 여덟 장(성인 한사람이 지계에 질 수 있는 뿔나무 무개의 양)이 필요하다.			정은영(충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장 자염				뿔			명	함수를 가마에 붙이는 중간에 한 가마가 못 된다고 판단되면 영하는 뿔개진 가마에 다시 영벗는 함수를 말함. 가마의 함수를 조정하기 위해 못는 뿔.	다만 뿔이면서 소금을 이 붙 붙일인 칠판에 {뿔} 못조, 그걸 영뿔 때 하나만 가마에다 이마 영이진 뿔 붙을 때다가 넣은 뿔이 있는데 가마에 뿔을 넣고 끓이는 도중에 한 가마가 못된다고 판단될 때, 다시 버주의 찬물을 부어서 끓이는 것을 이뿔.		정낙추(충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장 자염				영수			명	뿔자락 속에 고인 찌뿔을 이뿔.	여기서 {영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영수를 함수라고 한자표기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이라고 하고 영수라고 했지요.		정낙추(충남 태안)		0	0	
영진	체언과장 자염				찌뿔			명	소금물, 영수, 찌뿔, 것뿔의 찌뿔을 갈아서 사리뿔인 뿔이 들고 나간 뒤 뿔자락 속에 고인 찌뿔을 이뿔.	이렇게 양쪽에 놓고 어숙하게 만들어서 물이 들 어왔다 나가면은 {찌뿔이} 올라 내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뿔이 또 이렇게 큰 뿔이 들어있는 디가 있었어요. 찌뿔 이뿔 주로 이제 뭐야 영진이나 간 뿔 같은데 나온걸 찌뿔이라고 하고.		정은영(충남 태안)		0	0	
영진	체언과장 자염				간뿔			명	소금물, 영수, 찌뿔, 것뿔의 찌뿔을 갈아서 사리뿔인 뿔이 들고 나간 뒤 뿔자락 속에 고인 찌뿔을 이뿔.	{간뿔을} 저울 때는 바깥에서 붓고, 벗, 뿔 뿔뿔 세는 바깥에서 붓고.		정은영(충남 태안)		0	0	
영진	체언과장 자염				간수			명	소금에서 흘러나온 찌뿔<표주박>에서<진> 그러나 찌뿔, 뿔, 지역에서는 간뿔에 모인 함수, 찌뿔을 이르기도 함.	{간수는} 이제 소금에서 흘러나온 것 보고 간수라 하고.		정은영(충남 태안)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획분류 번호 1	기초어 획분류 번호 2	동질명	별칭	통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영단어 정보 영성 영치	영단어 정보 영성 영치	
영진	제염설비	자염				간동	진동		<p>자염을 만들 때, 염도가 높은 간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 간수 구덩이. 염전 내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개류를 붙은 후에 2~3m 깊이의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쪽은 점토로 단단하게 다지고, 내부에 목판을 대거나 그늘을 만든다. 석등 위에는 나무 기둥을 걸쳐 놓은 다음 다듬은 쇠줄(쇠가시) 등을 두껍게 덮은 다음 그 위에 염도가 높을 때 염수를 모은다. 석등 위에 염수를 모으는 장치로 염도가 높을 때 염수가 흘러내리도록 하여 염도가 높을 때 염수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김일기 2006, 33)</p>	<p>그렇게 오는 (간동) 동경을 가메나나 펠르 꼭 마 이서 그 것만 뚝으로 막아 놓고 나면은 서리가 되 서 하루에 두 번 씩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 는 조.</p>						
영진	제염설비	자염				통자락			<p>통자락은 자염의 생산 방식 중 통조금 방식에서 만 드는 자염의 형태 중의 하나이다. 조금때 드러난 것발 안에 웅덩이를 파서 편물이 고 파고 구덩이 안쪽은 펠을 여러벌 말라서 모래가 울 리오지 않게 하고, 바깥쪽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가메나 가메나 오기장 등으로 둘러서 펠을 발라 다 면서 염도가 높은 편물이 통자락 안에 모이게 된 다.</p>	<p>경상도는 '진', 강원도는 '간수물', 전라도는 '석등', 충청도 서산, 태안 지역은 '간동'이라 부 른다 (유승환 2008, 76) '간동'은 바닷가에 조금 안 이 되어 물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p>						
영진	제염설비	자염				갈자락			<p>편물을 모으기 위해 개류의 흙을 소로 갈아 놓은 주 변을 이룬, 통자락과 같음.</p>	<p>(갈자락은) 개펄을 갈아 놓은 주변을 말한다.</p>						
영진	제염설비	자염				자락			<p>나를 중심으로 나의 앞가리, 주변, 근방이라는 의 미임.</p>	<p>그게 그 지들이 생각하기는 {자락이란} 건 내안 가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p>						
영진	제염설비	자염				바국/벗국			<p>자염을 만들기 위해 통자락에 고쳤은 편물을 벗인 에 저장해 두는 구덩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p>	<p>간장이 통자락에 있는 편물을 저다가 벗 바깥 에다가 두었으면 바국으로 들어와, {바국}은 1 정도 도 파서 펠을 찾다가 만지고 해서 단단하게 만들 어서 펠을 바르러 바르러 돼, 4번 정도 바르려야 돼. 벗에 만든 웅덩이가 {바국}이 된다. 편물 한 바국이면 한 가가 돼.</p>						
영진	제염설비	자염				구덩이			<p>바국. 벗안에 편물(함수)을 담은 구덩이.</p>	<p>그 놈을 한 {구덩이} 잘 파서 가메나다 넣으면 또 풀때면 적당해요.</p>						
영진	제염설비	자염				편물구덩이			<p>바국. 벗안에 편물(함수)을 담은 구덩이.</p>	<p>오새는 뭐 그냥 {편물구덩이}고도 { }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간장이 두 분이나까 여전 가 지요아 해요.</p>						

3 자영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 1	기초어휘분류 2	동형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벗의 지팡이를 사용하던 것으로 이영을 엮어서 만든 지팡, 옷집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그 가마솥에 람자기 소금을 끓이다 소나기가 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툼이라는} 걸 썼죠.	한말과 일제시대 사료는 '부옹'이라 함(유승훈 2006, 78)임은 안조시 머릿물이 풀지 않는 것일 근저에 세운다. 옹 벗 안에 비옷(영숙인) 지장고)구멍이를 만든다.	람잔추(홍남인)	람잔추(홍남인)	0	0	0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벗의 지팡이를 엮어서 만든 지팡, 퉁이라고도 함.	왜그나면은 비를 못들어가게 하니까. {옷집}.	정안영(홍남인)			0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때 위로 엮은 물건, 여기서는 벗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것으로 짚을 엮어서 만들.	나중에 똥자락이라고 깔대기 형식으로 파는 것 안에 {나래} 나래는 나래질을 하죠.	정남추(홍남인)			0	0	0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때 위로 엮은 물건.	그 안에 밑북을 받고는 다시 {이영을} 이영이나 합니다.	정남추(홍남인)			0	0	0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벽집에서 소금물을 풀일 때에 쓰는 가마를 이름. 보통 풀로 만든 것에 연유함. 가마와 가마 사이의 틈은 뿔과	이뿔이라 하죠.	정남추(홍남인)			0	0	0
영진	제어형비	자영			명	명	소금을 풀이기 위해서 뿔판(가마솥)의 내 귀에 뿔을 엮어 고정시킨 후에, 뿔판 주위로 뿔을 뿔이 고정시키다.	뿔, 그개 벗 안에서 벗이 뿔 돌리었으면 가마가 고정되게 걸렸죠. 가마가 있으면 가마에 뿔을 뿔이 뿔이, 뿔이 뿔이.	정안영(홍남인)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획분류 번호 1	기초어 획분류 번호 2	음성	형태	분류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태	영단어 사전	영단어 영성 영성	표준 어휘 목록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간경이가 영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소나무 송진을 이용해서 만든다. 영도에 따라 부유가 뜨는 높이가 달라진다.	어제 {대롱} 본다 그랬죠? 대롱보고 그림 저다가 저 {대롱} 뜬데 간경이는 저기 서있는 인애를 보니까 대롱을 가 해서 소금만드는 데 간수를 쏜 뒤에 이 인애 영도계의 하단부 만 저오는 거야 그사람들은 그계 야까 내가 송진으로 만든 거야 영도계 {대롱}을 불러만 끈을 달아서 송진으로 만들었던 그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소금물의 영도를 측정하는 데에 쓰는 도구. 한 마디에 들어온 백백은 유리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수은이 들어 있다. 대롱을 가 해서 소금만드는 데에 간수를 쏜 뒤에 이 인애 영도계의 하단부 만 저오는 거야 그사람들은 그계 야까 내가 송진으로 만든 거야 영도계 {대롱}을 불러만 끈을 달아서 송진으로 만들었던 그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은영, 정남철 (출판사: 안)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바닷물을 머금고, 표면에 영분이 끈 개흙을 섞은 뒤로 용기는 데에 쓰는 도구. 씨레에 긴 끈자를 붙여서 사용한다. 개흙을 걸어 영분을 사용한다. 구. 한국수산업에는 투마리의 소가 원조가 되어 씨레 하나를 들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한마리의 소를 이용. 씨레는 농사용보다 밭을 뜯는데 만든다.	소금, 소에다 매 갖고 끌고 가는 {씨레가} 있는데.	정은영(출판사: 안)	정은영(출판사: 안)	0	0	0	0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저등 아련에 모인 소금물을 범벅으로 동갈 때에 사용하는 도구. 밭재와 등판에 긴 나무를 대고 양쪽에 갈고리틀 때 양에서 물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유승훈 2008, 90)	문란에 의하면, 자염에서 개흙을 섞음으로 용 레 때에는 '마레, 나레(나레)'를 사용했음. 마 레는 말린 개흙을 모은 도구. '나레'마레는 소가 끄는 도구로, 개흙을 섞음으로 끓여 놓은 는 도구. 또는 것들의 흙을 영진 면에 걸고 놓아 두거나 한 개의 나무판 위에 진나무 여러 개를 얹어서 만들기도 함. 나무판 양쪽에 구멍을 내 고 흙을 켜서 소에 매달 수 있게 하였음.(유승 훈 2008, 89)	영은영(출판사: 안)	영은영(출판사: 안)	0	0	0	0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소금물을 범벅으로 옮기는 도구. 물지게에 걸어서 사용하였다.	{물통} 양쪽에 물통 이어가지고	정남철(출판사: 안)	정남철(출판사: 안)	0	0	0	0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소금을 담기 위해 짚으로 만든 가마니.	아이 그러면 거 물 속에서 건지니까 소금이 그물 게 놔두면 거 {삼에다} 담어 놓면 간수가 올라나 리죠.	정남철(출판사: 안)	정남철(출판사: 안)	0	0	0	0		
영진	제영도구	자염				명	명	명	소금물의 수분을 증발시킬 때에 짓거나, 가뭄이 올 때 가뭄을 피하는 데에 쓰는 도구. 또는 가마니에 서 만든 영진 소금물 한곳에 모아서 담은 도구. 주걱은 반주걱처럼 끝이 둥그런 형태가 있고, 끝이 갈이 넓고로 형태도 있다. 소금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무의 속을 파내어 쓰레받기처럼 만든 후에 자를 연결한 형태도 있다.(유승훈 2008, 91)	문란에 의하면, 영크레는 크기에 따라 두 가지 크기로 나뉘는데, 작은 것으로 판달, 조산와 마찬가지로 가마니에서 걸쭉된 소금을 모아일 때에 쓰 기도 하지만, 영도를 고아서 것들 위에 걸고 다음, 흙을 고르고 다룰 때에 쓰기도 함.(유승 훈 2008, 83, 91)	정은영(출판사: 안)	정은영(출판사: 안)	0	0	0	0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 1	기초어휘분류 2	동원명	발음정보	용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영진	제명과정	기타			개가다	개가다	구	1)조개도 파고, 굴도 파고 두드 치르고 등 이러한 움직임을 위해 뿔에 가는 것을 이르는 말(2)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이룸, 두 가지의 의미 모두 쓰임.		{개간다} 함면은 조개도 파고, 굴도 파고, 훑혔다(개간다) 때 {개간다}.여기는 뿔은 물구 자갈 허구 모래허구 풀허구 이렇게만 있는 게 있는기도 개간다(개간다)허구 파도리같은 경우는 뿔허구 모래허구 섞여서 조개만장은 단독 개한다고 내내 다뿔 곁에 개간다구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뿔(뿔), 깃뿔/개		명	1) 개뿔(뿔), 깃개의 개흙이 깔린 벌판 2) 깃개의 개흙을 이룸(뿔,뿔).		1)바다의 자갈에 기하하는데 뿔은 보통 이 소로 갈아서 말리는데 그 부근 흙을 뿔이라고하고 이 뿔 깃뿔, 거기 햇빛깔고 개뿔은 흙을 이룸이 나뉘는 모래를, 또는 그 주변의 냇은 명(개뿔)을 일컫어요.조개, 껍데는 뿔(고고)2) 거룻개 하고 이 뿔, 개는 모두 개뿔의 뜻을 쓰임, 즉 깃개의 명(뿔)은 뿔이 깔려 있는 곳을 이룸, 깃대가 뿔을 다발라요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기타		개뿔/개		구	특히 뿔에 조개를 캐러 가다.		뿔에 조개를 잡으러 갈때는 {개뿔간다}고 그러.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수염		명	수염을 결정시킬 때 쓰는 바닷물. 대개 염도가 25%가 되어야 수염물이 된다. 자염에서는 자염을 이용해 염도를 높이고, 천염에서는 행위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염도를 높인다.		{갯벌}흙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때 말려가지구 그것을 인제 말려서만 바닷물을 말린 것(갯벌에) 바닷물을 두드리기하면은 그 할수 속 소금물이, 이제 염도가 높아지겠조 그 높아지는 것을 그걸 갯벌이라 하면 이제 자염인데요.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조금		명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 자염에서는 조금 때 개흙을 모아 씻음을 만들어 소금물을 추출한다. 자염에서 총남 태안 지역의 조금은 아침조금(12월, 한겨레), 한조금(13월), 조금, 무수, 1월, 2월, 3월, 4월까지 7~8일 동안을 이르는 말이다.		아~ 그것은 어쨌든 하나는 음력 조수가 한 달이 넘은 거시기 두 번씩 바빠져, 보통 여섯을 그름 여섯을 그름 {조금} 때는 그거 갯벌을 모아서 뿔을 대가 조금에는 물이 안 들어. 그런데 갈아가지구 모아가지면은 물이 안 들어, 그거 갖고.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신징		명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자염에서는 갯벌에 염도가 가장 높은 때(표준국어대사전). 자염에서는 갯벌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추출하기 위한 용자력을 만드는데, 사리 때에는 바닷물이 높기 때문에 용자력까지 물이 잔다. 그리고 물이 적은 조금 때에는 용자력 근처에 물이 들지 않아서, 갯벌의 함몰작용을 할 수 있다. 태안 지역에서 사리는 다섯에 부턴은 11에(11월)까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용때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		인제 갯, 바다에도 서해남길은 경우는 산짐을 한 다그러거든 {산짐}?사리말이라고 하고 사리가 갔다. 이러지 여기서. 서해남이 나지않는 용점이 가장 좋거든. 그 얘기에요	정운영, 정낙민(기초성 (충남 태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사리	명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표준국어대사전).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표준국어대사전)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정운영(충남 안)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획분류 번호1	기초어 획분류 번호2	동원명	발음정보	통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출전정보3	영단어 정보 사지	영단어 정보 영성 특징어	표준국어 어휘 등록		
영전	제염방법	자염			무제염전식		명		객뻬를 배래로 갈아 말린 한투에 안조시 바닷물을 여과시켜 항수를 만들어 끓이는 자염을 만드는 방법. 송남 태만의 풍조음식을 일컫.			정낙추(2002)							
영전	제염방법	자염			양반식		명		객뻬보다 볶은 곳에 영진 바닷을 만든다. 정질로 바닷을 다지고 위에 사갈도를 두껍게 깔 다음 도영을 통해 바닷물을 끓여들여 두레박으로 영진 바닷을 채워 항수를 만들어 끓인다. 강원도, 함경도와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곳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낙추(2002)							
영전	제염과정	자염			항토		명		소금기가 농축된 객뻬류.	바 {영토나} 간도를 뒤집어 건디는 매기는 없지오.			정영영(송남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항수		명		풍조음 방식에 의해 간됨에 도인 한물.	바다에서 죽은 조개나 머 게 껍질 같은 것들이 유 기용한 된 것이 바닷물 속에 흘러다니다가 자기 관뻬해 다가고 이 {항수애} 용해되서 그걸 끓 이니까 결정된거려구오.		정낙추(송남인)		0					
영전	제염방법	자염			도가마		명		석회로 만든 솥. 칠가마 이전에 사용했던 가마로, 정낙추(60, 태안군 소원면 무항리의 재부에 따르면 곡괭이기를 타워 화를 만든 다음, 만든 가마솥 항토로 파고 대나무를 엮어서 배매를 만든 뒤 바닷 물로 반죽한 석회로 발라서 만들었다고 함. 진북 칠도만, 동해안 영해 지방의 기록에 있다.	그 지에는 토 {둔가마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 디라고.		정낙추(송남인)		0					
영전	제염방법	자염			칠가마		명		서로 만든 솥. 대장간에서 두드린 무쇠철판을 몇 조각 덧붙여서 만들었으며, 외부인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석회로 고정하고 밖에선 돌은 석회로 배 귀어 항수가 세어나오지 않도록 해서 사용함. 영해 에서 소금물을 끓일 때에 쓰는 가마솥이다. 가마솥 은 썰도 만들었기 때문에 칠가마(철부)에 해당된 다.	그것을 안세우면 가마를 달아 썰 우애 턱이 없오. 우애 턱이. 이렇게 두 개가 가마가 겹으면 송남 태안에서는 쇠철판으로 만든 가마솥 이 송남 태안에서 '가마'라고 함.			정영영(송남인)	0					
영전	제염방법	자염			종막		명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설치한 영밭. 벗. 영막이 가마솥을 설치하는 {영밭(천다가)} 소금밭이다. 그것 못 허니까 배를 사다가 고갈 잡았지오.			정영영(송남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영밭		명		소금방, 영밭,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설치한 영 밭, 영막, 영막, 벗이라고도 함.	영밭, 벗은 영밭의 변형된 말로 추정(정낙추) 태안, 지방의 독특한 소리말은 나 틀니 혹은 으로 변형된 것에 유추하여 추정된 것임. 금과 괄이(담과괄이), 송나물(송너물)		정영영(송남인)		0					
영전	기타	자염			포구		명		작은 항구. 과거 소금배가 드나들었던 곳.	자염을 싣고 어디로 가는다면은 국 저 어디니까 거기가 강경 {강경포구로} 갔습니다.		정낙추(송남인)		0					
영전	영칭	자염			퐁앗이		명		항토 밑을 서로 가들어 주면서 붐을 지고 끌고 항 토 밑.	이제 뚝에 있는 영한이들이랑 {퐁앗이는} 꺾과 죠.		정낙추(송남인)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회분류 비유 1	기초어 회분류 비유 2	동원명	발음정보	통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출전 정보 영성	표준 어사 지 표
영진	제염생배	자염				부담	명	명	가마를 설치하기 위해 가마의 크기만큼 돌과 흙을 60cm 높이로 쌓은 담.	뒤 {부담이라고} 하죠. 부두막 같은 거죠. 부담.	장남추(총남 인)			0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돌	명		미뿔로 엮은 방식.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마의 수증기가 빠져나가도록 뿔이 놓은 각형의 사기입구(들)를 덮을 때 사용한다. 개뿔이 가능하니까, 비가 올 때 내리만 살짝만 지붕의 양태가 된다.	가 볼 비율 때 두 때서 소금을 급계급 만드는 {돌}이 있었어요. 등.	가마를 둘러놓는다는 것들이라고 그래. 가마건다고 그래. 불타는 것을 '아구니', 옛날에는 가마를 칠판으로 만드는데, 칠판을 (마장가사리) 이 두개를 혼합을 시킨다. 황토와 칠을 섞어서 만드는데, 황토는 칠도 만든다. 불타는 안 불타요. 뒤를 넓게 지어 덮요.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고리	명		가마살의 안 바닥에는 양뒤로 4개를 만들어 가마 속에 향수를 채웠을 때 가라앉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	그것을 양색이면 가마를 담아 뿔 위에 턱이 안조는 데, 턱이 이렇게 두 개가 가마가 나오면은 두 개를 이렇게 돌돌을 세우는 데, 그 돌도 유에다 묶어 매니가, 가마 우메다가 하는 거야. 가마를 이렇게 둘러 썼으면은 그 우메다가 나무를 잘리고, 아니어, 밑에다 가마를 두 개씩 세워, 세우고서 가마 다 둘러놓고 거기다가 {고리들} 맨들 어 묶어 매는 거			0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돌보	명		가마살 바닥의 고리를 연결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4개의 기둥과 함께 가는 것으로 3개가 필요한, 4개의 기둥과 3개의 돌보에 줄을 매어 가마살 바닥의 고리에 연결하여 고정시키기 위해 세우는 도구.	이렇게 두 개가 가마가 비교가 있으면은 두 개를 이렇게 {돌보들} 세우는 데.			0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황조금	명		매달 조던드래와 스무 서를 조수가 가장 낮은 때인 조금 때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이리도 함, 이 때, 열두돌) 바닥을 파서 황조금부터(열두 돌)까지 황을 갈아 넣고 1주엔동안 반박한 황을 담고, 나머지 황을 통자락에 다 넣어 놔서 작업을 끝내는데, 죽 조금 때 제염이 무어를 통자락을 만들어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함. 조금 때 갖걸을 통자림 중괄개 파면 곳에서 소금의 원도인 염수를 만들어서 판활을 모으는 방식들 이틀.	안 인제 내어 먹고 하나까 근럭았으니까 {홍조금} 서로 환라고.	황조금(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갈계조금	명		갈계는 권 물이 빠지지 않도록, 짙은 독을 뜻하는 데, 조금 때 갈계(갈아놓은 것들)에서 소금의 원도인 염수를 만드는 것에 연유한 모양임. 갈계 조금 만의 턱이 낮게 만든다.	황조금(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가래질	명		가래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일.	{가래질도} 해야 되고 가래는 그 동물이 통자림을 볼 때는 가래로 파죠?	장남추(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가래질	명		가래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일.	{가래 일}이 맞기는 하는데, 가래질이요.	황조금(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양금모 가래질	명		양금 모이 하는 가래질.	그런 {양금모 가래.}	황조금(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아름가래/ 구멍가래	명		아름모이 하는 가래질. 아름답가래를 이룸.	아름, {구멍 가래.}	황조금(총남 인)			0	
영진	제염생배	자염				나래질	명		수에 나래를 담고 흙을 모으는 일. 말린 함도를 통해 자루에 모을 때 함.	나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함면은 우선 나래부터 만들어야 {나래질들} 하지요.	황조금(총남 인)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획분류 비유 1	기초어 획분류 비유 2	동원명	발음 정보	본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별칭 정보 사지	별칭 정보 음성 문자	표준어 어사지 문자
영전	제염과정	자염			비유 2	올랑질	발음 정보	명	소에 새래를 매달고 후를 고루 짓는 일. 함도작인 용 할 때 새래질을 한다.	용자락에서 파낸 후를 새래질하고 덩이반으로 후를 덩이 때 새래질을 한다.	정음영(총남 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나래일	발음 정보	명	소에 나래를 달고 후를 모으는 일		정음영(총남 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새래일	발음 정보	명	소에 새래를 매달고 후를 고루 짓는 일.		정음영(총남 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대름보다	발음 정보	명	간통 속에 대름을 넣어 염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이 름. 영수의 염도를 재다.	아니 그릇조. 어찌 {대름 본다} 그랬죠? 대름보고 그릇 저다가 때서 소름 만드는 데 간통이는 자기 지긋은 안해요.	정음영(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후리채질	발음 정보	명	가마에서 항수를 끓일 때 거품을 대나무칼과 후리 채를 이용해서 한 곳을 모으는 행위를 이 름.	대름은 '덩이>대리>대리>대리'의 명사형. 소 금통을 끓여(덩어)서 염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영유한 것으로 추정. 대름을 항수에 담갔을 때 빨리 솟아오르면 영수의 염도가 낮은 것이고(안) 진전이 느린 것은 것이다. 간통 속의 염도는 대략 13-15도 사이고, 염도로 내려갈 수록 염도가 높다.	정음영(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가래	발음 정보	명	조름이 지난 뒤 항수를 파낸 용자락 안의 후를 따 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삼도 결국은 그 {가래로} 반대 잘 다듬을 때 삼 같은 건 삼은 양면이 도구로 필요하죠.	정남추(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나래	발음 정보	명	이영.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으로 묶은 것.	{나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우선 나래부터 만들어야 나래질을 하지요.	정음영(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새래	발음 정보	명	소에 매달고 썰며 후를 말려 환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	{새래는} 나무가 동그란 나무든지 각진 나무든지 관계 없이 구멍을 뚫을 파요.	정음영(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후리채	발음 정보	명	소름을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을 걷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에 후를 입었죠. 그게 그걸 버거내고서 그놈으로 {후리채를} 하는 거예요.	정음영(총남 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후락질	발음 정보	명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비유. 남끼가 있게 하는 말.	혼자 하는 게 {후락질이죠}. 혼자 하는 일을.	정음영(총남 인)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버국	발음 정보	명	염빛 안에 만든 항수 저장고를 이르는 말. 염빛의 구멍이를 말함. 염빛구를 줄여 이르는 말.	{버국은} 아주 소름 만들라고 좋은 물을 팔는 데가 버국이고 이건 외야지는 손 팔 찌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정음영(총남 인)			0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외야지	발음 정보	명	1)용자락에 덧물을 붓기 위해 컷벌에 파 놓은 용덩이를 이 름. 용조름이나 갈개조름의 덧물을 부을 때 사용. 중심에서 떨어져 파마로 있는 물에 찡그려 덩이를 말함. 돈지의 태안 사투리. 2) 염을 마친 후 손발을 씻기 위해 파 놓은 용덩이.		정남추, 정음영 (총남 대안)			0		
영전	제염과정	자염				덩이질	발음 정보	명	소에 덩이판을 매달고 함도작임을 할 때 후딩이를 부수는 일을 말한다. 덩이판 위에 후를 짓거나 사. 염을 떠누기도 한다.	그 컷벌 후를 새래질해서 말렸을 때 말린 덩이판에 이제 {덩이질도} 깨지고 그릇에 해서 밀유권 같은 용기부터 염 말린 후를 질다가 용식으로 된 용자락 안에 풀아놓고 그 안에 이제 간통은 이미 있죠.	정남추(총남 인)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 번호 1	기초어휘분류 번호 2	동원명	발음정보	본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처	별칭 정보 사지	별칭 정보 의성 어휘	표준 어휘 목록 제어
영진	제염과정	자염			영이질	영이질	명	명	수에 영이판을 매달고 항포주입을 할 때 휴딩이틀 부수는 일을 말한다. 영이판 위에 물을 싣거나 사탕을 타우기도 한다.	{영이질} 하는 것은 인제 노 파는 것 보고 영이질 한다고.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제염과정	자염			영이판	영이판	명	명	영이판의 태인 시투리, 컷벌쪽을 말릴 때 휴딩이틀 부수기 위해 수에 매달고 뜨는 도구. 영이판 위에 물을 싣거나 사람을 태운다. 휴딩이틀 깨는 보통 도구.	{영이판} 하는 것은 인제 노 파는 것 보고 영이판이라고.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제염과정	자염			받가마	받가마	명	명	받에 가마에 물을 때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그때는 받가마 {받가마라고} 해서 낮에도 물을 때고 받에도 물을 맞습니다.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영진	제염해비	자염			가마	가마	명	명	영수를 끓이기 위해 무쇠로 만든 솥의 일종. 무쇠를 붙여서 네모 모양으로 만든다.	끓정질을 태운 석회가루로 매웁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영진	제염과정	자염			낮가마	낮가마	명	명	낮에 가마에 물을 때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그때는 {낮가마} 받가마라고 해서 낮에도 물을 때고 받에도 물을 맞습니다.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영진	제염해비	자염			간통	간통	명	명	행지락, 바단물이 들어오는 곳에 말뚝을 박아서 만든 함수를 뜻함. 간수통, 함수통.	여기 뭐야 바가지는 달이랑 그려요. {간통에} 함수를 푸는 도구.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영진	제염해비	자염			간수통	간수통	명	명	간통 통자락 안에 말뚝을 박아서 만든 함수를 뜻함. 함수통, 간통	바깥통은 간통이까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따 내는 것을 보고 바깥통이라고 하지요.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제염해비	자염			함수통	함수통	명	명	간통 함수통 통자락 안에 말뚝을 박아서 만든 함수를 뜻함. 간수통, 간통	그게 다 들어오 또 {함수통으로} 들어가요. 소금통을 건져 놓으니까 그 거기에 깔고 휴딩으로 덮고 다 했어요 그놈이 흘러서 자꾸 들어간다고.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제염과정	자염							간통에서 물을 푸는 도구로 바가지를 이르는 말. 바의 뒷부분을 둥그렇게 으려서 속을 파내고 자루를 매달고, 함수를 흘리지 않도록 안구를 작게 만든다. 달아도 함수(소금통)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통자락의 간통에서 물을 퍼올리는 작은 통을 '바깥통'이라고 부르고, 바구에서 가마에 함수를 퍼올리는 큰 통을 '안통'이라고 한다.	안통은 가마에다 붓는 {통을} 갖다가 안통이라고 하고요.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자염						명	명	받사의 흘러진 지장을 멎는 것. 텐트의 말종이다.	비 올 때두 때서 소금을 금겨금 만드는 {통이} 있어요 통.	정온영(총남 안)		정온영(총남 안)	0	0	
영진	제염방법	자염			외령	외령	명	명	침염염을 이름.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침염염을 두고 {외령} 외령 {외영} 외농들이 만든 소금이라고.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영진	제염방법	자염			침염염	침염염	명	명	침염염은 침염염염으로 생산한 소금인데, 침염 제염법은 바닷물을 염전에 도아서 막아 놓고, 옛날 침염염이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에 좋은 염이라고도 한다.	{침염염이} 생기고 그 이후로도 일제 강점기에도 침염염이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에 좋은 침염염이 있나?	정낙추(총남 안)		정낙추(총남 안)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번호 1	기초어휘 번호 2	동원명	발음정보	용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영진	제명도구	자염			관기	관기	명		는발을 가는 농기구. 가장 단순한 형태인 벉판기(modboard plow)는 휘를 파는 날인 보슴, 고랑을 뒤집는 보, 보슴 뒤쪽 옆면에 달려있으며 갈아 엎을 때 생기는 축안(軸眼)을 흡수하는 판의 지축판(地軸板)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기는} 는 갈 때나, 여기는 필요 없고. 그럼 {스레날} 같은 경우에는 좀 표측하게 하겠죠?		정운영(총남 안)	0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베레날/스레날	베레날/스레날	구		베레의 날을 이름, 베레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날은 별죽하다.	평기는 는 날 갈 때나, 여기는 필요 없고. 그럼 {스레날} 같은 경우에는 좀 표측하게 하겠죠?		정운영(총남 안)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베레이빨	베레이빨	명		베레의 날을 이름, 베레날은 별죽하다.	더 크기보다 씨레가 크고 서레 날이 {베레 이빨} 이 더 굵고 날 넘적하요.		정운영(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황	황	명		황물, 나무로 만드는데 통자락의 함수를 가마에 우발할 때 사용하는 도구.	그거를 {황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물지게라 그러드라구요.		정낙추(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섬	섬	명		섬으로 짠 가마니의 일종으로 소금을 담는데 사용 하는 도구.	그 때는 이제 소금을 담구자로 옮기기도 했지만 대개 해상이로 이용했죠. {섬}, 가마니가 아닌 섬.		정낙추(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고무래	고무래	명		가마솥의 결정된 소금을 굶는 데 사용하는 도구.	아 {고무래요}, 고무래는 애 볼때서 그 가마에 서 걸다가 시작하민은 소금이 그 때부텀 생기기 때문.		정낙추(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비지땀이/부지땀이	비지땀이/부지땀이	명		습가지 볼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길이가 2.5미터이며 끝은 Y자 형태로 나무를 아궁이 깊숙이 넣도록 만들어졌다.	{비지땀이}, 아니 그게 옛날부터 {부지땀이}.		정운영(총남 안)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대름	대름	명		간쟁이가 소금물의 영도를 측정하는데 쓰는 도구. 솥진을 응져서 만든 영도 측정도구, 비종계.	물만 들어가는 물을 아까 {대름으로} 재서 애, 고이 옮겨온 놈은 버리고 한 동안 갖다가 가마에다 붓고 물을 때는거요.		정운영(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삼	삼	명		가래로 판 곳을 다듬는데 사용함.	아이 {삼이아} 분명히 있죠. 가래질도 해야 되고 가래는 그 중딩이 혼자락을 팔 때는 가래로 파요?		정운영(총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개	개	명		갯벌이 있는 바다	갯벌이 있는 마을 바다를 일러서 {개라} 그러죠. 개, 갯마을, 튀갯바디.		정운영(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개흙/갯벌흙	개흙/갯벌흙	명		개벌,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그러면은 자염을 만들 때 {갯벌흙이} 잘 말라요. 그러니까 복같이 갯벌흙을 말려서 바닷물로 걸러서 끓여두고 때는 갯벌흙에 아주 건조하게 말려 나까 소금이 많이 생산됩니다.		정낙추(총남 안)	0	0	0	0	0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덧물	덧물	명		덧수를 끓이는 과정에서 영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소금 성분을 불리기 위해 잠가해서 찌는 소금물.	{덧물}, 그게 소금 영자 발전자 해서 영자이며, 간장이들은 대부분이 {덧물 주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하지도. 개인들은 덧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정낙추(총남 안)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덧물주다	덧물주다	구		가마에 덧수를 덧붙다.			정운영(총남 안)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비율1	기초어휘분류비율2	동원명	분사정보	뜻풀이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2	별칭	별칭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양전	제형과정	자염				간수/간수	명	소금에서 나온 물.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가름	명	염수를 끓일 때 위에 떠오르는 것.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덩어리.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사리밭에 이오다	구	사리가 되었다는 의미임.	{사리밭이 왔는지는} 매수를 보면 알지. 오바다는 물이 나가면 빨아되는 바다고 뜻보다는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나 있는 데를 말한다.		정남추(충남 안)		0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사리가오다	구	사리가 되었다는 의미임.	사리밭이라고 하고 {사리가 왔다}. 이리저리 여기서는.		송은영(충남태안)	기초정보어휘제출정보에 있음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소금오다	구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인제 그 {소금오다} 하잖아요. 뭐 왜 그러냐면 소금꽃이 피어서 소금이 시작되니까.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소금밭에 선다	구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소금밭이 선다} 그러죠. 소금밭 소금밭이 온다 소금밭이 선다 뭐 그렇게 하지.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소금꽃피다	구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그렇게 하고선 뒤집기 전에 어찌 저 짜림 {소금꽃 피다} 했죠? 이것도 소금꽃 피어요.		정남추(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간수빠다	구	결정된 소금에서 물기를 빼다.	그럼 소금이 해야지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간수를 빼야되요}.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소금누를지	명	가마의 바닥에 소금이 높아 붙은 것을 이름.	거 소금 누른게 {누를지라고} 하는데 거 좀 탄내가 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거 소금없이 바싹니다.		정남추(충남 안)		0	
양전	제형과정	자염				탄내니다	구	소금에 탄 냄새가 나다.	거 소금 누른게 누를지라고 하는데 거 좀 {탄내가 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거 소금없이 바싹니다.		정남추(충남 안)		0	
양전	제형도구	자염				물통	명	황, 나무로 만드는 데 용자류의 함수를 가마에 넣고 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 밑바닥은 넓고 위쪽은 좁은 나무로 만든 통.	{물통이} 한쪽이 {물통이} 한쪽이 얼마 들어가 나뉘는 것말을 아가요	충남 단양 지역 민속자료 100에서 지이가 있음. 바닷은 넓고 나무는 좁은 나무 통임.	정남추(충남 안)		0	0
양전	제형도구	자염				바깥덜	명	용자류의 간통에서 물통을 퍼올리는 작은 통을 이름.	{바깥덜은} 간통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퍼내는 것을 보고 바깥덜이라고 하지요.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형도구	자염				안덜	명	바구니에서 가마에 함수를 퍼올리는 큰 통을 이름.	{안덜은} 가마에다 붓는 통을 갖다가 안덜이라고 하구요.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형도구	자염				먼지게/물지게	명	물지게, 물통을 지고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충남 단양 지역에서는 간통이가, 간통의 함수(물통)를 물통에 담아서 바구니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	물지게에, 물통이 오이엔 간통이가, 대통은 간통이. 충남 단양 지역에서는 간통이가, 간통의 함수(물통)를 물통에 담아서 바구니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		정운영(충남 안)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회분류 번호1	기초어 회분류 번호2	음리명	발음정보	통사정보	뜻풀이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멀티 정보 작성 일	표준어 어휘 등록 일
영진	제염도구	자염				대갈	명	명	대마루를 쪼개서 쾅쾅 만들며 향수가 끈을 때 쾅 쾅 하는 기쁨을 한껏으로 모으는데 사용하는 도구.	용례 {대칼은} 용반 지기 벗자락이서 아니 벗자락아니 다. 용반이서 용반이서 쓰는 것이다. 기름 나지도 그것이 불순물이지요. 그것이 오래 지꾸 더 끓이면은 아주 걸추 해지고 많이 따오수. 그러면 대칼로 밀어 내라고 {대죽으로} 건져내지요.	정운영(홍남인)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대죽	명	명	기마의 소금을 상태에 얹어놓기 위해 떠내는 도구. 뒤주걱과 같음.		정운영(홍남인)	0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후리채	명	명	한쪽으로 모으는데 사용하는 도구. 부드러운 뼈만 두 만든다.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푸는 것을 통채. 또 그 곁을 이렇게 대나므로 뽕뽕살만 남. 죄이를 안. 인. 부채처럼 만들어서 소금이 막 곁을 때 곁을 잘어내는 걸 {후리채}.	정운영(홍남인)		0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다주걱/ 대주걱	명	명	나무의 속을 구우처럼 파서 만든 도구로 소금을 건질 때 사용한다. 소금발이 좋은 지를 볼 때 사용 하는 도구. 소금은 발이 가는 것이 좋다.	{대(되)주걱은} 나무를 통파지게 세모지게 파서 소금이 발이 좋은가 소금발이 좋은가 따서 보는 도구. 뽕(소금꺽기)이 가는 것이 좋지요.	정낙추(홍남인)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상타기	명	명	나간잔나름을 두껍게 해서 가는 새끼로 그물을 파듯 촘촘히 얹어서 기마줄에서 건진 소금을 담아 간수를 빼는 도구. 새만 같은 모양이다.	금방 가마에서 건진 소금을 금방 양에다 갖다 놓는 걸 아니라 {상타기}에다 놓거든요?	정낙추(홍남인)	0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상태미	명	명	상태기의 태인 새투리.	상태기, 상태미하지.	정운영(홍남인)		0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봉자락	명	명	간통, 것벌을 가래로 갈대기 모양으로 둥글게 파낸 형태도 향수를 저장하는 용.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 대개 원의 지름이 8-9미터이며, 중심의 깊이는 1.5미터이다.	이게 옛날에는 {봉자락에} 걸렸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을 잘들라고 했어요.	정운영(홍남인)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만쪽	명	명	간통을 만들기 위해 통자락의 중심부에 민내는 널 그 위에는 좁은 가나무 기둥을 얹함. 만쪽을 이용하여 사각형의 안구를 만든다.	뭐 옆면이야 {만쪽} 박고 이었으면 바란이나 안 들어오게 하고 천장은 동그렇게 돌려서 길이 빼 지나가야 하니까 지름이 없었죠.	정낙추(홍남인)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틀	명	명	간통의 사각형 안구를 이듬. 어긋을 통해 향수를 퍼낸다.	아이 인제 이제 {틀로} 따서 가마에다 붓는데. 그것 잘 가져오는 틀.	정낙추(홍남인)		0	
영진	제염도구	자염				향도작업	명	명	배를 이용하여 껍질의 향을 잡고, 땅이판으로 땅을 깔고, 말리는 일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말. 동남 태안 지역에서는 말자막과 같은 의미임.	향도작업은 틀을 파낸 다음에 틀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파냈죠. 그놈을 이제 말릴까면 쓰레로 이제 갈고 대나도 다 인제 부스리져서 갈고 대나요. 서도 갈고 대나도 그래서 {갈자막아유}, 그게. 레서 인제 땅이판이라고해서 두터운 이다판들 만들어서 또 이다판을 달고다녀서 서는 거. 그놈을 달고서 거기다 사람이 돌씩 시켜 몰라타요. 그 후면이 향도작업은 문헌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태안 {홍남}의 제보자는 갈자막이라고 함.	정운영, 정낙추(홍남태안)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분류번호 1	기초어휘분류번호 2	동원명	발음정보	통사정보	뜻풀이	영역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2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영진	제염과정	자염			영분	영분	명		바닷물 따위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기.	{영분은} 바닷물이 다 영분이죠.	鹽畝, 鹽畝라고도 함. 영벗더, 소금을 끓이는 가마를 이름. 영조 때 여사 함광필의 均世鹽良均貯行實에 의하면 태안지역의 영분(鹽畝) 鹽畝)이 453좌로 기록.	정낙추(2002), 유승훈(2008)		영진정보2	영진정보	영단어	영단어			
영진	제염설비	자염			영부	영부	명		鹽畝, 영벗더, 소금을 끓이는 가마를 이름.		영조 때 여사 함광필의 均世鹽良均貯行實에 의하면 태안지역의 영분(鹽畝/鹽畝)이 453좌(송남 태안)로 기록.	정낙추(2002), 유승훈(2009)								
영진	제염설비	자염		간통		간통	명		통지락의 중심부에 염죽을 벽에서 만든 통으로 여기에 함수가 모인다. 위진장조(자염을 만들 때, 영도가 높은 간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 간수 구덩이. 영진 내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개흙을 쌓은 층에 2-3m 깊이의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쪽은 정도도 단단하게 다지고, 내부에 벽판을 대거나 그냥 시 그 위에 소나무 가지나 갈대(보릿대)로 묶은 가지, 솔가지) 등을 두껍게 덮은 다음 그 위에 영분(염, 황갈이 없는 황사를 덮는다. 석등 위에 황사를 깔 평하게 하고 돌레를 쌓은 다음 그 위에다 바닷물을 부으면 해수가 함수에 침투되어 그 속에 함유된 염분을 여과시켜 농도가 높은 간수가 석등 밑에 고이 통을 통해 흘러 나간다.(김일기 2006, 28) 나무 가지나 갈대(보릿대)로 묶은 가지, 솔가지)도 장그 레를 하는 이유는 바닷물을 염사 위에 퍼두를 때 염사가 거적을 통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간수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김일기 2006, 33)											
영진	제염설비	자염					명		간통의 입구. 함수를 퍼내는 시각형의 입구.			정낙추(송남 태안)								
영진	제염과정	자염			거름	거름	명		염수를 끓일 때 위에 떠오르는 것. 액체가 기체를 띠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거름은} 인제 위쪽다 듣는말이지.		정영명(송남 태안)								
영진	기타	자염			상구선	상구선	명		소금을 팔러가는 배			정영명(송남 태안)								
영진	기타	자염			소름배	소름배	명		소금을 팔러가는 배			정영명(송남 태안)								
영진	제염과정	자염			소나무	소나무	명		가마에 불을 때 사용하는 나무.	{소나무도} 때조, 소나무도 간송하니까 죽어 죽어서 버리니까.		정영명(송남 태안)								
영진	제염과정	자염			0동	0동	명		성인 한 사람이 지게에 질 수 있는 뿔나무 무게의 양.	아니, {한동은} 쪼그만것 보고 한동이고.		정영명(송남 태안)								

3 자영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조사어휘분류 비율 1	기조사어휘분류 비율 2	동량명	별칭명	본사칭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진정보	출진정보 사지	영티 정보 영성 영치	표준어 어휘 영치
영전	제영과정	자영			0점		명		가마솥에 부은 영수의 앙을 재는 단위. 2푼이 1점이며, 가마솥을 가득채우려면 28점이 된다. 한 가마에서 도성(다섯가마나)의 소금이 생산된다. 한 점(한가마)의 소금이 만들어지면 여섯푼(성인)항사량이 지계에 칠 수 있는 뽕나무 무게의 양이 소요된다.	아니 점으로 이베이 {항침이며} 항침이며 그게 그러던 한가마를 떨어진 여덟점을 해야해. 여덟 점.		점영명(총남 인)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불순물	명		한수를 가마에 끓이면 생기는 거품을 이르는 말.	영수 위에 {불순물} 대칼로 밀고 대주적으로 건져낸다.		점영명(총남 인)		0	
영전	제영준비	자영			영섯		명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들어 내는 시설. 소나무로 영을 만들고 그 속에 청판을 이어붙여 만든 대항수를 갖고 아궁이를 설치한다. 솥 옆에는 영수를 보관할 수 있는 보조항을 마련해 두고, 밖의 위쪽은 수증기가 빠져날 수 있도록으로 구멍이 나 있다. 벗 이라고도 함.	에, 거기서 실적으로는 {영버섯다가} 소금근다가 그것 못 허니까 배를 서다가 고걸 잡았지요.		점영명(총남 인)		0	
영전	제영노무	자영			대물		명		간경이 영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소나무 송진을 이용해서 만든다. 영도에 따라 부유가 뜨는 높이가 달라진다. 다름.	간경이는 통자락 통에서 물을 떠서 간을 보는 사 용인데, 간경의 영도를 재는 도구인 대물을 이용 한다. 대물은 송진을 때서 녹인 뒤 끓일만한 물을 넣고 뽕그릇에 만들고 노끈을 넣어서 송진을 밀 하고 막대기에 담아서 영도를 측정한다. 대물이 될 때까지 송수한 물은 떠내고 뽕까지 올라오 면 버거스로 옮긴다.		점영명(총남 인)		0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덧물		명		회영 제작 과정에서 영안이가 지개를 저서 가마솥 에 부은 영수를 영안이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아침부터 정심우림까지 하며, 그 사이에 영수를 조 절하기 위해 부는 물. 불을 뽕때 가마솥의 영수 높 이지 않는다. 하루에 두차례 불을 뽕 때도 있고, 기 박 2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끓이면서 소금을 이 불 불달인 질판에 {덧물 } 붓죠. 덧물을 붓으면은 그러니까 말할 때 덧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점영명(총남 인)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영수		명		한물, 소금물	여기서 {영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영수를 영수 라고 한자표기로 영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이 라고 하고 영수라고 했지요.		점낙추(총남 인)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한물/영수/영수		명		영수, 소금물, 통자락이나 영전에 담겨 있는 물, 한 물	여기서 영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영수를 {한수라 고} 한자표기로 한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이 라고 하고 영수라고 했지요.		점낙추(총남 인)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거품		명		영수위에 떠 있는 불순물.	또 그 {거품을} 이렇게 대나무로 부채살대양 솥 이틀 안 불인 부채처럼 만들어서 소금이 막 걸릴 때 거품을 걷어내는 걸 후리채.		점낙추(총남 인)		0	
영전	제영과정	자영			특간치다		구		결바를 만들기 위해 조기를 넣은 특 간에 소금을 치다.	{특간 치다} 그러지요.		점낙추(총남 인)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병주	대명부	종근부	소근부	기초어 회근부 비음 1	기초어 회근부 비음 2	동리명 래/일/관/가 래	본사근부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진정보	출진정보 사지	별기 정보 사지	별기 정보 음성 분석	표준어 어휘 등록
영진	제명도구 자염					일/관/가 래/일/관/가 래	명	안쪽에 세면씩 중간에 한명이 잡고 가래질을 하는 도구. 영을 팔 때 사용하는 도구.	이 쪽도 똑같이. 그래서 한 쪽 두 개가 세면씩 붙은 고 가래인다가 하나 쓰고 하면 (일/관/가래) 일 금도 가래.) 고다리를 만들어 붙어있어. 한쪽을 세면씩 하고 중간에 한명이 잡고		정낙추(총남 인)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아름/구영/ 가래	명	안쪽에 네명씩 중간에 한명이 잡고 가래질을 하는 도구. 영을 팔 때 사용하는 도구.	{아름, 구영 가래}.		정운영(총남 인)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이디판	명	나래의 납작한 판 부분을 이르는 말.	{이디판을} 나무 납작한 제재소에 가서 만들어 요. 납작하게.		정운영(총남 인)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나래질	명	나래로 각별함을 통자락으로 밀어넣는 일.	나래, 나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먼은 우선 나래 부터 만들어야 {나래질을} 하지요.		정운영(총남 인)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나래	명	눈발을 번번하게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배래와 비슷하나 아래에 밭 대신에 벌판이나 절판을 가로 대어 자갈이나 흙 따위를 밀어 내는 데 쓴다. 황도자갈을 끝난 것별함을 통자락으로 밀어넣는 데 사용하는 도구.	나무 납작한 판(이디판)을 만들어서 구멍을 다섯 을 뚫어서 위에다 뚫고서 나무 단자를 꽂고 손잡 이하는 나무와 연결시켜 그기(메)다가 황태(마디마 디)를 짜게서 엮어서 하는 것을 나래요. 흙을 모을 때 하는 것.		정운영(총남 인)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배래	명	비두를 갈때 하는 도구	구멍을 영통을 파서 10센티되는 나무를 박아서 영두개를 박고 큰메고 소메디 메고		정운영(총남 인)	0		0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대름보다	명	관통을 지는 간쟁이가 영도를 지는 것을 이름.	그래서 영도를 측정한다. 그렇게 안 하고 {대름보 다} 그랬죠. 대름본다. 영도를 쟀다. 그 소감죠.		정운영(총남 인)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대름	명	영도를 지는 도구	{대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간쟁이가 영도 를 측정하죠.		정낙추(총남 인)	0		0	
영진	제명도구 자염					추리채	명	가름을 모으는 도구.	그게 그걸 번게내고서 그봉으로 그봉으로 후리채 를 하는 거예요.		정낙추(총남 인)			0	
영진	제명과정 자염					호락질	명	흔자서 일을 하는 것을 이름. 부정적으로 하는 말.	아 저사랄 호락질하네 그러. 나쁘게 얘기하는 거 지.		정운영(총남 인)			0	0
영진	제명해머 자염					위양치/외 아치	명	영부들이 소근내기 위해 흉도 말리고, 벗기까이에 용영이를 만들어서 손을 씻고하는 용영이. 손별씩 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용영이.	외아치가 무어냐면 영부들이. 영부들이 거기서 소근내기 위해서 흉도 말리고 여러가지 일을 해 잖아 그러면은 그 위양치를 어떤 파나면은 벗기 까이다 파놔요. 파 놓으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기면 물이 고이지요? 그 물을 이용해서 신발 뒤 고 하는게 그게 위양치야.		정운영(총남 인)			0	0

3 자명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조사어휘분류 비유 1	기조사어휘분류 비유 2	동원명/영어/이판	발음정보	본사정보	뜻풀이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사지	영단어 정보 영성 영사	영단어 정보 영성 영사	표준국어 어휘 목록
영진	체명도구	자명				영어/이판/영어/이판	명	영어/이판/영어/이판	두꺼운 나무판으로 만든 것으로 껍질을 간 덩어리를 부수기 위한 도구.	패널을 부시르고, 새려를 달아서 소로 껍질을 깔고 덩어리를 돌려서 덩어리를 다 깨치고 돌아다녀 나래로 뱅글리댄 {영어/이판} 돌리고 1주일 계속 반복해서 축을 뒤집어 얹었다. 한다. 조금부터 일곱까지 용이 안들어오니까 이때까지 작업을 다 끝내고 영어/이판부터는 용자쪽에 몰이 다 빼오.(몰어좌요) 영어/이판에서 열한대까지 말린 후에 서 내려온 물이 잔물이며.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과정	자명				영어/이판/영어/이판	구	영어/이판/영어/이판	것들의 축을 고르기 위해 영어/이판에 둘러타다.	사람이, 덩어리판에 둘러앉아서 소를 돌면 덩어리가 깨지니까 {영어/이판}. 논파는 것을 영어/이판한다.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셈배	자명				합수통	명	합수통	것밖에 있는 통자락의 중간에 박아 놓은 판물(영수)구멍이름 이름, 간수통, 간통	{간통}, {합수통} 같아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0	
영진	체명셈배	자명				간수통	명	간수통	것밖에 있는 통자락의 중간에 박아 놓은 판물(영수)구멍이름 이름, 합수통	바깥물은 간쟁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따내는 것을 보고 바깥물이라고 하지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셈배	자명				간통/합수통/간수통	명	간통/합수통/간수통	개뿔에 있는 통자락의 중간에 박아 놓은 판물(영수)구멍이름 이름.	{간통}, {합수통} 같아요.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물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하고요. 바깥물은 간쟁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따내고 바깥물이라고 하지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통	명	통	간통의 물을 가마에 부을 때 사용하는 도구.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물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하고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안뜰	명	안뜰	것안에서 간통에서 따서 가마에 푸기 위해 사용하는 판으로 크기가 크다. 박이 크고 통같다. 가마에서 따는 물을, 평안에서 뜨는 것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물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하고요. 바깥물은 간쟁이가 {간수통에서} 간수통에서 따내고 바깥물이라고 하지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바깥물	명	바깥물	간쟁이가 바구에 부을 때, 간수통에서 따내는 것을 바깥물. 크기가 작고, 박이 작은 것으로 따내는 것으로 사용. 간쟁이가 갖고 다니는 것. 간통에서 따온 것을 바구에 부을 때 사용. 박이 작고 조금밖에	안에서만, 것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바깥물} 언제 간쟁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뜰은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물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하고요.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물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하고요. {안뜰은} 가마에다 푸는 것을 보고 바깥물이라고 하지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셈배	자명				구락장이	명	구락장이	아궁이의 총남 태안 방안.	아주 옛날에는 구락쟁이라고 했지요. 옛날에는 우물도 구락쟁이라고 했시유.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고우래	명	고우래	가마에서 소금을 굽을 때 사용하는 도구.	고우래는 가마에서 소금 굽을 때 사용하지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추리채	명	추리채	끓는 물과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	끓기 물을 오래 때면 거름이 걸여져요. 추리채도 추려서 한쪽으로 밀어서 몰아놓고 죽통으로 건져 내요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영진	체명도구	자명				죽통	명	죽통	가마에서 소금을 떠낼 때 사용하는 도구	죽통은 죽을 끓여주는 용기인데, 죽을 끓여주면 거품이 걸여져요. 죽을 끓여줄 때 죽통은 한쪽에 몰아 놓고 돌 때, {죽통으로} 인해 건져내 죽	영어/이판/영어/이판	영어/이판/영어/이판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회분류 비유 1	기초어 회분류 비유 2	동원명	복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영성 영제어	표준어 어사지 영제어	
영진	체언과정	자염				가름	명	가름의 총남 떠안 방언.	가름? 가름. 거름은 인제 위째 다 듣는 말이지. 옛날 말은 옛날말이지.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구	자염				불채	명	가마에서 소금을 떠낼 때 사용하는 도구. 죽통과 같은 의미임.	소금을 굽는 것은 고무래, 소금 굽는 거, 가마속에서 소금을 굽는 걸 고무래. 그러고 소금을 이룰 게 푸는 것을 {불채}.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소금온다	구	가마에 함수가 끓으면 소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소금꽃이 피서 소금이 시작되니까 {소금온다}고 하죠.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0	
영진	자염					배래닐/스래날	명	논밭이 갈리게 하는 배래의 뾰족한 부분을 이룸.	정기는 논 밭 갈 때나, (여기는 필요 없고), 그림 {스래날} 같은 경우에는 좀 뾰족하게 하겠조?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자염					정기	명	논밭을 가는 도구	정기는 논 밭 갈 때나, (여기는 필요 없고), 그림 {스래날} 같은 경우에는 좀 뾰족하게 하겠조?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자염					부지쟁이	명	부지쟁이	옛날부터 부지쟁이여.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엇을 굽는다	구	1)염도를 맞추기 위해 간정이가 찌물을 더 부는다. 2) 한 가마에서 나오는 소금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함수를 더 부는 것을 이른다. 개인들이 사용 하는 표현.	일반 사람은 었을 굽는다. @ 그러니까 염수 그 찌물을 굽히는 과정에서 계속 염도가 높 낮으면 다시 물을 이렇게 더 부기도 하나요? 더 부는 게 었을 굽는다. 그러죠. 부는다고 하고 {엇을 굽는다} 하고 그렇지요. 간정이들은 대부분이 었을 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개인들은 었을 부었 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엇을 주다	구	1)염도를 맞추기 위해 간정이가 찌물을 더 부는다. 2) 한 가마에서 나오는 소금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함수를 더 부는 것을 이른다. 간정이가 사용 하는 표현.	간정이는 대부분 {엇을 주다} 그러고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간수	명	소금에서 나온 물. 간수	간수는 소금에서 솟아진 것을 두고 간수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 없으면 두부를 못했지요.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간수강해다	구	간수의 농도가 짙은 것을 이룸. 간수의 농도가 얇으면 적은 양을 넣어두두부가 잘 된다.	짙다는 않고, 짙다는 없고 {간수가 강하다고} 얘기하지요.		정운영, 정낙추 (총남 태안)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간수약해다	구	간수의 농도가 약한 것을 이룸. 간수의 농도가 약하면 많은 양의 간수를 넣어두 두부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저 두부 할 때 많이 넣어두면 많은 양의 간수를 넣어두 두부가 잘 되지 않 도 금방 쨌 때는 간수가 강하게요.		정운영(총남 태안)		0	0		
영진	체언과정	자염				소금발선다	구	가마의 함수가 끓기 시작하면 소금의 결정체나 소금꽃이 나타남이 시작하다.	소금판이나 {소금발선다} 같아, 소금이 이렇게		정운영(총남 태안)			0	0	

3 자염 조사어휘(안귀남)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 회분류 비유 1	기초어 회분류 비유 2	동원명	병음 정보	본사정보	뜻풀이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2	병기 정보 사지	병기 정보 음성 분석	표준 국어 어휘 등록여부
양전	제염과정	자염			갯물	갯물을 이룸.	명	명	바닷물을 이룸.	강이나 바다에서 흘러나온 물(표준국어대사전)로 불리고 있으나, 충남 태안에서는 바닷물만을 이룸.	전남추(충남 안)			0	0
양전	제염과정	자염			간물	간물에서 나온 물.	명		간물에서 나온 물.	편맛이 나는 물(표준국어대사전)로 불리려고 있으나, 충남 태안의 자염에서는 간물에 모염이 염도가 높을 이르기 때문에 자기가 있음.	전남추(충남 안)			0	
양전	제염과정	자염			말브다	말브다의 충남 태안 방언.	형			전일염하고 자염은 완전혀 말바요.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갯물 저장	갯물을 저장하는 장소.	명		바닷물을 저장하는 장소.	그 물을 {갯물 저장이라고} 그러요. 바닷물 저장이라고 그러요. 근데 그 그릇을 염만을 저 저거를 하느냐면 그 천일염 만드는 기간동안 사, 팔이간 말말간을 태양으로서 천일염을 만들거든요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바닷물저장고	바닷물을 저장하는 장소.	명		바닷물을 저장하는 장소.	그 제방에다가 그 수온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니 카드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바닷물 저장고도} 막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 졌어요.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제방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 홍수나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 홍수나 물의 흐름을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	명		{제방사서} 벌써 무더니까 워다가 저 나야 제방 높은 지역을 고르는 거기 남음을 골랐는데.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수온	물의 온도를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	명		아니요. 아니요. 그 제방에다가 그 {수온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니 카드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바닷물 저장고도 막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 졌어요.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염준비	자염			아구니	가마에 불을 때는 아구니	명		가마에 불을 때는 아구니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구니를} 남겨 놓고 팽글리 가일 솥을 돌려놓라고 썬아 싸죠.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염준비	제염준류			태양염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해수(海水)를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 풍력 따위로 수분을 증발·결정시켜 만든다	명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해수(海水)를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 풍력 따위로 수분을 증발·결정시켜 만든다	{태양염이라고} 해야죠. 그건 태양으로 되니까.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염판	1)천일염을 만들 때 일단 갯물 바닷물을 저장하는 장소. 2) 자염을 만들 때 항토작업을 하는 곳의 바닷물 이룸. 즉 항토작업을 하기 위해 뿔을 수로 끌어 올린 곳. 통지락, 갈지락과 같다.	명		1)천일염을 만들 때 일단 갯물 바닷물을 저장하는 장소. 2) 자염을 만들 때 항토작업을 하는 곳의 바닷물 이룸. 즉 항토작업을 하기 위해 뿔을 수로 끌어 올린 곳. 통지락, 갈지락과 같다.	바닷물이 저장고에서 일단 갯물 저 {염판이라고} 하죠? 저 그 태양열 만드는 팜을 갯물 전부 염만 하려고 하는데 그 염판으로 들어와요 물이.	정운영(충남 안)			0	
양전	제염준비	천일염			수채	수채의 충남 태안 방언. 「기계, 물의 매니저를 이 염판이 왕도령을 얻는 수채 태안의 화전 장, 천일염에서 염전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도구.	명		수채의 충남 태안 방언. 「기계, 물의 매니저를 이 염판이 왕도령을 얻는 수채 태안의 화전 장, 천일염에서 염전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도구.	이 지금은 전부 무더근 해서 물을 부는데 옛날에는 {수채라} 해서 사람이 밭에서 사람이 물을 끄고 나고 그랬거든요.	정운영(충남 안)			0	0
양전	제염과정	자염			염록	염나물로 수화, 충남 태안 지역에서 가마의 염나물로 사용했던 나무.	명		염나물로 수화, 충남 태안 지역에서 가마의 염나물로 사용했던 나무.	{염록을} 때죠. 저 요즘은 화학 많아요. 이 저 사 간송은 가마에 때는 염나무는 썬어서 버리니 염록을 이룸.	정운영(충남 안)			0	

찾 아 보 기

ㄱ

가래152
 가마143, 147
 가마걸다161
 가마걸들145
 가맛들145
 간(소금)174
 간136
 간물170
 간수170
 간수빠다170
 간수통146
 간장138
 간장이138
 간장주141
 간쟁이138
 간쟁이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180
 간조기177
 간치다176
 간통140
 간통자락165
 간필165
 간허다177
 갈개 조금 방식150
 갈자락 방식150
 갈자락138
 갈자락하다166
 갠수170
 갯물165
 갯벌163, 164
 갯벌흙 말리기(함토작업)164
 갯벌흙164

거름167
 거품167
 걸들145
 고무래157
 구대141
 구명가래152
 (짚물)구대기141
 구락쟁이144
 굴뚝144
 굴뚝달다144
 깨치다166

ㄴ

나래143, 153
 낮가마147

ㄷ

대름157
 대름보다166
 대림157
 대갈159
 댕이판153, 158
 덧물 붓다169
 덩이판153, 158
 독간치다176
 되주걱154
 되주걱으로 뜨다170
 뜰채154
 뜰채로 뜨다170
 뜸142
 뜸하다162

ㅁ

무제염전식149
 무지개155
 물때171
 물지게155
 물통155
 못177
 민속179

ㅂ

바깥털156
 바닷물165
 밤가마147
 백조기176
 뱃노래179
 버긱141
 버긱파다162
 버긱걸다167
 벳142
 벳고사179
 벳말146
 벳말세우다164
 벳얏히다161
 벳임자137
 벳자락145
 벳주137
 벳집142
 벳터144
 보글치176
 부담145
 부담쌓다161
 부뚜막145
 부지깅이160
 부지땡이160
 불때다168
 뺨164

뺨뒤었다165

ㅅ

산짐허다172
 삼태기159
 삼태미159
 서까래146
 섬159
 소160
 소금 수확하기169
 소금136, 173, 175
 소금굽다170
 소금꽃얏다168
 소금꽃크다169
 소금꽃피다169
 소금물170
 소금발서다169
 (소금)발서다168
 소금발오다168
 소금섬159
 소나무167
 송염175
 송화가루소금175
 쇠철판143
 씨레151
 씨리151
 쓰리151

ㅇ

아구니144
 아홉가래152
 안털156
 양빈식150
 염막142
 염뱃142, 161
 염뱃임자137

염벳허다146
 염부137
 염수170
 염주137
 염관138
 염한이137
 외렴174
 외야치147
 외얏치147
 우물140
 움막142
 옷집142
 옷집하다162
 원소금174
 이다관153, 158
 이영143
 일곱가래152

ㄱ

자연136, 149, 173
 재래염136, 174
 재료175
 젓갈178
 제리다177
 제염138, 151, 161
 제작 과정176
 저오다167
 (참)조기175
 조금171
 (불)조절허다168
 짠물 끓이기167
 짠물 읊기기166
 짠물170
 짠물모으다164

ㄴ

천일염136, 174

철관143
 청염174

ㄷ

태양염174
 털156
 통140, 155
 통자락138, 163
 통자락세우다164
 통조금 방식149
 틀141

ㄹ

(웅덩이) 파다163

ㅎ

함수170
 함수통146
 함통146
 해이다146, 162
 호락질하다147
 흙(흙)141
 화렴136, 173
 화목167
 화부138
 황155
 황세기176
 후리채159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안귀남(안동대학교)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20일
발행일 2011년 11월 22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